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10 Vol. 238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거장들의 만남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 '유리 시모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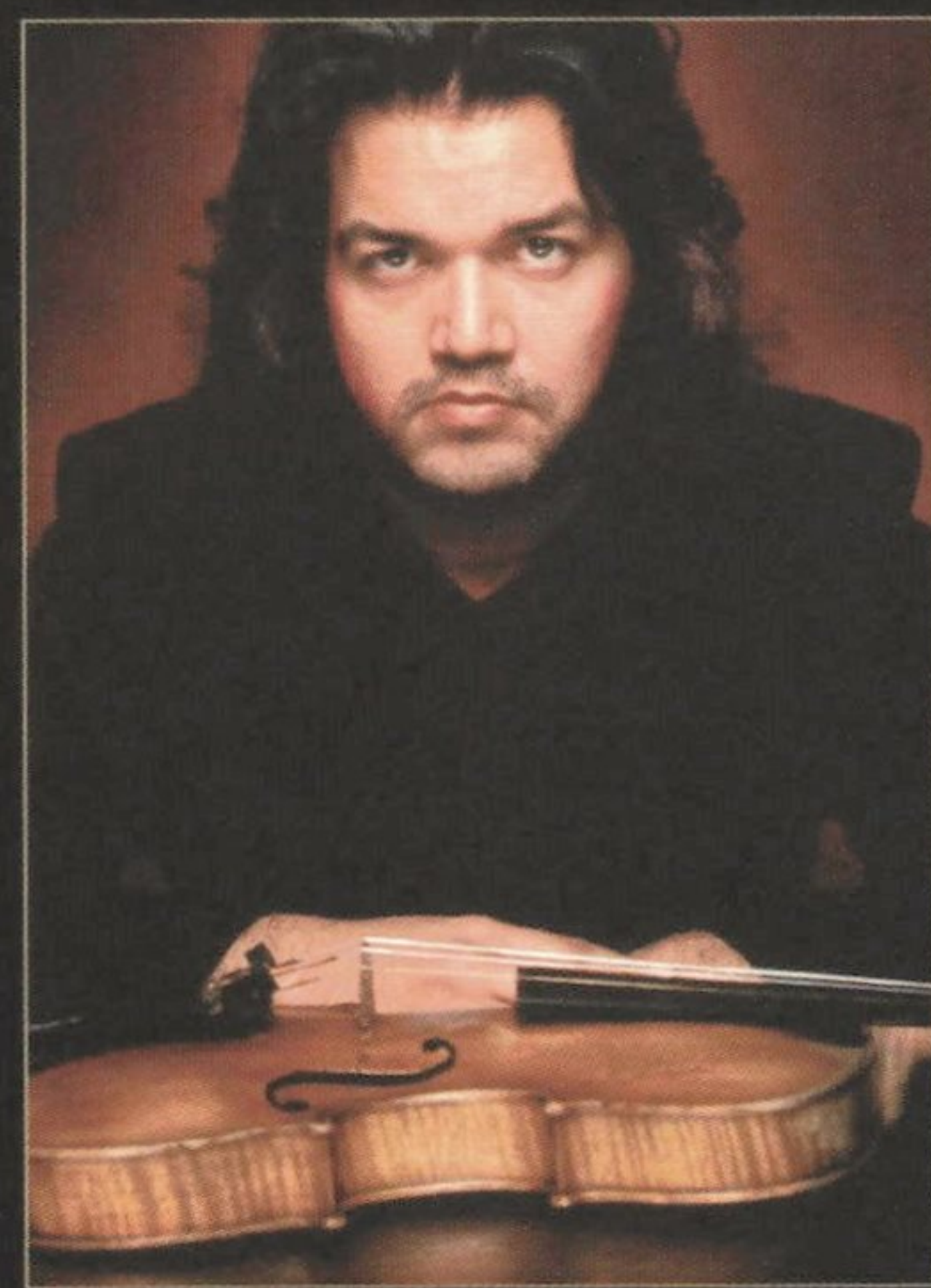
티보바르가 우승에 빛나는 젊은 거장 '요제프 렌드바이'



지휘 | 유리 시모노프

PROGRAM

- | | |
|-----------------|----------------------------------|
| Rimsky Korsakov | Sadko, Op.5 |
| 림스키 코르사코프 | 사드코 |
|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
|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
| Tchaikovsky | Symphony No.6 in b minor Op.74 |
|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6번 <비창> |



바이올린 | 요제프 렌드바이

2011. 11. 17 | Thu |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ticketlink 1588-7890 | BS 부산은행 전지점 051) 741-3255

입장권_ VVIP 200,000원 | VIP 150,000원 | R석 120,000원 | S석 100,000원 | A석 80,000원 | B석 50,000원



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그녀의 첫사랑 첼로와 함께 2011년을 마무리한다.

HAN-NA CHANG

CELLO RECITAL WITH FINGHIN COLLINS

첼로_장한나 피아노_피닌 콜린스

PROGRAM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Op. 34, No. 14 Rachmaninov Vocalise Op. 34, No. 14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타타 g 단조 Op. 19 Rachmaninov Cello Sonata in g minor Op. 19
 데 팔라 7개의 스페인 가곡 De 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gnolas
 피아졸라 그랜드 탱고 Piazzolla "Le Grand Tango"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2.12** (Mon) **7:30** 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ticketlink 1588-7890 | BS 부산은행 전지점 051) 741-3255

입장권_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야마하피아노 전시장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공연장, 교회, 연주자, 전공자 특별우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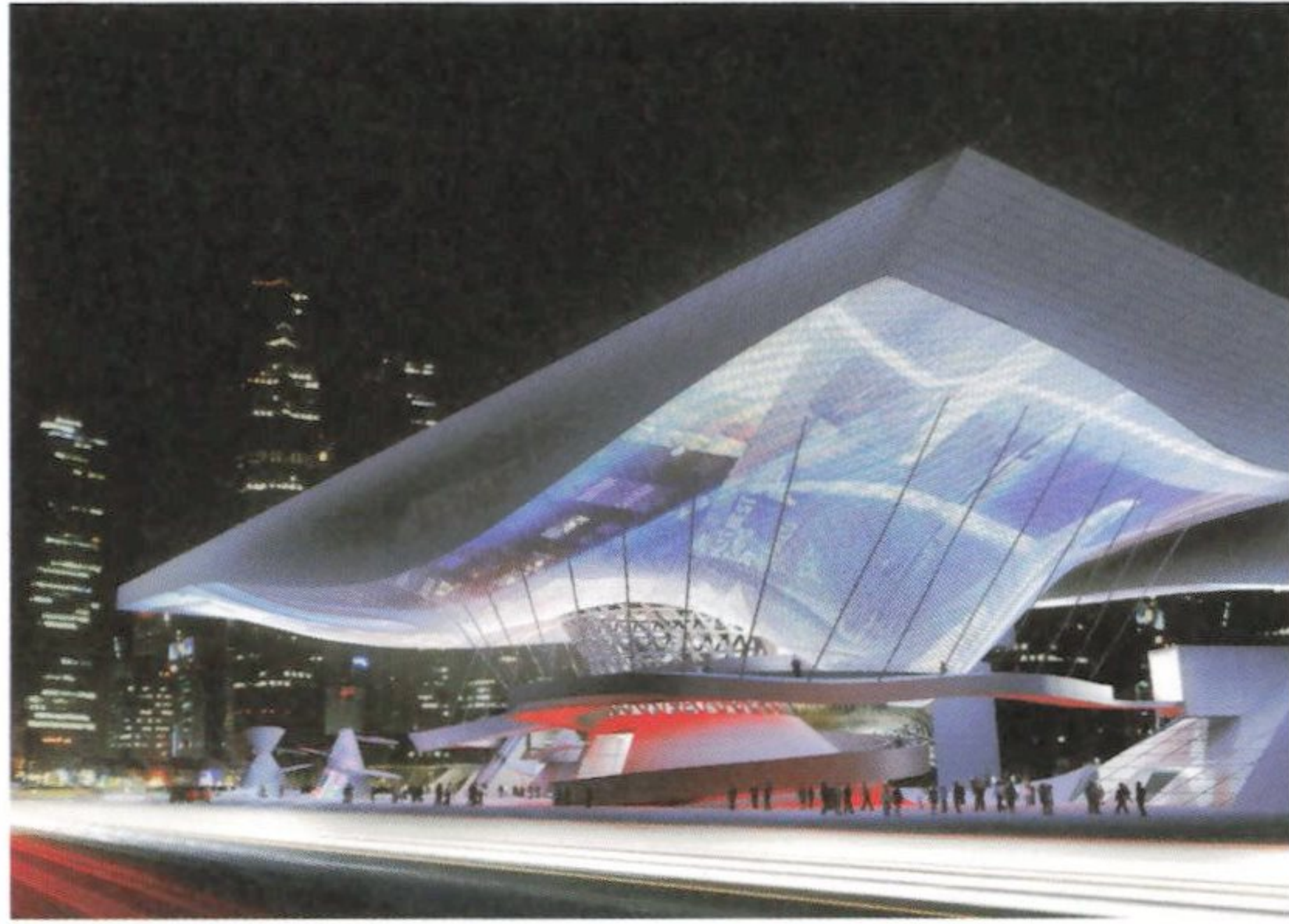
신품 그랜드피아노 사이즈별 대어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 '백혜선', '진보라', 성악가 '폴포츠' 공연 지원
임재범, 이적, 거미, 휘성, 린, 브라운아이즈소울 등 가수 공연 지원

조율, 수리, 운반, 리빌더 전문
담당 : 국가공인 산업기사 오 지 광 010-5548-5404

부산국제음악제 부산야마하는 부산국제음악제 피아노 공급 지정업체입니다.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051)743-7784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246-0660 홈플러스 해운대점 051)743-7785
홈플러스 장림점 051)266-4747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051)506-7332 롯데키즈마트 부산점 010-4242-6382 롯데마트 웅상점 010-4911-6236

www.busanyamaha.com 부산진구 양정동 352-3번지(양정지하철역 2번출구 50M) 부산야마하피아노.악기사 전화 : 051)863-7060~5



C/O/N/T/E/N/T/S

06 커버스토리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공동제작한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10 프리뷰

16 문화가 화제

10월, 축제의 도시 부산이 뜨겁다

18 반갑습니다

(주)한화 불꽃 프로모션 사업부 이장철 과장

20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㉔

사랑하면 보인다, 숨어있어도 보인다 | 정일근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9·11테러 10주기 추모공연 | 장은혜

26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㉔

킹스 스피치 | 이동신

28 불멸의 거장, 흥난파 ㉔

기독교 문화를 통한 서양음악 수용 | 김창욱

30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㉔

소나무 아래서 신선이 생황을 부니 | 변광석

32 그곳에 가면

한국 영화의 랜드마크 영화의 전당

34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독서모임 책방골목

36 리뷰

동시대 예술가들의 시각세계를 규정한 것은 무엇인가? | 신설령

비움-오후의 햇살 '김남주 개인전' | 박미경

38 프로그램 가이드

56 나의 애청음반

활기차고 멋지게 생동하는 고전음악 종결자

바흐의 Swinging Bach | 김희성

58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6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10월호 통권 238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9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공동제작한
부산시립예술단합동공연

동래성 붉은 꽃

10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592년의 어느 날, 수 십 배가 넘는 일본군의 막강한 무력 앞에서 기가 죽지 않았던 동래성 백성들의 처절한 혈투, 충(忠)과 의(義)가 10월 13일과 14일 웅장한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으로 되살아난다.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은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은행이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작품의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뜻을 모은 첫 번째 작품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과 부산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래 읍성민들의 구국 의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승화시킨 대작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즐거워라 무릉도원' 이후 오랜만에 부산시립예술단이 함께참여하는 합동공연으로 관심이 높다. 이번 무대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음악학과 재학생 등이 참여, 출연진만 200여명에 이른다. 전 출연진들이 부산을 대표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 마음으로 동래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동래를 지켜낸 동래성 사람들의 염원을 음악과 춤이 있는 총체극으로 승화시켰다.

이번 무대를 위해 '동래성 전투' 당시의 상황을 극작가 백훈기가 대본으로 옮기고 작곡가 강봉천이 웅장한 칸타타로 생명을 불어 넣었다. 국악의 틀에 서양의 칸타타(바로크시대에 발전한 성악곡) 형식을 빌어 2막 7장으로 작곡된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은 기존 국악공연에서 느낄 수 없었던 국악오케스트라와 대규모 합창단, 무용, 연극 등 부산시립예술단의 악가무(樂歌舞)를 한자리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만날 수 있다.

동래성 전투당시 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이 일본군에게 무참히 도륙될 즈음 송상현 공은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공명심에 불탄 왜병 하나가 송상현 공을 베는 순간 공의 몸에서 솟구친 붉은 피가 바닥을 슬프게 물들였다. 동래성 전투를 시작으로 조선과 일본은 7년간이라는 기나 긴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작품은 전체 1막 1장 의로운 꽃 송상현, 2장 부산의 평화를 위해, 3장 전쟁의 기운, 2막은 4장 전쟁, 5장 목숨보다 신의(信義), 6장 의연한 최후, 7장 그 향기지지 않으리로 구성된다.

예술총감독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김철호 수석지휘자가 맡아 이끌고, 국립극단의 이병훈 상임연출가가 총연출, 부산시립무용단 흥기태 안무자가 안무를 맡아 동래성의 중심에 있었던 송상현 동래부사의 흔들림 없는 결의와 백성들에 대한 애민, 연민, 인간애를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다.

오랜 호흡을 맞춰 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김철호 수석지휘자와 국립극단의 이병훈 상임연출가는 현재 우리 음악과 연극계의 중심에 서 있는 거장들로 그동안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감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감각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국립극단 상임연출가 이병훈은 그동안 ‘안티고네’ ‘노예와 사자’ ‘뽕추왕자’ ‘종이무덤’ ‘사천 사는 착한 사람’, 무용극 ‘혼자 눈뜨는 아침’, 한·일 합동공연 ‘강 건너 저편에’ 등을 발표, 제 24회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제 26회 동아연극장 작품상, 연출상, 일본 아사

히 무대 예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대본을 맡은 극작가 겸 연출가 백훈기는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예술집단 페테 대표, 중부대학교 뮤지컬 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있다. 백훈기는 그동안 연극 ‘홀라우프 돌다’, ‘봄날을 찾아서’, ‘망우리 만복이’, ‘달링’, 뮤지컬 ‘천사 키오’, ‘인터넷 데이팅’ 등 다수 작품의 극작 연출 등을 맡아 무대에 올렸다.

작곡을 맡은 작곡가 강봉천은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중앙국악원 원장, 가야금양상블 ‘현의 사랑’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및 고법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동아음악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는 강봉천은 국악관현악 ‘탈의 춤’ ‘처용별곡’ ‘절영의 전설’ ‘우삭도’, 무용곡 ‘꽃나무 풍장’, 중주곡 ‘바람의 소리’ ‘바다에 피는 꽃’ 등을 발표했다. 국악 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을 이끌어갈 송상현 부사 역에는 베이스 ‘박대용’이 캐스팅되어 부산음악애호가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극단 유성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염지선, 황창기, 박규한, 차승현이 신여로, 선조, 송상현 모,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 기무라 등 주요 배역을 맡아 열연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가 도장을 맡아 무대를 빛내준다.

김철호 수석지휘자가 전하는 **동래성 붉은꽃** 관람포인트



수석지휘자 김철호

Point 1.

부산시립예술단 등 200여명이 출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사운드에 부산시립합창단의 깊고 풍부한 성량, 부산시립무용단의 화려한 몸짓, 부산시립극단의 내면연기가 더해져 작품의 수준과 예술성을 높인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악가무(樂歌舞)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부산의 브랜드 작품으로 기대해도 좋다.

Point 2.

최고의 예술감독과 연출가가 펼치는 새로운 무대, 국악칸타타!

국악의 틀에 서양의 칸타타(바로크시대에 발전한 성악곡)형식을 접목, 국악 칸타타라는 새로운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현대 국악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Point 3.

부산 동래성 전투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예술로 재해석하다!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래읍성 백성들의 충(忠)과 의(義)를 현대의 정서로 교감하고, 동래성 중심에 있었던 송상현 동래부사의 흔들림 없는 결의와 백성들에 대한 애민, 연민, 인간애를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새롭게 구성, 재연한 작품이다. 부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인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하고 작품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교육적 기회 또한 마련한다.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연출가 이병훈

작곡 강봉천

대본 백훈기

도창 박성희

베이스 박대용

이장호 부산은행장이 선택한 부산 최고의 프로그램



부산은행장 이장호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의 향토기업 부산은행이 공동 제작한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메세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부산은행은 지난 8월 18일 부산시립예술단장인 고윤환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번에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을 공동제작하게 되었다.

“부산지역에서 많은 예술작품이 제작되어 무대에 오르지만 부산의 역사와 부산의 정신을 담은 작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래성 붉은 꽃은 부산의 유구한 역사와 동래성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동래읍성사람들의 충(忠)과 의(義), 송상헌 부사의 희생정신이 녹아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을 갖춘 작품입니다.”

이장호 부산은행장은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이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의 정신으로 부산을 지킨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인 만큼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다.

아울러 이번 작품을 통해 부산의 전통문화 활성화도 기대한다는 이장호 부산은행장은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이 한 차례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산의 대표 작품으로 계속 발전 해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한다.



2011 바다미술제 '송.도.(松島, SongDo)'

10월 1일-21일(21일간) 송도해수욕장



부산비엔날레에서 독립해 올해부터 단독으로 개최되는 '2011 바다미술제'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송도해수욕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송.도.(松島, SongDo)'를 주제로 총 12개국 29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2011바다미술제'는 송도와 바다미술제의 역사를 돌아보는 '바다미술제 기록사진전'과 2011 바다미술제 대상 및 우수상 수상 작가들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등 부대행사와 함께 북카페, 추억의 DJ박스, 모래놀이터, 아트마켓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Sea Art Fun Zone' 등 풍성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부산의 독자적인 해양예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독립된 바다미술제는 1987년 88서울올림픽 프레 문화행사로 기획되어 24년간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개최되어온 부산의 대표적인 미술행사로 그 역사가 깊다. 실내공간을 벗어나 바다와 해수변 공간을 주 무대로 펼쳐지는 바다미술제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전시를 참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미술축제로 매 전시마다 부산 특유의 해양성과 역동성을 잘 살린 전시로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 행사 개최지인 송도는 대한민국 1호 공설해수욕장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곳으로 '송.도.(松島, SongDo)'의 장소성과 역사성, 아름다운 풍광이 현대미술과 어떤 조화를 이루게 될지 기대가 크다.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7월 바다미술제의 현장설치 작품을 선정하는 2차 모형작품 심사를 거쳐 총 9개국(한국 11점, 미국 2점,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불가리아 각 1점) 작가의 작품 20점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국내·외 커미셔너 등을 통해 선정된 초대작가 9명(한국 5,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 각 1점)을 포함, 12개국 29점이 전시된다. 이번 공모 작품 20점은 직물, 돌, 스테인리스 스틸, FRP, 빛 등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며, 작품이 수면과 백사장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인근의 인공폭포와 접안시설 등 전시장의 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어 바다미술제의 실험적 성격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문의 | (사)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503-6579, www.busanbiennale.org)

출품작가 및 작품

미 국_Bayard Morris_ 'CURL' (설치)

미 국_Lee Chang-Jin_ 'Floating Buddha' (설치)

독 일_Annabella Claudia Hofmann_ 'The Sacred Meeting' (설치)

일 본_Wataru Hamasaka_ 'The Canoe in the Canoe: Drifting ashore - I' (조각)

이탈리아_Berra Matteo_ 'New Star, New Birth' (설치)

프랑스_Pichard Stephane_ 'L'Esplanade' (영상 설치)

러시아_Tanya Preminger_ 'Eyes of The Ocean' (설치)

불가리아_Rumen Dimitrov_ 'Flying Boats' (설치)

슬로베니아_Nika Oblak & Primoz Novak_ 'The VIP Section' (설치)

한 국_김민찬 외 3_ '또 다른 비단길' (조각)

한 국_노순천 & 강창호_ '대낮에 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자' (조각)

한 국_문재범 & 정영환_ '런앤런' (조각)

한 국_이용희 외 3_ '자이언트립' (조각)

한 국_벌떼_ 'Memories' (영상설치)

한 국_정안용_ '문자의 시작 201' (설치)

한 국_이정윤_ '엄마의 외출' (설치)

한 국_이재민_ '파도의 빛' (설치)

한 국_박재하_ '장갑' (설치)

한 국_이용재_ '표류-떠도는 대화' (조각)

한 국_박건원_ '공 생' (조각)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 運命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김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_거장 Tibor Varga
·
응 “오이스트라흐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마에스트로”_저널리스트 Bernd Hoppe
·
수 “완벽하다!”_스트라드, 코리아



지휘 리 신차오

바이올린 김응수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 運命’ 10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고전음악의 정수를 들려

줄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갖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에 대한 기대로 설렌다. 현재 유럽음악계에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김응수는 지네티 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 1위, 티보르바르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 리피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3위, 피아트라 리구레 국제 콩쿠르 1위, 아바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등을 수상한 실력파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수차례의 독주회와 Biel Symphony Orchestra, ‘Mihail Jora’ State Philharmonic Orchestra, Jenaer Philharmonic Orchestra, S. N. Chamber Orchestra, Goettingen Symphoniker, Sibiu Filharmonica 등과 협연 무대를 가진 김응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열정을 가진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오이스트라흐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마에스트로’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등의 찬사를 받으며 가슴을 울리는 젊은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응수는 이번 무대에서 브람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널리 애주되고 있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완숙기에 접어든 베토벤 특유의 아름다움과 고고한 품위, 장대함 등이 잘 표현되고 있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명 바이올리니스트 클레멘트의 협연으로 초연, 독창성과 다채로운 아름다움으로 대단한 갈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연 당시에는 호평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요아힘이 멘델스존의 지휘로 이 곡을 연주하여 곡의 진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연주시간은 40분.

이어지는 2부 무대는 베토벤의 대표 교향곡인 교향곡 제 5번 ‘운명’이 연주된다.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이상과 영원한 연인으로 알려진 테레제 브룬스비크와의 파국, 나폴레옹의 침공 등 큰 시련이 겹쳤던 시기에 작곡되었다. 본래 교향곡 제 3번 완성 직후인 1803년에 착수했지만 교향곡 제 4번을 먼저 완성한 후인 1808년에 작곡되어 이 곡을 완성하는 데는 5년이 걸렸다. ‘운명’의 제 1악장 제 1테마는 ‘운명은 이같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운명의 동기’로 알려져 있다. 불굴의 투지로 모든 고난과 공포, 비극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베토벤의 이념이 잘 표현된 곡으로 1808년 12월 22일 안 데아 빈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영화의전당 개관 축하공연 제 3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10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BIFF Theater 야외극장



지휘 오충근

바이올린 김지연

소프라노 박정원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가 10월 8일 영화의전당 개관축하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으로 조성된 ‘영화의 전당 (Busan Cinema Center)’은 2004년부터 공사를 시작, 오랜 공사 끝에 9월 29일 개관되었다. 영화의전당 건물은 길이 163m,

폭 62m의 초대형 지붕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개막축하공연이 열리는 야외극장은 가로 24m, 세로 13m의 스크린을 갖춘 4,000석 규모의 극장으로 초대형 지붕이 우천시 비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수영만 야외상영관보다 안정적이다.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국내외 영화팬들에게 오래동안 잊지 못할 감동의 선율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바이올린의 여신 김지연, 따뜻한 감성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박정원, 부산 최고의 솔리스트로 구성된 남성앙상블 ‘부산 10Tenors’, 버숨새예술단, 부산연합합창단 등 350여명의 대규모 연주자들이 뜻 깊은 역사의 순간을 함께 열어준다.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김지연은 13세에 미국 줄리어드에 입학, 1984년 뉴욕필 오디션 우승 후 주빈 메타 지휘로 비외탕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연주했다. 영 콘서트 아티스트 1위,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을 수상한 김지연은 우리의 음악성을 세계에 알린 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음악인 최고 영예인 ‘난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런던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시애틀, 아틀랜타 심포니, 홍콩 필하모닉,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카메라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KBS교향악단, NHK 심포니 등과 협연한 바 있는 김지연은 현재 미국 달라스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친숙한 소프라노 박정원은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엔리코 카르소 콩쿠르, 마담버터플라이 콩쿠르, 볼티모어 오페라 콩쿠르 등에 입상하고 그동안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이태리 스킨레토 오페라 페스티벌, 아틀랜타 오페라 등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프리마돈나로 활약했다. 제 1회 대한민국 오페라상에서 ‘여자성악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박정원은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 10Tenors’는 테너 장원상, 강학윤, 임충진, 이은민, 송승민, 전병호, 조윤환, 김지호, 허동권, 홍지형 등 10인의 테너로 구성된 남성앙상블로 중후하면서도 에너지가 충만한 열정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을 시작으로 김지연의 ‘사라사테 짜고이네르바이젠’ 시크릿 가든 중 ‘송’, 올드 로망스 등과 버숨새예술단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중 ‘놀이’, 영화음악 모음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 입장권 | 인터넷 신청(무료)
- 문 의 | KNN(1577-7600, www.knn.co.kr)

부산시립합창단 제 139회 정기연주회

‘Present-선물 & 현재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999년부터 12년간 부산시립합창단을 지휘해온 김강규 수석지휘자가 10월 18일 풍요로운 가을의 서정을 담은 부산시립합창단 제 139회 정기연주회 ‘Present-선물 & 현재’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아쉬운 고별무대를 갖는다. 그동안 무대에서 관객들과 교감했던 곡들을 중심으로 선곡한 이번 무대는 김강규 지휘자가 음악애호가들에게 전하는 음악적 선물(Present)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현재에 충실 하고자 하는 지휘자의 마음을 담았다.

‘Present-선물 & 현재’는 총 5개의 무대로 나뉘어 연주를 꾸미게 된다. 지난 제 1회 전국 시립합창단 합창축제 때 호응을 이끌어 내었던 O. di Lasso와 A.D.Consolation가 무반주 다성음악으로 작곡한 두 곡의 ‘Pater Noster(주의 기도)’, 두 번째 무대는 남성 합창으로 듣는 아일랜드 민요 ‘웨난도’와 ‘깨어남’, 세 번째 무대에서는 G.Jasperse의 ‘소리춤’과 F.Schubert의 시편 23편이 여성 합창으로 무대에 오른다.

네 번째 무대에서는 지난해 제 134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기도, 작곡가 이흥렬의 노래를 추억하며’를 통해 연주한 ‘섬집아기 환상곡(이흥렬 곡, 이영조 편곡)’과 제 130회 정기연주회에서 김동진 선생을 추모하며 공연한 ‘가고파 전, 후편(이은상 시, 김동진 곡)’이 무대에 오른다. 가고파 전편은 1933년 김동진이 20살에 작곡한 곡이고 가고파 후편은 전편 작곡 후 40년 만인 1973년에 완성되었다. 전·후편을 합쳐 장장 11분 가량이나 되고 후편이 전편보다 더 길기 때문에 후편의 경우 따로 부르는 일이 드물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곡 애호가들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어지는 마지막 무대는 K.Andrew의 ‘마라나타’, K.Nystedt 편곡의 ‘불멸의 바흐’에 이어 마지막 곡으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관객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던 수석지휘자 김강규와의 지난 시간을 추억하는 네 번째 무대에서는 ‘가을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청중들과 함께 이별의 시간을 갖는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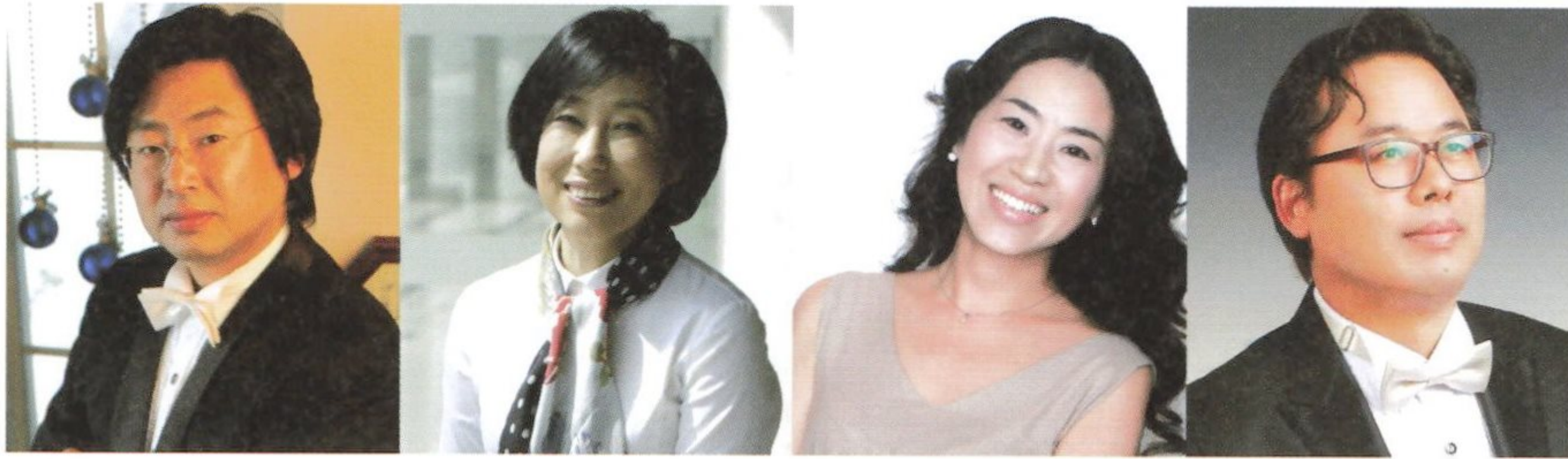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11 웰빙콘서트-클래식이 보인다 IV' 영화 속의 클래식-아마데우스와 모차르트의 음악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동신

해설 및 진행 진희숙

소프라노 마혜선

베이스 문동환

클래식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부산시립 교향악단이 2011년 의욕적으로 기획한 '웰빙콘서트-클래식이 보인다' 마지막 무대 '영화 속의 클래식 II'가 10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과

음악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영화와 클래식의 접목을 소재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희숙의 해설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모차르트의 삶을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에 흐르는 교향곡, 서곡, 오페라 아리아로 감동을 선사한다.

1984년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과 8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한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보는 시각으로 모차르트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신이 내린 축복으로 천재가 된 모차르트이지만 살리에르는 질투심에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영화에서는 늙은 살리에르가 자살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교향곡 제 25번을 비롯해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끄',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은 날지 못하리', '후궁으로 부터의 유괴' 서곡, 피아노 협주곡 제 22번,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레퀴엠' 등 장면 장면 마다 모차르트의 명곡들이 흐른다.

이번 무대에서는 '교향곡 제 25번'을 비롯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오페라 '돈조반니' 중 '우리 손을 맞잡고', '후궁으로 부터의 유괴' 서곡, '마술피리' 중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에 끓어오르네(밤의 여왕 아리아)' '마술피리' 중 '파, 파, 파', 교향곡 제 29번을 진희숙의 해설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주세페 디 스테파노' 국제콩쿠르에서 '리골레토' 질다역으로 우승, 특별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시에나, 키에티, 쿠네오, 리치오네, 라코니지, 사르테아노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마혜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베이스 문동환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탈리아 로시니 국립음악원을 전체 수석 졸업한 마혜선은 그동안 '리골레토', '랭스로의 여행', '니벨룽의 반지', '돈 조반니', '돈 파스칼레', '사랑의 묘약', 창작오페라 '대한국인 안중근', '마술피리', '집시 남작' 등에 주역으로 출연했다. 베이스 문동환은 이탈리아 로마 A.R.D.M 아카데미, 오스트리아 비엔나 콘서바토리, Sologesang 디플롬을 획득하고 그동안 '돈조반니', '몽유병의 여인' 등 다수 오페라무대와 부산국제창작음악축제 등에 출연한 바 있다.

-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 4회 정선희 창작관소리 ‘열사가’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묵묵히 우리 소리의 맥을 이어온 소리꾼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가 10월 23일 독립 열사의 숭고한 열정이 살아 있는 창작 관소리 ‘열사가’를 부산에서 첫선을 보인다.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친 우리 열사들의 정신을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관소리가락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창작 관소리 ‘열사가’는 강력한 항일의 의미를 띤 예술 형태로 박동실 명창이 이준,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등의 행적을 소개하고 이들의 행위를 관소리로 창작하여 보급시켰다.

이념적 성격이 특히 강했던 박동실 명창은 박유진, 이날치의 맥을 이어온 명창으로 특히 관소리의 보급 뿐 아니라 교육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동실 명창에게 ‘열사가’를 배운 사람으로는 한승호, 김동준, 장월중선, 김소희 명창을 들 수 있다. 광복 이후 유행처럼 널리 퍼진 ‘열사가’는 박동실 명창이 6·25 때 월북한 이후 묻혀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관소리 창자들이 짝막하게 부르는 주된 레퍼토리였는데 1961년 일본과 외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열사가를 공개된 자리에서 부르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잊혀졌다.

이번에 부르는 열사가는 故 박동실 - 故김동준 - 이성근 선생으로 이어진 박동실제 ‘열사가’로 정선희가 새로운 혼을 불어 넣는다. ‘열사가’ 첫 부산무대의 감동을 더하기 위해 부산의 작곡가 강봉천이 실내악으로 창작, 편성했고, 독립운동과 관련한 영상을 함께 구성해 ‘이준’ ‘안중근’ ‘윤봉길’의 독립을 향한 의지, 유구히 내려온 민족정신을 관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당대의 명창이었던 정정렬의 춘향가를 지키고 있던 최승희 명창의 춘향가를 사사한 정선희는 구성진 목소리에 잘 다듬어진 곡 구성, 절제돼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발림으로 주목받아왔다.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단원,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제 2호 정정렬제 춘향가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선희는 그동안 박녹주제 흥보가 완창 발표(서울 북촌 창우극장, 1994), 정정렬제 춘향가 완창 발표(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006), 강산제 심청가 완창 발표(국립부산국악원, 2009)를 가지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감동을 전해왔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교 학장 배양현 교수의 해설, 제 30회 전국고수대회에서 대명고수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남편 신호수가 고수, 독립영화감독 김희진이 영상, 실내악단 고성방가가 함께 무대를 열어준다.

- 입장권 |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 예현전통예술원(010-4544-3169)

10월, 축제의 도시 부산이 뜨겁다



가을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라는 수식어 외에 ‘축제의 계절’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다닌다. 부산의 10월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부산세계불꽃축제, 부산자갈치축제 등 볼거리가 특히 많다.

올해 16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9월 29일 전용관 ‘영화의 전당(Busan Cinema Center)’ 개관으로 수영만 시대를 마감하고 해운대 센텀시대에서 새롭게 탄생된다. 올해는 개막작으로 소지섭, 한효주가 주연한 송일곤 감독의 ‘오직 그대만’ 상영을 시작으로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70개국 307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전 세계에서 영화인 등 초청인 12,000여명 및 20여만명의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영화제 초청작은 영화의 전당과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 시청자미디어센터, 메가박스 해운대 등 해운대 지역의 5개 극장에서 상영된다.

올해 가을에는 영화외에 전국 최고의 무용축제인 제 20회 전국무용제가 ‘춤, 바다를 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10월 20일 부터 29일까지 10일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제 1회 전국무용제가 부산에서 열리고 난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15개 시·도의 지역예선을 거친 대표 무용단의 경연장과 시민문화축제가 함께 진행된다.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연 행사 외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삼락강변공원 중앙광장과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 두 곳에서는 ‘都心속 예술축제’가 동시에 펼쳐져 부산전역에서 흥겨운 춤사위를 만날 수 있다.

전국무용제가 열리는 기간은 제 7회 부산세계불꽃축제도 함께 열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무용수들도 특별한 부산의 가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10월 21일 막이 오르는 부산세계불꽃축제는 29일까지 9일 동안 화려한 불꽃이 부산 광안리해변을 수놓는다. 불꽃쇼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진행된다. 22일 해외불꽃 경연대회에는 일본과 중국, 미국과 폴란드 4개팀이 60분 동안 불꽃으로 기량을 뽐내고 29일 부산멀티 불꽃쇼에서는 나이가가라 불꽃과 불새 등 최첨단 불꽃이 레이저와 조명, 음악과 어우러진다. 23일부터 27일 사이 축제기간 중에는 소형 불꽃행사와 함께 오페라 ‘투란도트’,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계획이다.



수영만 시대를 마감하고 전용관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지는 부산국제영화제



제 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오직 그대만을'



광안리에서 펼쳐지는 부산세계불꽃축제



19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 21회 전국무용제

■ 10월 주요 축제

- 제 16회 오륙도 축제 | 10월 1일 남구 UN공원 일대 | 주최 부산광역시 남구청(624-1333)
- 제 16회 동백섬문화관광축제 | 10월 1일 해운대구 동백섬 정상 | 주최 해운대문화예술원/축제추진위원회(011-557-5363)
- 제 1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 10월 6일~10월 14일 영화의전당, 해운대 일원 상영관 | 주최(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1688-3010)
- 제 17회 동래읍성역사축제 | 10월 7일~9일 동래읍성 일원 | 주최 동래구/동래문화원 · 축제추진위원회(550-4852, festival.dongnae.go.kr)
- 제 20회 부산자갈치축제 | 10월 12일~16일 자갈치시장일원 | 주최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전위원회(243-9363, www.ijagalchi.co.kr)
- 제 20회 부산전국무용제 | 10월 20일 ~10월 29일 부산문화회관, 삼락강변공원 중앙광장,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 |
주최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용협회(623-5117, busandance.com)
- 제 7회 부산세계불꽃축제 | 10월 21일~10월 29일 광안리해수욕장 및 광안대교 일원 | 주최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888-3392, bff.or.kr)
- 제 19회 낙동민속예술제 | 10월 22일~10월 23일 북구 덕천초등학교 등 | 주최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낙동문화원(364-2710, www.bsbukgu.go.kr)
- 제 4회 부산고등어축제 | 10월 28일~10월 30일 송도해수욕장(부산시 서구 암남동) | 주최 부산광역시 서구청/대형선망(240-4065, www.고등어축제.kr)



부산세계불꽃축제, 부산의 희망을 함께 밝혀요

(주)한화 불꽃 프로모션사업부 이 장 철 과장

눈과 귀가 즐거운 축제의 도시 부산의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을 부산세계불꽃축제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안대교의 나이아가라 불꽃,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불꽃 등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주)한국화약 불꽃 프로모션사업부 이장철 과장은 부산세계불꽃축제를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숨은 일꾼이다.

이장철 과장은 2005년 부산세계불꽃축제가 처음 시작되기 전인 2004년 8월, APEC 준비단 워크샵에서 불꽃축제 제안 프리젠테이션을 맡으면서부터 지금까지 부산불꽃축제와 인연을 맺어왔다. 1회부터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큰 힘이 되었다는 이장철 과장은 1년의 시작과 끝을 불꽃으로 장식한다.

“올해는 축제기간이 기존 2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체류형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였고, 작년 3개팀이 참가한 해외초청 불꽃쇼에는 미

국, 폴란드, 일본, 중국 4개국에 참가합니다. 또 올해는 5일 동안 매일 음악에 맞춰 연출하는 뮤지컬 불꽃쇼가 신설됩니다.”

이장철 과장을 비롯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볼거리를 준비했다. 2가지 대형불꽃축제를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앞뒤 기간에 문화공연을 배치하여 체류형 문화행사로 변모를 시도한 것.

이장철과장이 의욕적으로 준비한 ‘해외경연 불꽃쇼’는 미국, 폴란드, 일본, 중국의 4개 업체가 세계 최고의 불꽃 기술을 갖고 각 테마에 맞게 선정된 음악에 맞춰 22일 불꽃 연출을 겨룬다.

29일 계획된 ‘최첨단 멀티불꽃쇼’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나 내용 면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다. 약 50분 동안 7만발의 불꽃이 국내 최대 규모로 연출되며, 광안대교를 활용한 와이드한 대형 불꽃연출이 강화된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25인치 대형타상연화가 연출되는데 개화고도가 500m, 개화직경이 400m에 이른다. 그 외에도 국내 최장길이를 자랑하는 1km의 광안대교 나이가가라 불꽃과 불새 연출이 확대된 그랜드피날레가 2회에 걸쳐 연출된다.

불꽃 축제행사는 무엇보다 빈틈없는 준비가 최선이다. 10월 행사를 위해 이장철 과장은 1월부터 축제 준비를 시작한다.

“1월에 행사 초안을 만들어 현재까지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해외경연불꽃쇼’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참가팀 선정을 시작으로 각 팀별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화약운송 작업이 10월 초까지 진행되고, 설치작업도 약 1주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첨단멀티불꽃쇼’의 경우에는 1월부터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5~6월경 테마를 선정한 후 이에 맞는 영상과 음악제작, 불꽃 프로그램 작업이 진행된다.

이장철 과장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불꽃 프로모션사업부’에 자부심이 대단하다. 때문에 그의 일상도 불꽃처럼 유쾌하고 즐겁다. ‘불꽃 프로모션 사업부’는 말 그대로 불꽃축제와 연계가 되는 모든 프로모션을 기획에서부터 연출, 실행 등 전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과거에는 불꽃축제가 단순히 국경일이나 지역축제의 한부분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불꽃축제가 메인 콘텐츠로 자리잡았습니다. 서울, 부산, 포항, 여수 등 지역별로 대형불꽃제가 기획되고, 음악에 맞춰 불꽃과 레이저,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 최첨단

멀티시스템을 스토리텔링 기법에 맞춰 연출하다보니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나 인원구성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꽃연출 추세는 좋은 불꽃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발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훌륭한 축제를 위해서는 테마, 시놉시스, 음악을 구성하는 기획단계와 각 행사 장소 특성에 맞게 어떤 종류, 어떤 규모의 불꽃과 시스템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설계단계, 그리고 1/30초 단위로 음악과 장단에 맞춰 불꽃과 시스템의 연출을 배치하는 디자인단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남녀노소, 문화, 인종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발전해온 인류공통의 놀이문화이다 보니 각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의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지역은 각 나라별 경연대회 형식의 불꽃축제가 발달하였고, 중국이나 일본은 악귀를 쫓고 희망을 비는 의미로 축제에 빠지지 않고 불꽃축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서울, 포항에서 대형 불꽃축제가 열리지만 부산세계불꽃축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다. 부산세계불꽃축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호주 하버브릿지의 새해맞이 불꽃축제, 7~8월 경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펼쳐지는 몬트리올 불꽃경연대회 등 세계적인 불꽃축제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다는 이장철 과장은 부산세계불꽃축제가 자랑하는 25인치 타상연화의 경우, 국내에서는 1년에 1번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이고, 나이가가라 연출 또한 국내 최장 길이의 연출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매년 신제품 불꽃을 부산행사에서 처음 선보인다는 그는 올해 캐릭터불꽃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레이저, 특수조명 등의 최첨단 시스템을 연출하는 멀티미디어 쇼, 360도 전 방위에서 불꽃을 관람할 수 있다는 부산세계불꽃축제의 자랑이라는 이장철 과장.

제주도 출신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산에서 살았던 이장철 과장에게 부산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는 제 2의 고향이다. ‘2011 위대한 비상!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 2의 고향 부산에서 펼쳐지는 부산세계불꽃축제에서 모든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위대한 비상’의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이장철 과장의 도전은 계속된다.

사랑하면 보인라, 숨어있어도 보인라

정일근 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요? 저는 날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더운 술보다 향기롭고, 차갑고, 맑은 술이 좋습니다. 제게 술이란 어떤 술이든 석 잔이면 족합니다. 첫 번째 잔에는 입 안이 향기로워지고, 두 번째 잔에는 몸이 뜨거워지고, 세 번째 잔에는 영혼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찬 술은 ‘물외소주’입니다. 오이를 경상도 지역에서는 ‘물외’라고 부릅니다. 물외는 참외에 대하여 오이를 구분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밥상 위에서 만나는 흔한 오이와 물외는 생김새가 다릅니다. 오이는 가늘고 길지만 물외는 굵고 둥터한 것이 손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착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현리 사람들은 물외를 ‘늙은 오이’라고 부르는데, 대처에서는 ‘노(老)각’이라 하고 ‘황과(黃瓜)’라고 한답니다. 그 이름이 뭔가 있어는 보이지만 제가 아는 물외와는 별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외는 당연히 물이 많은 오이입니다. 저는 요즘은 물외를 채 썰어 찬 술을 부어 마십니다. 가을이 오는 깊은 밤, 밤의 기온이 푹, 푹, 푹 떨어지는 추운 밤, 당신과 곁상하는 시간이라면 더운 차보다 차가운 술이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은현리의 별과 은현리의 바람, 은현리 별빛과 은현리의 달빛을 제 몸을 담고 여기까지 온 늙은 오이니 그 끝물인 이 가을 초입에 풀어놓을 물과 향기가 얼마나 그윽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에 귀를 열어 놓고 석 잔의 술을 마시는데 밤을 지새운들 어떠하겠습니까? 단 석 잔을 술을 붓고도 물외의 물이 주는 넘치는 ‘덤’이 있으니, 그건 물외의 선물이라 이름 해도 될지요?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땅이 차가워진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가을건이가 끝나고 은현리는 차가워지는 제 몸을 감추지 못하고 휴식과 잠에 들어갈 것입니다. 농사는 농부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은현리도 봄부터 가을까지 땅도 농부와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제 몸으로 일해 왔습니다.

은현리 논은 어리디어린 모를 제 몸에 품은 그 날부터 그 친구들이 이삭을 달고 마침내 황금나락이 될 때까지 한 시도 쉬지 못한 채 뿌리의 손을 잡아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의 젖처럼 나눠 주었습니다. 땅이 그냥 옆드려 사는 것 같은데 나무와 꽃을 키우고, 남새를, 버를 키우는 것을 보면 저는 신기하고 고마운 날이 많습니다. 봄에 옮겨 심은 키 작은 청솔당 마당의 산수유나무가 잔잔한 열매지만 산수유를 단 것도 제 가슴이 뛰도록 고마운 축복입니다.

이른 이야기 같습디만, 이제 은현리도 서서히 겨울잠을 준비할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연은 게으른 사람과 달리 서서히 서서히 준비하며 이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다음 계절로 또 다음 계절로 갑니다. 그래서 땅은 정직한 친구입니다. 땅이 퐁퐁 열고 눈이 덮이는 긴 겨울을 보내고 감나무 새잎이 눈뜨는 새봄에 함께 눈을 떠, 다시 자신의 농사를 시작하겠다는 그 일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월에 은현리에서 작은 풀씨라도 열매 맺은 모든 것들에게는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땅과 함께 사는 일이 참 행복한 계절입니다.

은현리의 시월은 또 약속합니다. 다음에 찾아올 자신을 기억해달라며 은현리 산길 들길에 쭉부쟁이 보랏빛 꽃을 수북하게 피워놓고 있습니다. 쭉부쟁이 꽃말에 ‘기다림’이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쑥부쟁이 사랑

정일근

사랑하면 보인다, 다 보인다
가을 들어 쑥부쟁이꽃과 처음 인사했을 때
드문드문 보이던 보랏빛 꽃들이
가을 내내 반가운 눈길 맞추다보니
은현리 들길산길에도 쑥부쟁이가 지천이다
이름 몰랐을 때 보이지 않던 쑥부쟁이 꽃이
밭길 옮길 때마다 눈 속으로 찾아와 인사를 한다
이름 알면 보이고 이름 부르다 보면 사랑하느니
사랑하는 눈길 감추지 않고 바라보면
꽃잎 날날이 셀 수 있을 것처럼 뜨겁게 선명해진다
어디에 꼭꼭 숨어 피어 있어도 너를 찾아가지 못하랴.
사랑하면 보인다, 숨어있어도 보인다



사진_정일근



9·11 테러 10주기 추모공연

장은혜_미국 통신원, B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Theater Major

10년 전 비극의 아우성과 먼지로 가득했던 옛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는 올해도 여느해처럼 많은 사람들이 9월 11일 그날을 기억하며 모여든다. 대통령 오바마의 추도문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묵념은 사뭇 먹구름 가득한 오늘 하늘처럼 비감하다.

그곳에서 두어 블럭 떨어진, 무장경비들로 삼엄한 지역을 다소 벗어난 곳에 베테리팍 시티가 허드강을 안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거기서는 이 곳의 분위기와는 조금은 다른 시민과 관광객들의 박수와 함성이 록펠러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다. 다름 아니라 9·11테러 10주기를 맞아 열리는 각종 행사 중의 하이라이트인 ‘The Joyce Theater Foundation’의 야외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중이었다.



공연을 주관한 'The Joyce Theater Foundation'은 유일하게 뉴욕에서 무용수에 의해 세워져서 오직 무용만을 공연하는 뉴욕 맨하탄 첼시에 위치한 조이스 극장과 1996년 설립된 교육기관인 소호 댄스센터를 소유하고 있다. 1982년 Cora Cahan과 Eliot Feld에 의해 설립된 'The Joyce Theater Foundation'는 다양한 무용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뉴욕의 중요한 여러 퍼포먼스를 기획, 제작, 주관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이다. 320개 이상의 무용단들과 함께 공연한 'The Joyce Theater Foundation'는 130 차례 이상 창작 공연을 올리고 135,000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한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날 공연도 역시 Limon Dance Company, Jessica Lang Dance, Alvin Ailey American Dance Theater, The Paul Taylor Dance Company, Voice of Ascension, Orchestra of St. Luke's 등 여러 무용단과 오케스트라, 수많은 유명 무용수, 연주가, 지휘자, 안무가가 참여하여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날 공연은 첫 번째 공연인 카나 기무라와 클리프톤 브라운의 애절한 무대 'Elegy(애가)'로 막이 올랐다. 대지를 연상시키는 흙빛 의상을 입고 절제되고 시적인 동작으로 작품의 모티브인 'Silent Scream(침묵의 비명)'으로 우리들에게 그날의 근본적인 비극을 상기시키고 부드럽고 자유로운 동작으로 마치 어둠속에서 성냥을 그어 작은 불을 밝히는 듯 다시 이곳으로 모여드는 영혼을 표현하며 그날의 화두를 던졌다.

카나 기무라는 줄리어드를 졸업하고 BAM의 Next Wave Festival과 각종 국제공연,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녀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처참한 원폭 피해를 입었던 일본 히로시마 출신인 까닭에 폐허 속에 묻혀버린 숱한 영혼들을 부르는 그녀의 춤은 더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지는 두번째 무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려진 앨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극장(Alvin Ailey American Dance Theatre)의 'Song For You'가 이어졌다. 앨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극장은 1958년 3월에 설립되어 미국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맨하탄 92가에 위치한 극장의 소속 무용단이다. 앨빈 에일리(Alvin Ailey)와 아프리카계 현대무용수들은 미국 현대무용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무용의 간판과도 같은 존재이다. 교육기관으로서도 뉴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앨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극장은 그동안 TV방송을 통해 6개 대륙 71개국에서 그들의 공연이 방송되었고 46개 국가 250,000명의 관중이 그들의 무대공연을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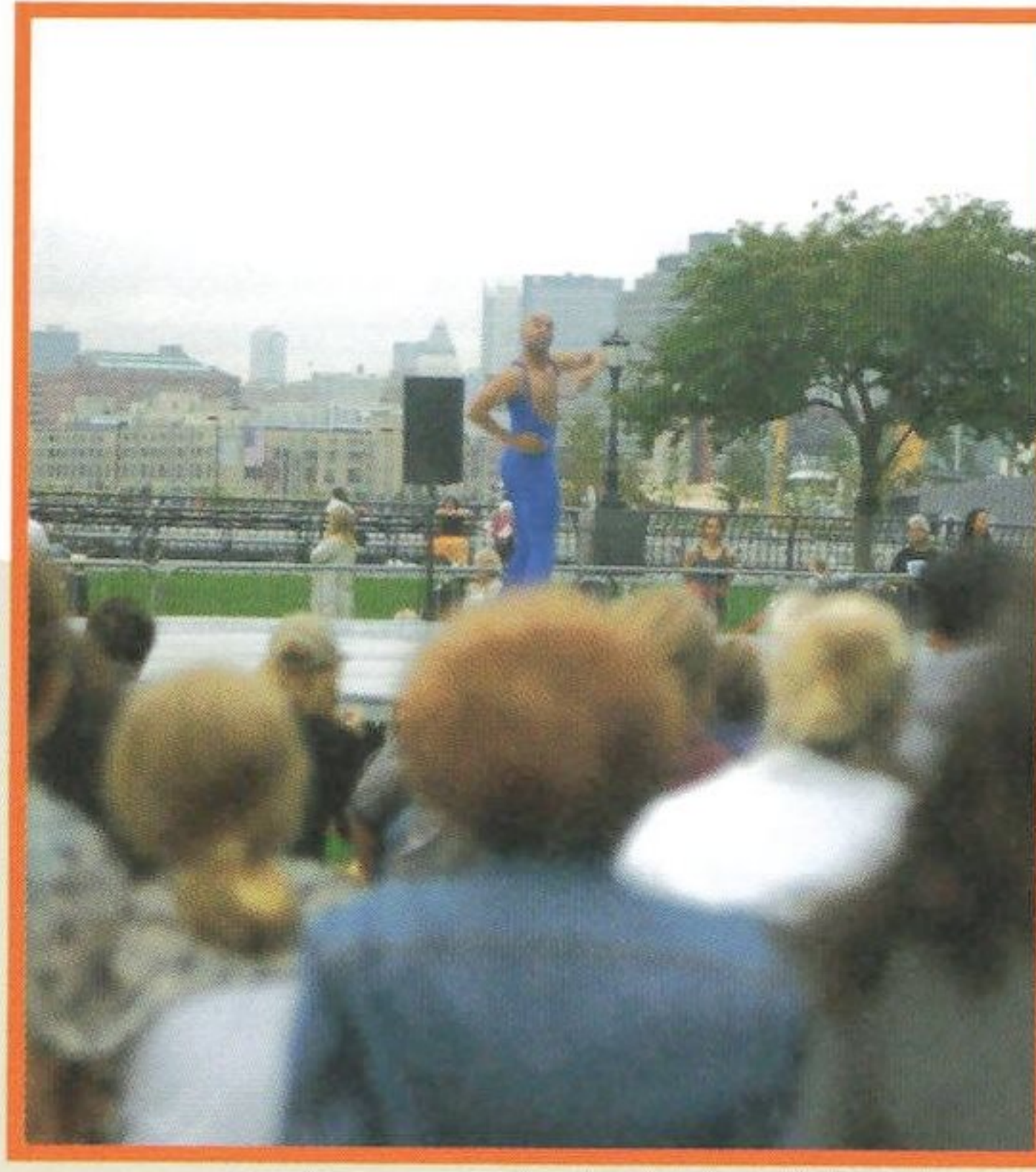
1972년 앨빈 데일리에 의해 초연된 이 노래와 무용은 40년이 지난 지금 2011년 새로운 의미로 이날 공연에서 우리에게 깊고 진지한 질문으로 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다. 십년 전 그날 안타깝게 꺼져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유가족과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흑인 특유의 깊은 감정표현과 어우러진 영가와도 같은 재즈곡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이날 공연의 절정이자 마지막을 장식한 세 번째 작품, Paul Taylor Dance Company의 'Brandenburgs'는 관객과 무대를 바흐의 '브란데부르크 협주곡 제 6번'에 실어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눈물로써 기억되는 9·11이 아닌, 이젠 흑독한 겨울을 보낸 봄 시냇물처럼 역동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년전 그 날의 이야기를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 나갔다. 5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 무용수들은 완벽한 클래식 테크닉과 현대적인 기술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안무가 폴 테일러 특유의 전통과 현대의 황금비율의 작품을 훌륭하게 연기했다.

파도치는 바다에서 솟구치는 돌고래처럼, 바람거친 들판의 다이내믹한 술렁임처럼 즐겁게 휘두르는 젊고 아름다운 무용



The Joyce Theater Foundation 주관으로 9·11 테러 10주기를 맞아 그 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야외퍼포먼스가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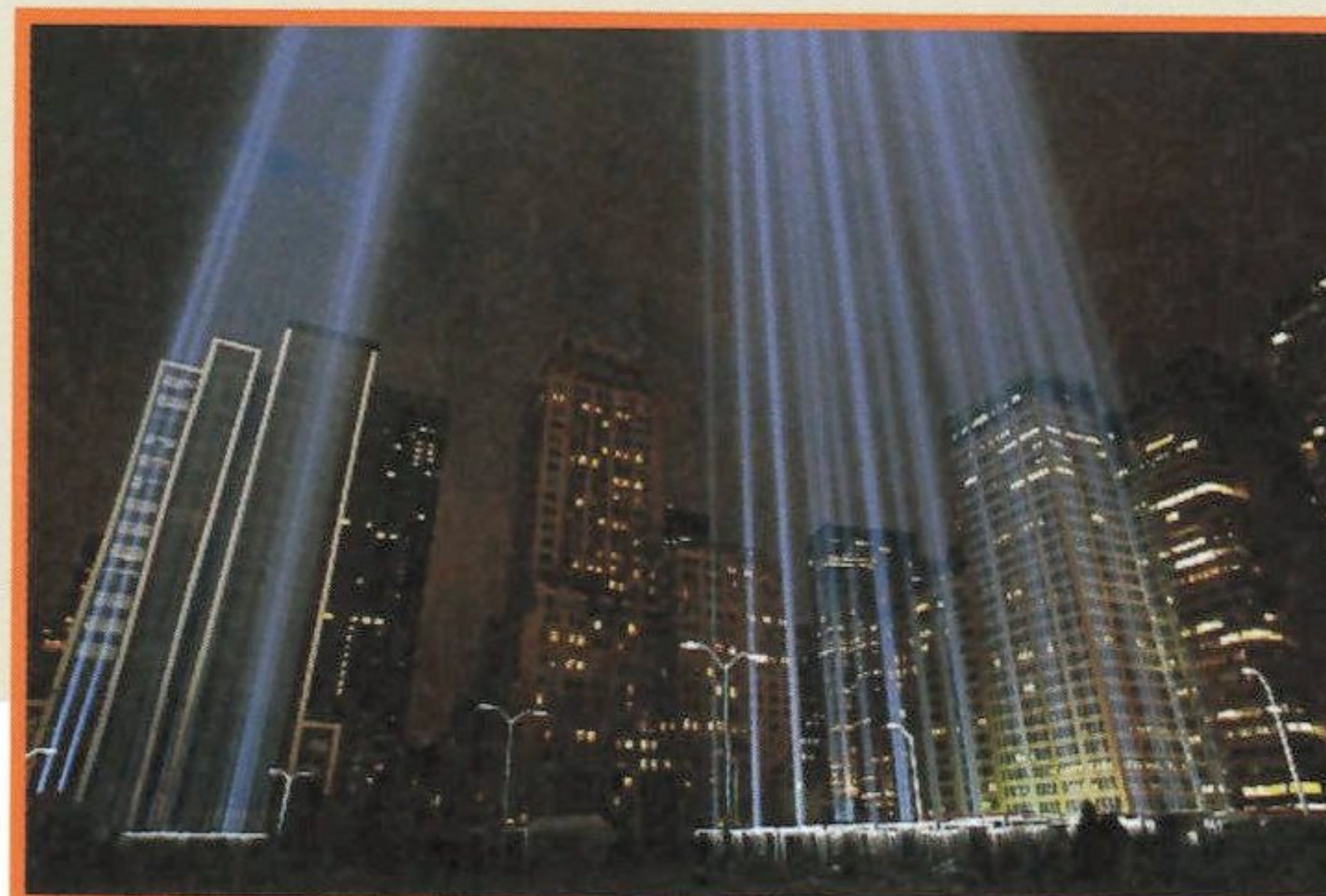


수들의 팔다리를 통해 우리에게 어디선가 들려오는 오월 봄들녘의 꽃노래와 같은 활달하고 생기 넘치는 역동적인 무대로 마치 십년 동안 드리운 뉴욕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면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연출했다. 5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Paul Taylor Dance Company는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권위있는 무용단 중 하나이다. 1954년 공연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미국 현대무용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온 Paul Taylor Dance Company는 미국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미국 국무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전 세계 40개국 무용제에 작품이 출품되는가 하면 62개국 520개 도시에서 공연을 한 명실공히 미국 최고의 모던댄스 무용단이다.

이날 무대에서 Paul Taylor Dance Company와 더불어 웅장한 음악을 선사했던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Orchestra of St. Luke)의 완벽한 연주는 보는 이로 하여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Grammy Award에서 4번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는 매년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정기 실내악 연주회를 비롯해 오케스트라 연주회, 국제음악제 등 70여회가 넘는 무대에 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이다.

이처럼 세 무대로 구성된 이날 추모 공연은 먹먹한 마음으로 9·11테러 현장을 찾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공연이 아니었나 싶다. ‘그날’을 비극이라는 공통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적인 증오와 복수를 넘어서 그날의 상처를 감싸안고 치유하는 ‘미국적인 살풀이’는 진정한 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실감하는 가슴 뿌듯한 공연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Song For You’ 한구절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 I love you in a place Where there’s no space or time…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I love you for my life You’re a friend of mine…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당신을… 당신은 나의 친구…”



킹스스피치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201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을 수상한 '킹스스피치'는 영국의 왕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를 극복한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두 남자의 신분을 넘어선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2011년 2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코닥극장에서 열린 제 8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무려 12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고 작품상, 남우주연상(콜린 퍼스), 감독상(톰 후퍼), 그리고 각본상(데이비드 세이들러) 등 4개 부분을 수상한 <킹스 스피치>는 영국의 왕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장애를 극복한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두 남자의 신분을 넘어선 우정, 그리고 항상 놀림을 당했던 왕자가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기까지의 사연과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담론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의 배경은 조지 6세가 아직 앨버트 왕자, 듀크 공작 혹은 버티로 불리던 1930년대 런던. 아버지인 조지 5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형 에드워드 8세는 두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미국인 윌리스 심슨과 사랑에 빠져 있다. 장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조지 5세는 둘째 아들인 버티에게도 왕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한다. 버티에게는 무엇보다 아버지를 대신해 연설을 해야 하는 일이 큰 곤욕이다.

심한 언어장애로 힘들어하는 버티는 유명한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지만 그들의 치료법은 버티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남편의 고통을 보다 못한 아내 엘리자베스는 수소문 끝에 호주에서 온 괴짜 언어치료사이자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심취해 있는 연극배우 지망생 라이오넬 로그를 찾아간다. 왕자를 대면한 로그 박사는 무엄하게도 동등한 위치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의 왕자와 호주 출신 배우지망생

의 지위는 이때부터 반전된다. 버티는 왕자인 자신이 평민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굴욕과 거듭되는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말더듬 증세, 그리고 형과의 갈등 속에서 더욱 괴로워한다. 버티의 말더듬 증세는 로그 박사의 도움으로 조금 나아지다가 갑작스럽게 형 에드워드 8세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조지 6세가 되면서 더욱 악화된다. 그는 악담을 퍼부으며 로그 박사를 떠나지만 결국 그의 병을 고쳐줄 사람은 로그 박사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그를 찾아간다.

영화는 조지 6세의 고뇌와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화려한 삶인 것 같지만 그 또한 고독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팍팍한 궁 생활 속에서 그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왕위를 계승하고 난 후 눈물을 보이며 괴로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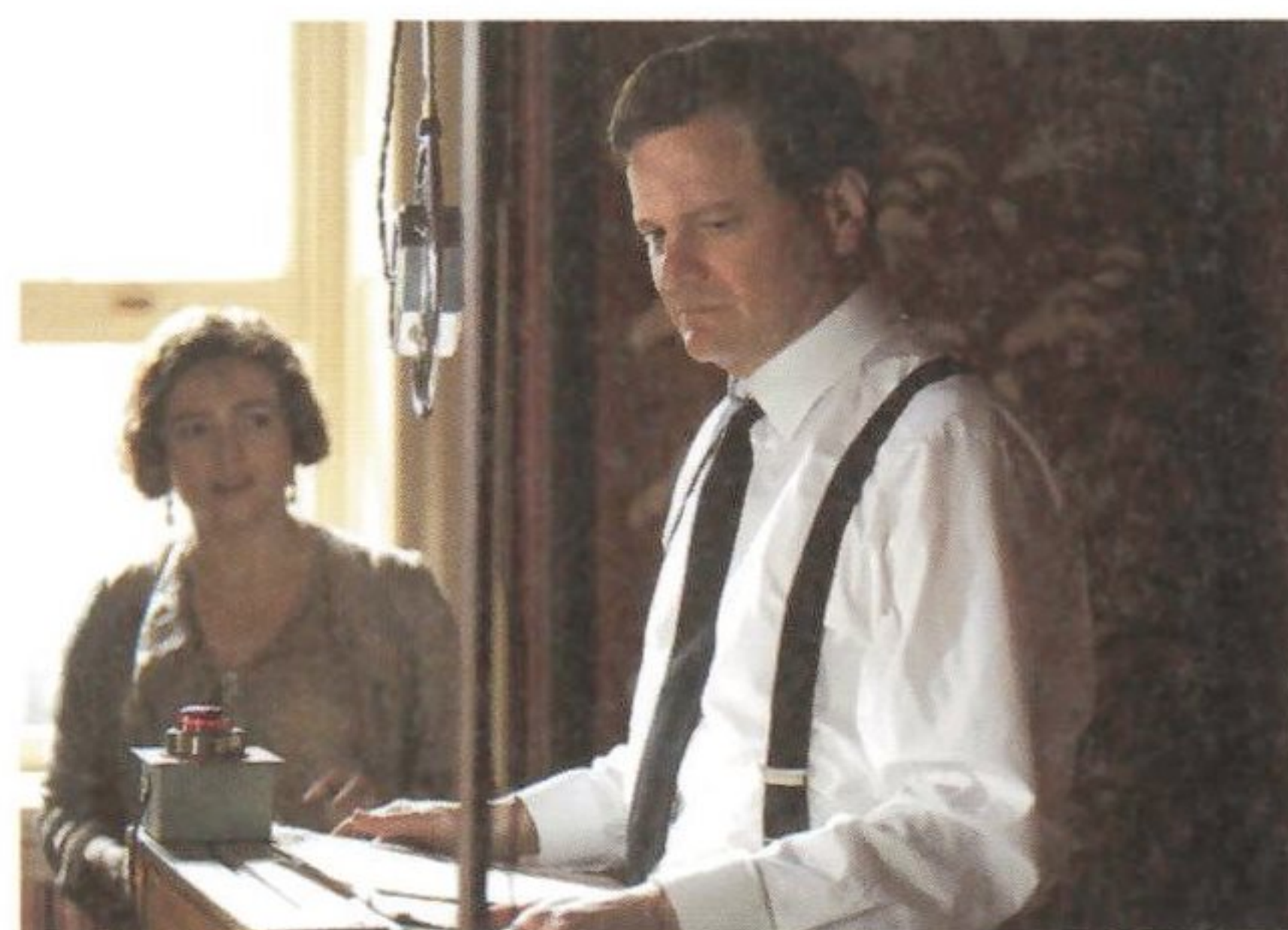


'킹스스피치'에서는 고전적인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음악도 고전파 작곡가들, 특히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이 등장한다.

모습에서 그도 유약한 인간임을 느끼게 된다. 조지 6세가 성공적으로 연설을 마치는 마지막 장면은 그가 자아를 극복하는 모습이자 동시에 로그 박사와의 우정의 결실을 나타낸다.

조지 6세는 1936년부터 1952년까지 16년 동안 재위했던 대영제국의 왕이다. 그 다음으로 왕좌에 오른 이가 바로 현재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다. 장애를 극복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킹스 스피치>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맞서는 신화 속의 인물들과 닮아 있고, 이야기 또한 그만큼 고전적이다. 이 영화는 자신과의 가혹한 싸움, 그리고 인간승리의 드라마라는 것 외에도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훈련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영화 장르의 이미지들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상투적인 해피엔딩과 조지 6세가 말더듬 증세를 극복하는 과정 이외의 별다른 에피소드가 없기 때문에 지루해지기 쉬운 영화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덕분에 생기를 얻는다. 특히 조지 6세로 분한 콜린 퍼스의 표정연기가 압권인데 인물을 클로즈업하여 배경보다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독특한 카메라 기법과 참신한 각도설정으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한다. 거기에 엘리자베스 역의 헬레나 본햄 카터와 로그 박사 역의 제프리 러쉬는 명품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톰 후퍼는 이 영화가 특권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내가 이 작품에 흥미를 느낀 건 특권층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 6세의 이야기는 역사로 보이지 않았다. 그 역시 평범한 인간처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고전적인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음악도 고전파 작곡가들, 특히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만이 등장한다. 영화 마지막 부분인 조지 6세의 연설장면 전반에 흐르는 베토벤의 교향곡 7번 2악장은 그가 처한 상황만큼이나 비장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연설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국민들 앞에 섰을 때 들려오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악장이 더욱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린다. 조지 6세가 치료를 받을 때와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1악장과 조지 6세가 헤드폰을 끼고 햄릿의 대사를 읽을 때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도 영화의 정취를 그윽하게 만든다.



기독교 문화를 통한 서양음악 수용

김창욱_음악평론가



난파의 바이올린 연주 모습

찬송가와와의 첫 만남

흥난파가 서양음악에 입문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유년시절, 그는 외인주택 경내에 있던 정동교회에서 서양음악인 찬송가를 듣고 배우면서 음악적인 소양을 키웠다.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찬송가를 통한 서양음악 입문은 그에게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것은 이후 “조그마한 소질이라도 갖게 된 직접동기와 원인이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생장한데 유존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자신의 술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이 무렵 양악가 대부분이 기독교 문화와 긴밀하게 상관된다.

초창기 양악가들과 기독교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들이 새문안교회의 집사로 활동한 사실에서 거듭 확인

할 수 있다. 1912년부터 1946년 사이 새문안교회의 집사 가운데 양악가로는 김형준·이상준·김인식·홍영후·김영환·홍은유 등이 있었고, 난파의 형 석후도 집사로 참여했다. 특히 흥난파는 14세이던 1911년 7월 13일 새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난파는 13세(1910) 때 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 중학과에 입학, 17세(1914) 때 졸업했다. 여기서 그는 ‘민간악계에 있어서는 유일한 선각자요 선구자’인 김인식을 만난다. 성악에서 출발한 그는 제금을 독학으로 터득, 숭실중학 3학년 때 하급반 학생들에게 음악을 교수해서 매월 1원 20전의 봉급을 받기도 했다. 이 무렵 쌀 1말에 10전, 땀나무 1원 50전어치를 살 경우 방 너댓 있는 집에서 1년 동안 때고 남았을 정도였다고 하니, 이것이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였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경성 안에서 제금을 소유한 사람이 2~3인에 불과했던 이 시기, 김인식은 마땅히 제금계의 선구적 존재였다. 그러나 독학을 통한 ‘내법대로’ 운지법으로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제금을 전수했던 그는 결국 난파에게 뒤를 물려주고 전습소 교사직을 그만 두고 말았다.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

19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조선정악전습소는 크게 조선악부와 서양악부로 나뉘어 선발했다. 흥난파는 이듬해인 1912년 4월에 서양악부 기악과가 아니라 의외로 성악과에 입학한다. 줄곧 제금을 공부해 왔던 그로서는 펍 의외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전습소의 학칙을 보면, 서양악부 기악과는 언제나 입학할 수 있으며 “단, 정악전습소 성악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의 음

악이론에 대한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기악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악과를 졸업해야만 입학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양악부에서 기악과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913년 4월, 1년 과정의 성악과를 끝낸 난파는 졸업과 동시에 다시 기악과(사현금 전공)에 입학, 김인식으로부터 제금을 학습한 후 1914년 3월에 졸업하게 된다.

이 시기 난파는 난생 처음 음악회에 출연, 청중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는다. 16세(1913) 때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축하식에서 제금을 독주했는데, 이것은 그에게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무대였다. 이에 고무된 그는 이후 각 교회를 순회하며 1년에 30여회의 제금독주를 행함으로써 점차 음악계에 뿌리를 내렸다. 이듬해 겨울에는 김인식과 그의 문도들이 유료음악회를 여는가 하면, 18세(1915) 때는 김인식의 지도 아래 ‘경성찬양회’라는 남성합창단을 조직, 전국 교회 및 학교 합창단의 전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졸업 후 난파는 1915년부터 1917년까지 3년간 김인식의 후임으로 전습소의 교사로 근무한다. 여기서 그는 이후 조선 제금계의 셋별로 떠오른 채동선에게 제금을 처음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다. 또한 그는 1916년 이문동 중앙예배당에 음악강습소를 차려 일반 청년학생들과 지원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과목은 악리·음계연습·유행창가 등 서양음악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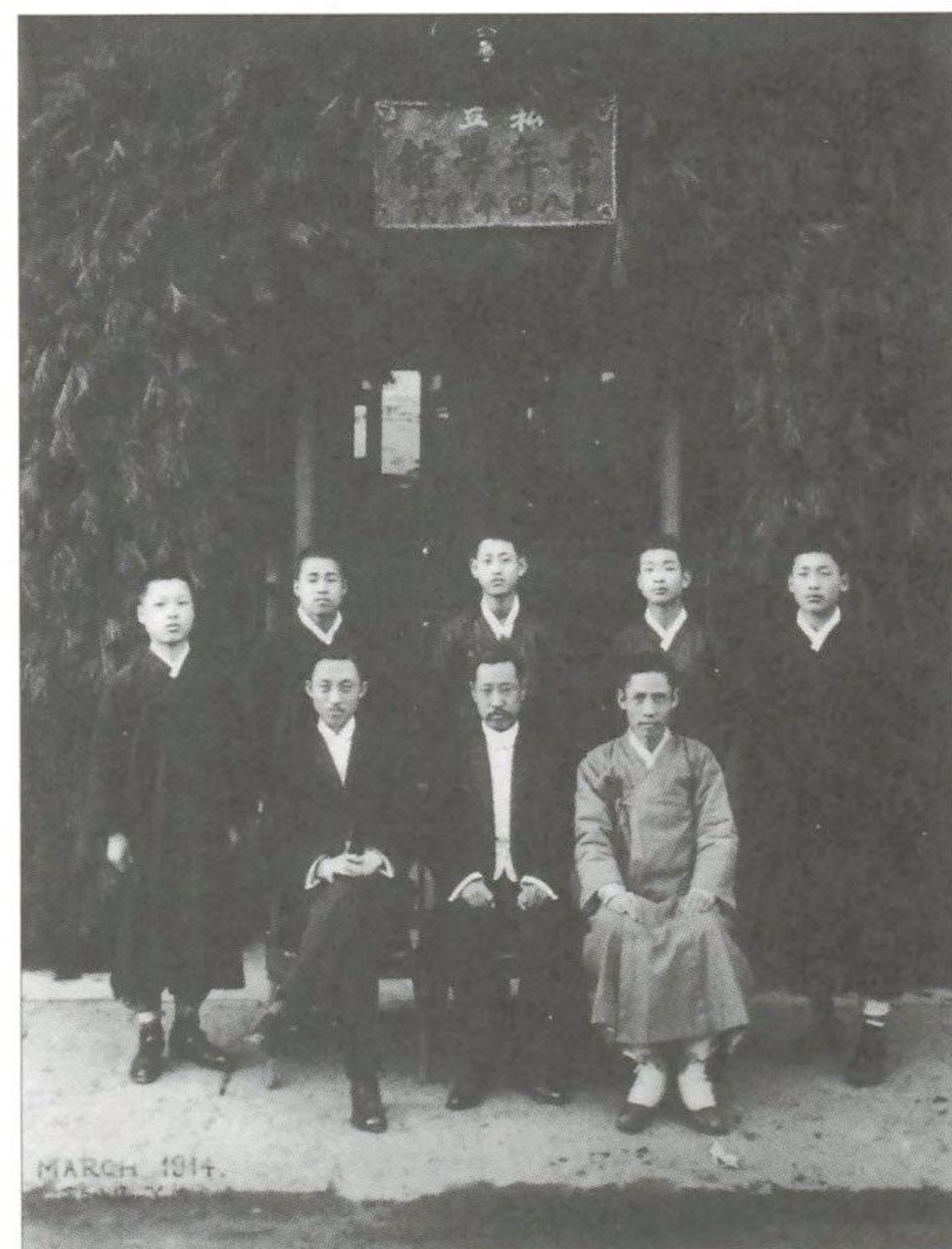
그러나 이 무렵 양악가들의 사회적 지위는 대단히 낮았다. 제금, 사현금 등으로 불려진 바이올린은 ‘양강쟁이’로, 성악가는 ‘양광대’로 취급되었고, 음악을 공부한다고 집안 망할 자식 생겼다고 한탄하는 부모가 계신가 하면 요리점 술상 옆에서 독창을 해라 양강쟁이를 해라 하고는 광대나 풍각쟁이 대접을 하는 이가 있고 모처럼 동경 등지에서 음악을 수학하고 돌아와도 독주회는 고사하고 스테이지를 밟을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을까? 무엇보다 이 시기 조선에는 그의 음악적 열정을 충족시켜 줄 만한 음악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유일한 선각자요 선구자’로 찬탄해 마지 않았던 김인식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작하기를 독습으로 했으니까 특별한 기술이라는 것이 없었으므로 일년을 같이 하고 나니까 피차의 기술이 같아져서 더 배우려고 해도 별로 배울 것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음악청년들은 근방 어느 곳에 가서든지 최고의 음악교육을 받아 오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홍난파는 21세, 그러니까 1918년 4월 도동(渡東), 아시아 유일의 관립 동경음악학교 예과에 입학했다.



세문안찬양대의 모습



청년학관 졸업식 사진
(앞 줄 한복입은 사람뒤에 선 사람이 홍난파)

소나무 아래서 신선이 생활을 부니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도 '송하취생'

전통악기의 재료는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의 8가지인데, 이를 흔히 팔음(八音)이라 한다. 금은 쇠붙이로 만든 악기로 편종·특종·방향·징·나발 등이고, 석은 돌을 깎아 만든 악기로 편경과 특경이며, 사는 현악기로 거문고·가야금·해금, 죽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피리·젓대 팔음·단소이며, 포는 바가지로 만든 악기로 생황, 토는 흙으로 만든 악기로 훈부, 혁은 가죽으로 만든 악기로 장고·좌고 등이고, 목은 나무로 만든 악기로 박·축·어 등이 있다. 팔음은 중국 고대부터 사용되어온 소리의 기본이며, 쇠·돌·대나무 등 8가지 재료는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인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건곤이감(乾坤離坎) 등의 팔괘(八卦)와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생황(笙簧)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흔히 사람들은 거문고·가야금·피리 등은 잘 알지만 생황은 낯설 게다. 생황은 분류상 관악기, 공명악기로서 서로 길이가 다른 17개의 가느다란 대나무 관대가 모여 통에 둥글게 박혀있으며, 국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화음을 내는 악기라는 점이 특징이다. 울림통 가운데 입김을 불어넣는 부리모양의 취구(吹口)가 달려있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 쇠청이 울리면서 소리를 내게 되어있다. 음색이 신비롭고 오묘한데 요즘 생황은 금속성 소리를 다소 머금고 있다. 봄햇살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삐죽삐죽하게 생긴 관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치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生)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생(笙)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길고 짧은 여러 죽관이 가지런히 모여 내는 화음은 피꼬리 소리 같기도 하고 봉황 소리 같기도 하다.

조선후기 문인 이응희(李應禧)의 <옥담시집(玉潭詩集)>을 보면 산새를 읊은 시 18수 가운데 피꼬리와 봉황을 노래한 시가 있다. 2수를 소개한다.



김홍도 '월하취생'

피꼬리(黃鳥, 黃鶯)

푸른 머리털 노란 옷의 새여(綠鬢黃衣鳥)
전생에는 교방의 기생이었나 봐(前身入教坊)
여전히 가곡을 저리도 잘 불러(猶能傳歌曲)
입 열면 생황 소리를 내는구나(開口作笙簧)

봉황(鳳凰)

새가 있어 높은 뒀에서 우니(有鳥鳴高岡)

그 소리가 마치 생황이 울리는 듯(其聲若笙簧)
 문왕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文王今已歿)
 조양에서 우는 소리 다시 듣지 못하네(不復聽朝陽)

우리 선조들은 오묘한 생황의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을 듣는 듯 하다고 하였다. <<세조실록>권14, 4년 11월 19일 계묘).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때로는 인간 세상을 훌훌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정도였다.

자고로 옛 그림은 소리 없는 한 편의 시라고 했으니 그래서 그림 속의 악기는 마음으로 읽는 시상(詩想)이라 해야겠다. 생가(笙歌)는 생황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의하면, 공자가 일찍이 대상(大祥)을 마친 10일 후에야 생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곧 후인(後人)들 역시 즐거운 일에 생가를 사용하였음을 이룬 말인 듯하지만 자세하지는 않다.

먼저 ‘송하취생(松下吹笙, 고려대박물관 소장품)’ 작품을 보자. 배경은 준령산봉도 아니고 기암괴석도 아닌 그냥 예사로운 숲길이다. 우람하면서 곱게 뺨은 높은 소나무 아래에 앉아 생황을 불고 있는 신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나무가 커서 화면상단에 가지의 필선이 멈추어 있고 소나무의 철갑에 대한 묘사가 독특하다. 솔잎이 드물게 달린 것은 노송임을 말해주는데 바로 신선의 이미지와 상통하고 있다. 허리춤 아래로는 풀로 엮은 옷을 입고 가부좌 자세로 등에는 어김없이 호리병을 짊어 지었다. 좌우 균형의 의습선(衣褶線: 옷주름)으로 보아 다리는 안정된 모습이며, 상의는 생황을 한창 부는듯 동감이 부여되어 활달하게 묘사되었다. 신선의 얼굴과 손발은 가벼운 담채로 처리되었다.

‘송하취생’에 보이는 제화시는 당나라 시인 나업(羅鄴)이 지은 7언율시 중의 앞 두 구절이다.

대나무 관의 들쭉날쭉함은 봉황의 날개짓 같고(筠管參差排鳳翅)
 월당의 처절한 소리는 용의 울음보다 더하네(月堂淒切勝龍吟)

생황 관대의 형상을 봉황이 날개짓하는 것에 비유하고서는 그 소리는 용의 울음에 비유하면서 더 애절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생황 소리는 연주자의 마음에 따라 감흥이形形色색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노래 잘하는 꼬꼬리가 되기도 하고 천지가 조화하는 봉황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용의 눈물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생황을 연주하며 읊는 노래는 신령스런 짐승을 불러내는 코드였다. 그것을 신선이 자유자재로 연주하였고 이를 닮고자 많은 이들이 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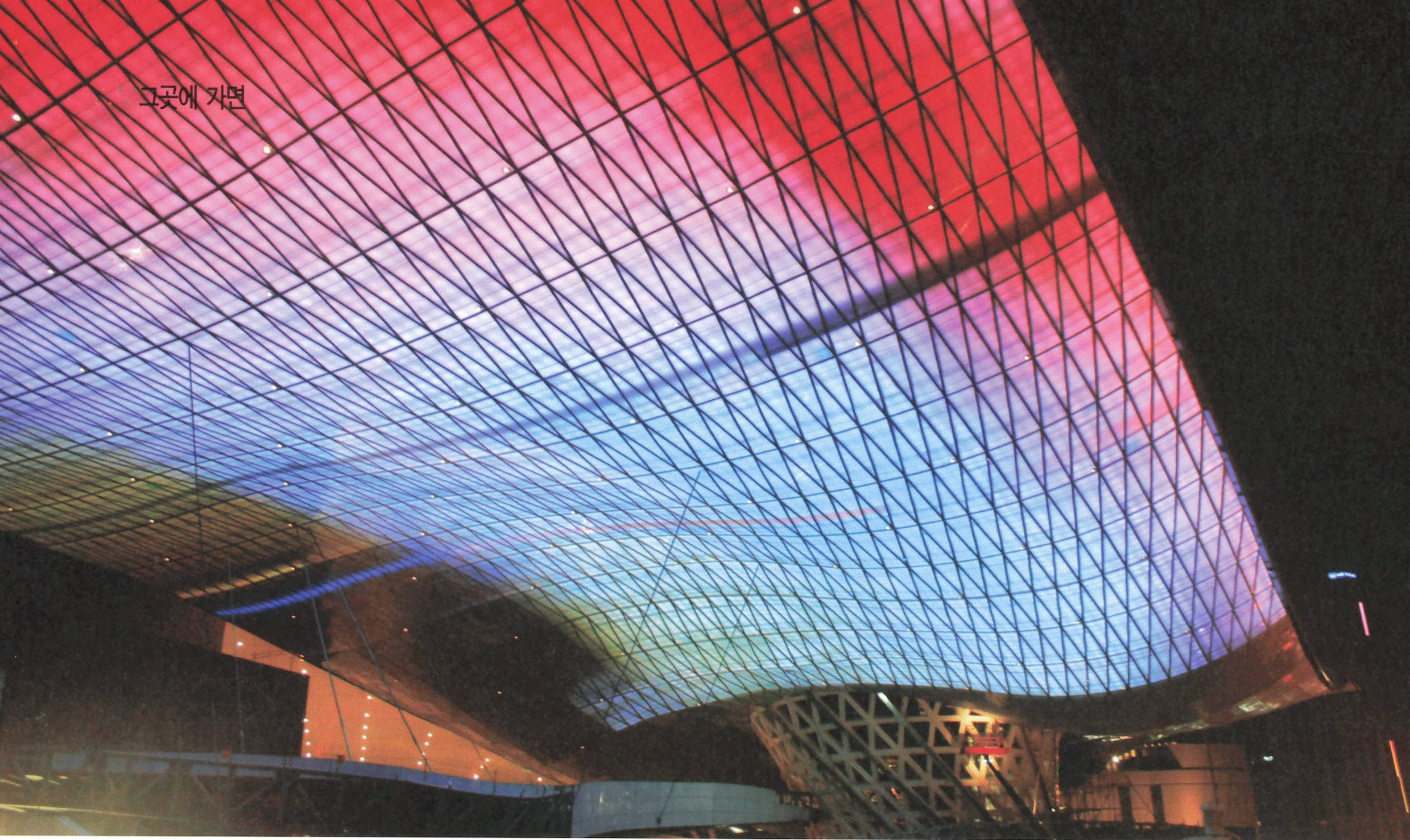
이어서 ‘월하취생(月下吹笙, 간송미술관 소장품)’ 작품을 보자.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곳에서 생황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건을 쓴 선비의 자태는 매우 청아해 보인다. 주위엔 기물이 많다. 커다란 파초 잎을 깔고 앉았고 옆에는 붓·벼루·먹과 서화 작품이 두루마리로 놓여 있으며, 뒤쪽엔 조금 전 일잔을 했는듯 주병과 그릇이 한켠에 밀려 있다. 아마 김홍도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다. 소탈하게 달빛 창을 열고 방에 앉아 편안한 연주로 자연을 불러내는 듯하다. 더구나 그는 악기 연주에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수준급이 아니었던가.

‘월하취생’에 보이는 제화시는 ‘송하취생’의 시 뒷구(월당처절승룡음)를 그대로 썼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이 아마 뒤에 그려진 것 같다. 또다른 이유는 두 작품 중 전자는 필선이 매우 정교한 기법이 돋보이며 후자는 그림의 구도가 편안하며 원숙함이 묻어나는 분위기임을 감안할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 국악에 ‘수룡음(水龍吟)’ 음악이 있다. 독특한 금속성의 소리를 머금은 생황과 맑고 그윽한 음색이 느껴지는 단소(短簫)를 함께 연주하는 이중주곡으로서, 성악곡인 가곡의 반주선율을 기악곡화한 레퍼토리로 고 한다. 이 음악은 국악 방송에 자주 선곡되어 전파를 타곤했던 모양이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모처럼 그윽한 국악방송을 들으며 생황을 연주하는 신선도를 감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월하취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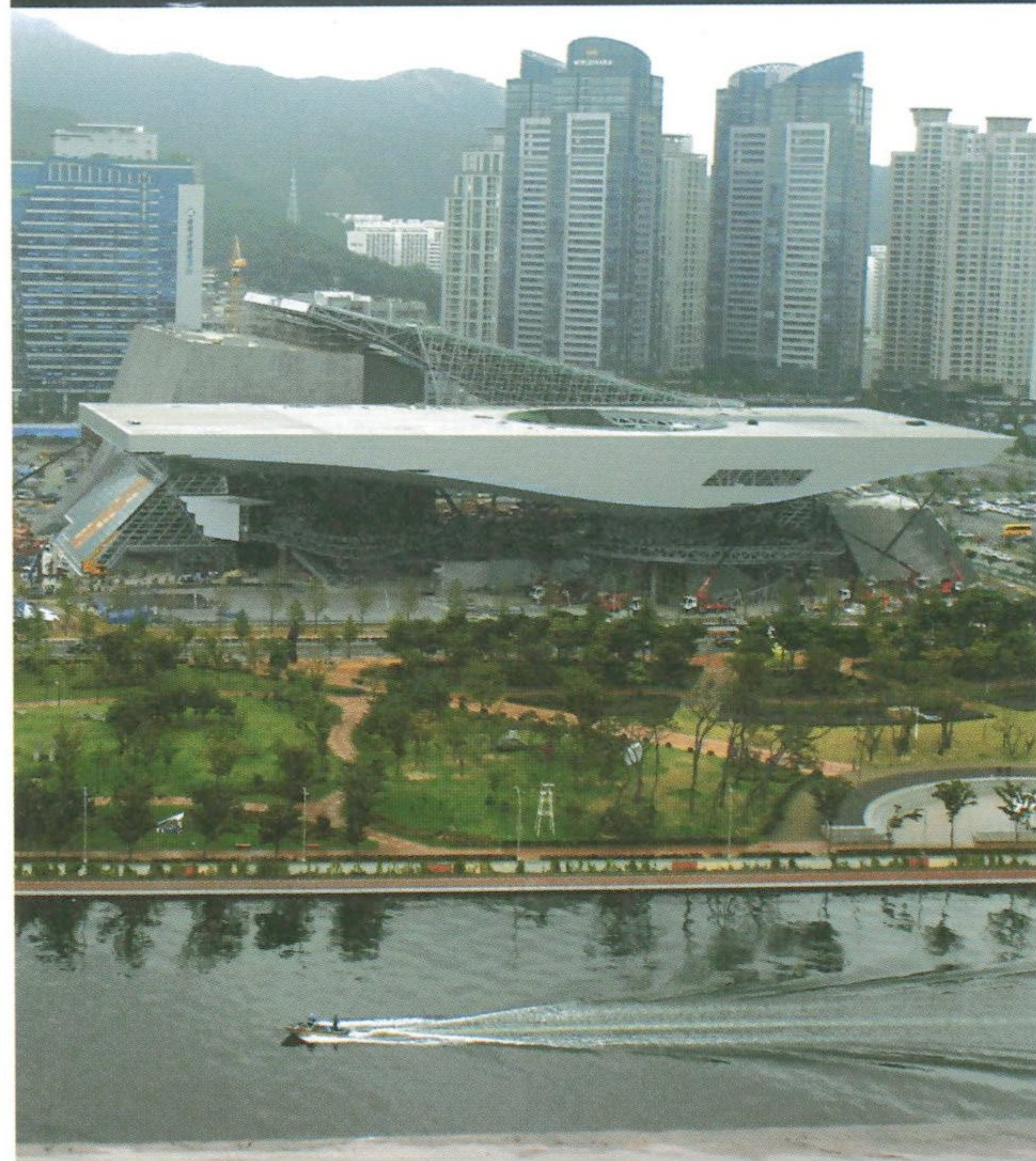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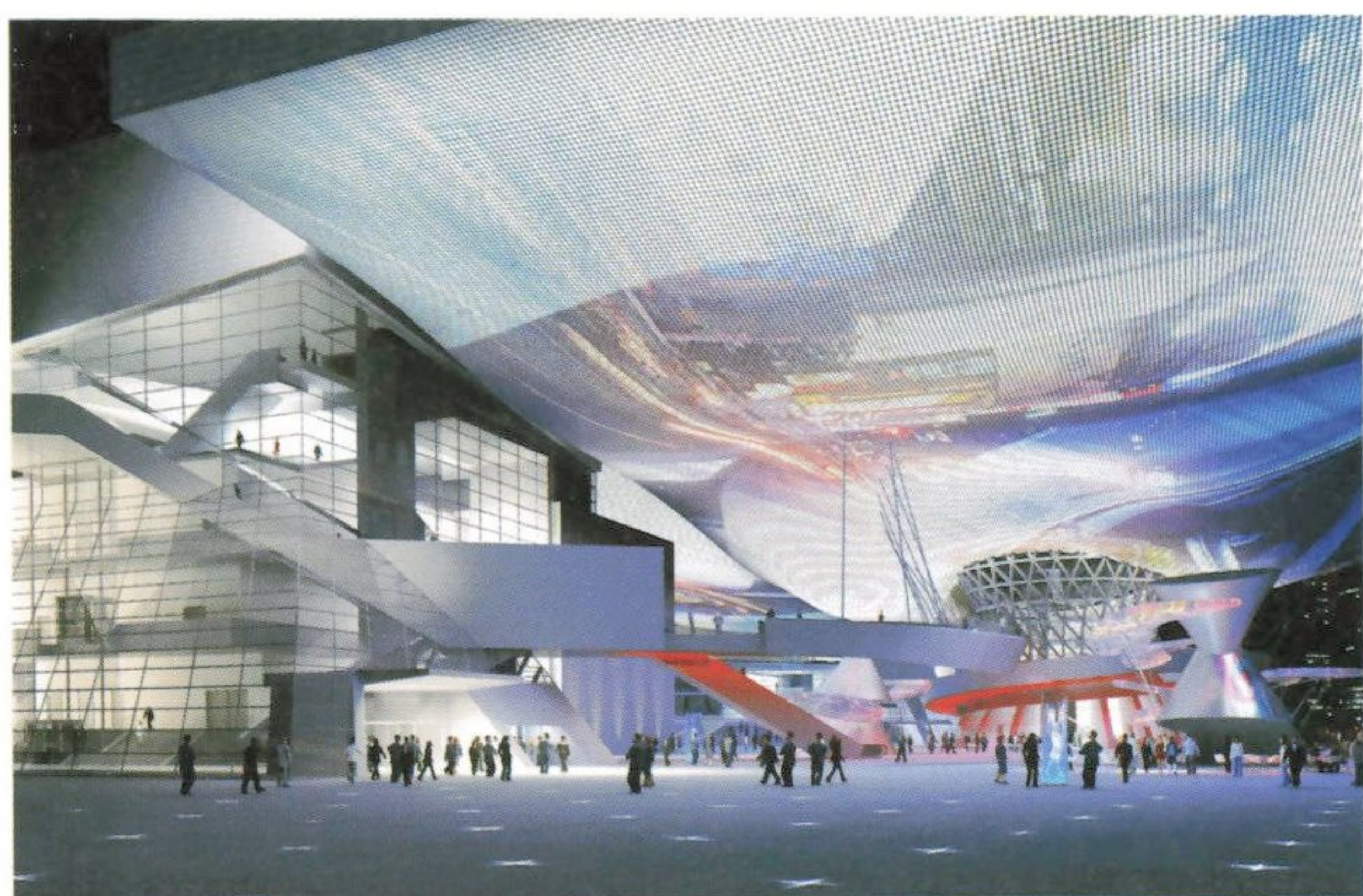


한국 영화의 랜드마크

영화의 전당

영화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이 마침내 개관하면서 또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독특한 건물외형으로 화제가 된 '영화의 전당'은 1995년 가진 국제건축 공모에서 당선된 오스트리아 쿵 힘멜 브라우사가 설계한 국내 유일의 해체주의풍 건축작품이다.

'영화의 전당'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거대한 2개의 지붕. 큰 지붕(빅루프)은 가로 163m, 세로 61m로 축구장의 두 배 넓이에 가까운데다 4000t이나 되는 큰 지붕을 기둥 하나가 떠받치고 있다. 야외극장 지붕인 스몰루프 역시 가로 121m, 세로 66m로, 빅루프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지어졌다. 특히 빅루프와 스몰루프는 규모 7.0의 지진과 순간 최대풍속 초속 65m, 적설량 1m 이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빅루프 아래 광장 바닥에 기둥 2개가 숨어 있어서 지진이나 태풍 등 재해가 발생하면 기둥기처럼 올라와 10단으로 퍼지면서 지붕과 연결되어 혹시 생길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다. 지붕 천정의 모든 면은 LED조명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영상을 연출하도록 설계됐다. 총 42,600개의 LED조명이 밝히는 화려한 조명은 인근 수영강, 나루공원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영화의 전당’ 상징인 빅루프는 앞으로 부산을 넘어 한국 영화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의 전당’은 4,000석 규모의 야외극장 외에도 본관인 시네마운틴과 비프힐, 더블콘 등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스몰루프 아래쪽에 자리한 야외극장은 야외 스크린의 가로, 세로 크기만 각각 24m, 13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붕이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 폐막작을 관람할 수 있다. 지상 9층 규모의 시네마운틴은 예술성과 대중성이 겸비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인 중극장(413석)과 2곳의 소극장(212석) 외에도 다목적 공연장인 하늘연극장(841석)이 들어서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일반 멀티플렉스 극장 역할을 수행하며, 소극장 중 한 곳은 시네마테크 전용상영관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부산, 경남권 최초로 112개로 구성된 조립식 무대를 설치한 하늘연극장은 연출의 의도에 따라 무대를 전체 또는 부분을 조립할 수 있어 다양한 작품의 수용이 가능하다. 특히 1층 객석 맨 뒷자리에서 무대까지 21.5m, 2층 객석 맨 뒷자리로부터는 26.5m, 3층 객석 맨 뒷자리로부터는 28.9m로 무대 위의 공연을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최대 장점이다. 공연장 뿐 아니라 필름 및 디지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영화제 자막용 12,000안시 프로젝트와 3D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시설, 7.1채널을 구현하는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다른 건물인 비프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있던 시네마테크 부산과 BIFF 사무국이 들어선다. 비프힐 지하 1층에는 보관 필름의 검색작업과 시네마테크 교육실습 필름상영이 이뤄지는 시

사실과 필름 아카이브 시설이 자리한다. 빅루프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기도 한 더블콘은 카페와 ‘영화의 전당’ 홍보관이 들어서면서 영화관객 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을 예정이다.

‘영화의 전당’에서 또 하나 주목할 곳이 바로 공중에 연결된 브리지. 시네마운틴, 비프힐, 더블콘 등 ‘영화의 전당’ 모든 곳을 연결하는 브리지는 아름다운 곡선미를 자랑하며 ‘영화의 전당’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황령산과 배산, 수영강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지는 브릿지에서의 탁트인 조망은 가히 일품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상문화의 상징적 건물이 될 ‘영화의 전당’은 앞으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처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영화의 전당’은 9월 29일 개관식에 이어 10월 6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에 맞춰 공개된다.



책 향기 사람 내음 가득한 부산독서모임 책방골목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바야흐로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부산의 헤이온와이 '보수동 책방골목'이 가장 주목을 받는 시기 역시 이 때, 문화축제가 열리는 9월말이면 길고도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책의 탑'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또다른 '책방골목'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책 향기 사람 내음 가득한 부산독서모임 '책방골목'. 지난 2010년 2월 인터넷 카페에 문을 연 '책방골목'은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는 젊은 독서모임이다.

"책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로 부터 책과 쉽게 친해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요. 책 읽는게 어렵다, 독서모임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 토론이 두렵다 등등 그 이유도 다양하죠. 사람들이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독서모임을 열게 되었어요.”

현재 ‘책과 함께하는 여행’ 블로거로도 맹활약중인 박정일 씨는 ‘책을 통해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골목대장 역을 자처했다. ‘책방골목’의 전신인 ‘테마가 있는 맛있는 책모임’은 추리소설과 함께한 추리문학관 탐방에서부터 인문학북카페인 백년어서원, 보수동 책방골목 답사까지 ‘부산’과 ‘책’을 테마로 한 다양한 기획으로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 ‘책방골목’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한차례 열리는 정기모임을 비롯해 3차례의 독서토론편모임까지 여느 독서모임보다도 오프라인 모임이 활발하다. 오프라인 모임의 주제나 토론 대상 도서는 운영진에서 회의를 거쳐 정한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수만도 20여명. 참여하는 회원 수가 많을 경우 그룹별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한다. 온라인 활동 역시 활발하다. 매일 올라오는 회원들의 추천도서와 리뷰를 통해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원 대부분이 20~30대 직장인임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책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독서치유 프로그램은 회원들 각자가 서로 환자와 치유사가 되어 책을 추천해주고 조언하면서 스스로 치유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장르별로 관심분야를 정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스터디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책방골목’은 책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도 열심이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과 복지기관에 책을 기증해오고 있는 ‘사랑의 책나눔’ 나눔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올해부터는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책 기증과 책읽어주기, 아동극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책을 통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회원들이 기증한 책들과 전국에서 기증받은 책으로 나눔카페 일일장터를 운영, 수익금 전액을 복지기관에 기증하는 나눔행사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루하지 않는 독서모임’을 위해 ‘책방골목’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의 저자 정철상 교수를 초청,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갖기도 했던 ‘책방골목’은 앞으로도 다양한 만남을 주선할 예정이다. 또 ‘테마가 있는 맛있는 책모임’의 주제를 확대해 부산의 문화와 역사현장을 책을 통해 발견하고 답사해보는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연주회, 영화, 등산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가족같은 모임’을 꾸려왔던 ‘책방골목’은 오는 10월 3일에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가을운동회를 개최한다.

“책 읽는 사람들에게서는 책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책 향기와 사람 내음 나는 그런 따스한 공간이 바로 책방골목입니다.”

올 가을 책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책방골목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 보자.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는 부산독서모임 ‘책방골목’



동시대 예술가들의 시각세계를 규정한 것은 무엇인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클래식이 보인다-

신설령_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클래식이 보인다'는 음악과 미술을 묶은 것으로 청중의 지적, 예술적 호기심을 자극한다.(사진은 9월 8일 열린 웰빙콘서트)

클래식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곡은 대체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새롭게 창작되는 현대 곡을 잘 연주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기적으로 연주를 해야만 할 때 어떤 곡들을 어떻게 묶어 무대에 올릴지 기획과 창의성이 필요하게 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 연주회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클래식이 보인다'는 음악과 미술을 묶은 것으로 청중의 지적, 예술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는 기획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 음악으로 듣는 미술사'라니! 음악가와 화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예술가들은 무엇을 함께 보았을까?

첫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비엔나 기질〉이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르누아르의 작품으로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의 야외 무도회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대인들의 왈츠에 대한 사랑이 음악과 미술을 묶는 고리였나 보다. 이어지는 화면은 클림트의 작품 〈유디트〉, 〈기대〉, 〈입맞춤〉, 〈부르크 극장〉 등이었다.

그림을 통해 보는 '비엔나 기질'은 과연 무엇일까? 제국의 영

광 그 끝자락을 붙잡고 춤추고 있는 가벼움인가? 클림트의 〈기대〉를 모티브로 파격적인 음악을 만들어 낸 쇤베르크의 등장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림으로 보는 음악사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곡 연주에서는 경직된 연주자세로 인해 춤이 보이지 않는다.

비제의 〈아들의 여인〉 모음곡 중 〈아다지에도〉는 고흐의 그림과 묶었다. 돌을 묶은 고리는 〈아를〉이라는 지역이다. 그러나 고흐의 그림은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고, 비제의 음악은 그 얼마나 나쁜한지.

드뷔시의 야상곡 제 2번 〈축제〉는 휘슬러의 그림 〈녹턴〉과 모네의 그림이 등장한다. 그리고 일본의 우키요에가 고흐의 그림에, 모네의 그림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시대 풍미했던 엑조티즘과 드뷔시 음악에 나타나는 동양적 색채를 읽어내고,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했던 드뷔시의 음악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을 짚어내야 했을 것 같다.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연주를 앞두고 레핀이 그린 '러시아 5인조'의 초상화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무소르그스키, 글린카 등의 '러시아 5인조'는 그 음악적 방향성이 확실하다. 바로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을 추구한 것이다. 레핀의 그림은 새로운 노선을 지향함을 보여주고, 음악은 과거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

연주하는 음악마다 그림과 묶어 해설을 곁들인 기획은 확실히 돋보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한 시대를 함께 했던 음악인과 화가들이 어떤 관념을 공유했는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시각세계를 규정했던 사회의 문화적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세기 말의 예술가들은 무엇을 꿈꾸었을까? 과거 영광으로의 회귀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몸짓이 음악에서, 건축에서 그리고 미술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비움-오후의 햇살

-김남주 개인전-

박미경_동서대학교 외래교수



비움-오후의 햇살, Mixed Media, 2011

1831년 영국의 브루스터는 빨강, 노랑, 파랑 인 삼원색을 어떠한 혼합으로도 만들 수 없는 절대적인 색이라 했다.

물감의 배합이 아닌 유색 빛으로 빛에 빛을 겹치면 흰색으로 된다. 김남주 작가의 전시장에는 빛이 모여 흰색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마냥 하얗게 여기 저기 서 있다. (2011,비움-오후의 햇살)

색을 칠하지 않은 하얀 나무는 채색 되어진 배경과 따로 존재하는 듯하다. 하얀 나무를 순수하게 여백의 흰색으로 그대로 두어 투명

한 유리처럼 빛의 색으로 밝아 보였다. 나무 사이로 채색되어진 배경에는 흰 여백의 빛이 새어나오고 이 빛은 화면 전체에서 균열이 생기 듯 번지는 효과를 보였다.

인상파는 사물에 반사되는 빛을 연구했다. 이에 반해 작가는 사물을 배제한 배경의 빛에 관심을 두어 여러 가지 빛의 향연을 느끼게 한다.

미술이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며 찬미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근대에 와서 인간의 사고 중심으로 자연의 형태를 왜곡, 또는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조형예술이라 하는데 '좋은 조형'이란 각각 선택된 시각요소들이 2차원 또는 3차원의 일정한 크기의 공간과 쾌적한 관계를 이루었을 때 이며 순수조형예술이란 아무 목적 없이 순수한 쾌감을 위한 조형을 말한다. 순수조형공간에는 물질적 존재로서의 작품이 있는 공간이 있고 동시에 작품을 이루고 있는 정신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순수조형예술에서 '창조적'이란 '자아 중심을 우주적 중심에 합일'시키는 시각적 형식의 하나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작품'에는 작가 자신에게만 내재하는 고유한 특질이 표현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작가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만의 색감과 감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색은 개인의 인간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여러 색의 조화로우며 더불어 편안한 그의 나무들은 작가를 닮은 듯하다.

김남주 작가는 동양화가이다. 그러나 서양화에 쓰이는 재료들과 조형원리로 그림을 그려서인지 서양화와 많이 닮아 있다. 또한 가벼운 색감과 수채화 같은 투명도는 거의 서양화 같다. 그러나 왠지 그의 작품에서 오랜 동양의 선이 보이고 코끝에 묵향이 이는 것이 느껴진다.

아리랑 & 茶의 美 제 6회 부산국제茶어울림문화제

10월 1일-10월 2일 토-일요일

>>> 중극장, 소극장, 대·중전시실



전통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의 차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200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부대행사로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茶어울림문화제는 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와

차 도구, 차 관련 제품 등 다양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올해는 일본, 중국, 대만차 현지 초대 무대시연, 차음식 페스티벌, 차실 그림전, 우리웃의 美, 茶文化의 본질과 변천과정을茶具유물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다구유물 500점을 엄선하여 전시한다.

■ 10월 1일 중극장

- 12:30 윤용이 교수 강연회
- 14:00 규방다례(무형문화재 제11호)
- 15:00 숙우회 만다라팔엽(曼陀羅八葉)임차
- 17:00 (사)동다송문화원 '아리랑 십리도'
- 16:00 (사)부산茶문화진흥원 '차명상'

■ 10월 2일 중극장

- 11:00 죽로다문화원 드라마 다회 '효녀 심청전'
- 13:00 아란야다회 '반본환원'
- 14:00 관정다도원 '삼태극다법(三太極茶法)'
- 15:00 대만차와 음악이 함께 하는 차 시연 '茶 & 樂'
- 16:00 시상식

■ 10월 1일(토)~10월 2일(일) 대전시실

동양茶문화 유물전-동양차문화의 원류를 따라서/茶와 회화 특별전/대만도자전/선고茶인추모헌다/김동열작가(천목다완)초대전/우리장신구 초대전/천연염색 초대전

■ 10월 1일(토)~10월 2일(일) 중전시실

장롱속한복새주인찾아주기/ '백화차...파도위에 춤추다' /저자와의 대화 '아름다운 우리 찾그릇-윤용이 교수' (10월 1일 15:00), '우리차문화-김대철 작가' (10월 1일 ~2일 15:00)/애장전/차음식페스티벌/두리차회, 다실꾸

미기/차문화사, 동영상(차예절 유니버스 이야기)/차명상

::관람료 무료

::문의 문의:(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www.busantea.kr)

프랑스 젊은이들의 4중주의 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사회복지법인 애광원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행사 '프랑스 젊은이들의 4중주의 밤'.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감사의 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플루트 연주학 최고 과정을 졸업한 유에스더를 비롯해 클라리네티스트 프랑스와 티소, 피아니스트 오렐 마흐땅, 첼리스트 엘리자 우도 등 프랑스 20대 젊은이들이 다양한 음식으로 부산의 가을밤을 수놓는다.

::프로그램

하이든/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28 라장조 폴랑/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쥬냥/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Fantaisie sur La Traviata' 등 수곡

::관람료 S석 30,000원 · 일반석 20,000원

::문의 김정훈(010-7152-9748)

2011 피아니스트 김대진 리사이틀 Song and Poem

10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 대극장



국내 최정상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교육자로 끊임 없는 도전과 감동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대진 리사이틀.

피아니스트로서 7년 만에 발매하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앨범을 계기로 8년만에 전국 투어에 나선 김대진은 유연한 테크닉과 개성이 강한 작품해석으로 독자적인 연주 세계를 구축하며 국내 최정상의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아왔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가장조 작품 120 D.664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가단조 작품 143, D.784

쇼팽/4개의 발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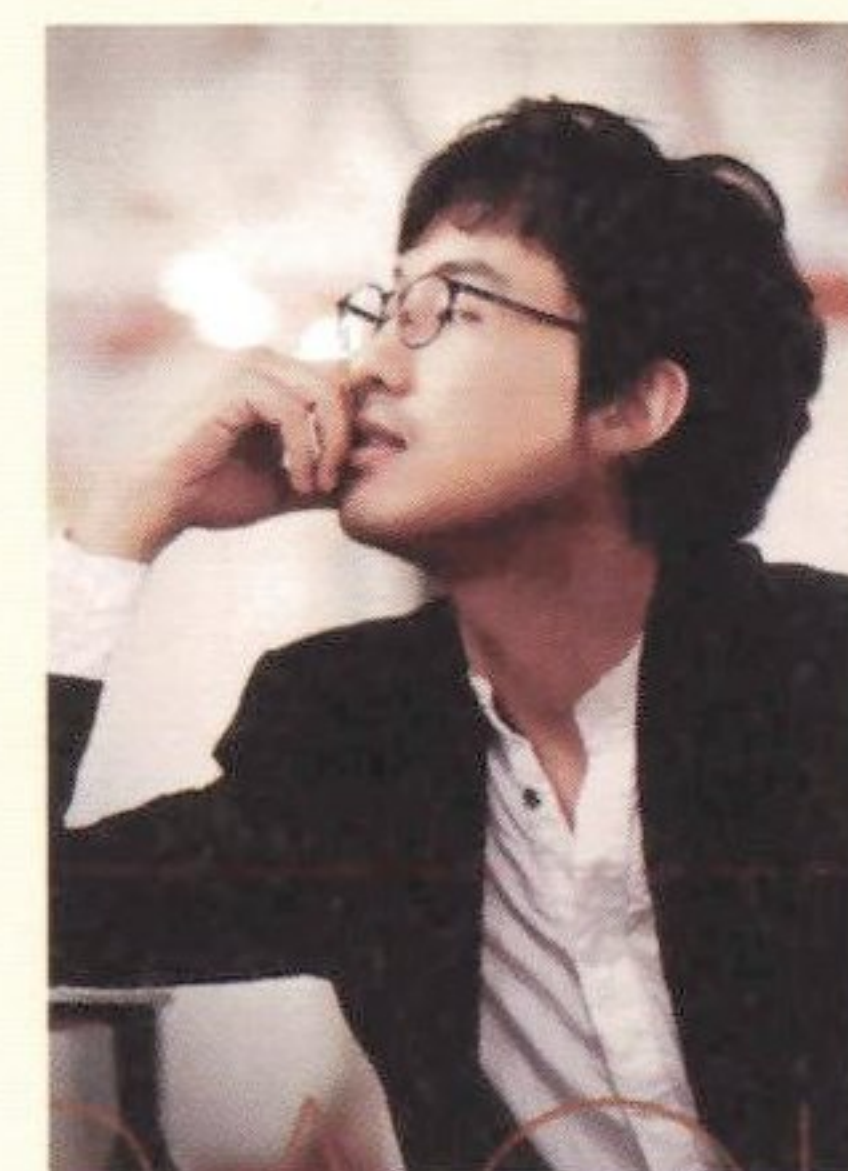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더 스톰프(02-2658-3546)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야나체크스트링콰르텟이 선사하는 '프라하의 가을'

10월 3일 월요일 오후 6:00 >>> 중극장



섬세한 음식과 화려한 테크닉, 감성과 논리의 조화로부터 나오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국내외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야나체크스트링 콰르텟이 선사하는 '프라하의 가을'.

야나체크 스트링 콰르텟은 동유럽의 우수어린 서정과 작곡가 야나체크의 음악을 완벽한 앙상블로 선보이며 세계 무대에서 실내악의 정수를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드보르작/현악 4중주 제 12번 바장조 작품 96 '아메리카'

스메타나/현악 4중주 제 1번 마단조 '나의 생애로부터'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제 2번 가장조 작품 81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주)프로아트

(02-585-2934, www.pro-art.co.kr)

제 32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0월 4일-6일 화-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24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최대 피아니스트 단체인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에서 들려주는 제 32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4일(화) 원영아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쇼팽/왈츠 작품 64 제 2번, 작품 18 제 1번,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내림마장조 작품 22, 발라드 제 1번 사단조 작품 23, 제 2번 가단조 작품 38 등

■5일(수)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리스트의 밤'

::프로그램

리스트/Etude de concert No.2, No.3
리스트/Les Jeux d'eau a la Villa d'Este
리스트/발라드 제 2번 나단조 s.171, 리골레토 패러프 레이즈 등

· 연주/이동섭, 차미령, 김미현, 성민주, 신지아, 조현선

■6일(목) 듀오의 밤

신애정 & 이윤정, 정희경 & 김선화, 정은정 & 김태령, 최미정 & 김은미, 박선희 & 김성숙 & 최은실, 이경옥 & 정년경이 들려주는 듀오의 밤.

::프로그램

J.슈트라우스 II/오페레타 박쥐 서곡 작품 56
모차르트/소나타 Kv.381(4 hands)
라벨/라 발스 등 수곡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지은(010-5160-0968)

김미진(010-9390-4271)

**리처드 용재 오닐 <기도>
with 뷔르템베르크 챔버오케스트라**
10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을 수상하고 그래미상의 베스트 솔리스트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몇 안 되는 비올

리스트 중 한 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독일이 자랑하는 명문 실내악단 뷔르템베르크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기도'.

리처드 용재 오닐은 최근 뉴욕 링컨센터의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정식 단원으로 임명되어 월터 트램플러와 폴 뉴바우어를 잇는 세 번째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브루흐/콜 니드라이(비올라 & 오케스트라)
레스피기/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 제3모음곡(현악 오케스트라)

로제티/협주곡 사장조(비올라 & 오케스트라)

시벨리우스/즉흥곡(현악 오케스트라) 등

::관람료 R석 120,000원 ·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 B석 60,000원

C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어린이를 위한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 · 치카치카 호랑이**
10월 5일-6일 수-목요일 오전 10:10, 11:20 >>> 소극장

키가 큰 기린과 키가 작은 돼지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 충치를 소재로 한 코믹 교육인형극 '치카치카 호랑이' 부산무대.

· 작, 연출/이정민

::관람료 균일 15,000원(예약필수)

::문의 dubu기획(02-2654-6854)

테너 오동주의 시월의 노래
10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목련합창단 지휘자,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 남성성악 앙상블 4+1 회원, 금정수요음악회 해설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오동주 독창회.

오동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등 각종 음악회에서 쉽고 편안한 음악을 선사해 왔다.



::프로그램

가을밤의 한국가곡/끝없는 사념(김연준 곡), 뱃노래, 산촌(조두남 곡), 산아신동수(곡), 나의 별에 이르는 길(김애경 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이안삼 곡)

크로스오버 & OST/하망

연(대장금 수록곡), 그대 향한 사랑(장희빈 수록곡), SHE(영화 '노팅 힐' OST) 등 수곡

· 피아노/유영욱(국제대학교 음악학과 전임교수)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오동주(010-4556-505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運命'**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리 신차오



김응수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유럽음악계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運命'.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갖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는 지네티 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 1위, 아바도 국제 바이올린콩쿠르 1위 수상 등으로 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61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 33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김길수 장원상 정태미

24년의 전통을 가진 이태리 음악연주단체인 이태리음악연구회는 매년 1~2회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아름다운 벨칸또음악을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일 코르사로' 중 'Ah! si ben dite...'
지오르다노/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중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소(La mamma morta)'

베토벤/오페라 '피델리오' 중 '악당이여! 어디로 가는가(Abscheulicher, wo eilst du hin)' 등 수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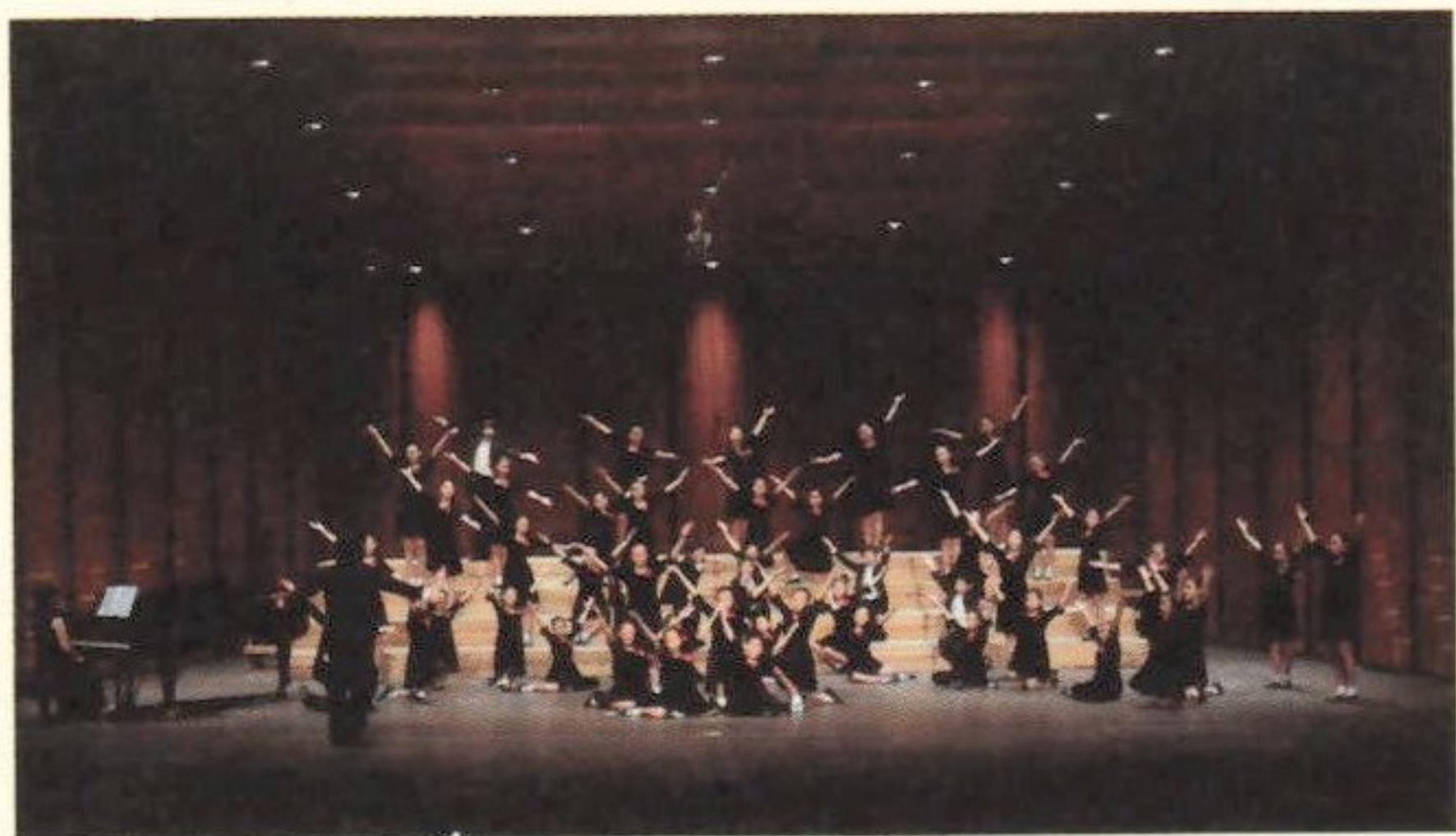
테너 양승엽, 소프라노 구현진, 베이스 권영준, 소프라노 윤지영, 바리톤 고영호, 소프라노 구민영, 소프라노 정태미, 테너 장원상, 테너 정거화, 메조소프라노 박소년, 바리톤 김길수, 윤민화(피아노), 안선애(피아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태리음악연구회(010-7767-439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 25회 청소년합창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 대극장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1985년에 시작된 청소년합창제 2011년 무대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8개 청소년합창단이 출연,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출연

엄궁초등학교 합창단(지휘/설진극), 용수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배현주), 명진초등학교 합창단(지휘/권기현), 남문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배수정), 용산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박지용), 용문초등학교 합창단(지휘/문지영), 분포초등학교 합창단(지휘/서종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반주/이영옥·지도/노금선, 김양자)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뮤클합창단 제 6회 정기공연 '스타바트 마테르'

10월 8일 토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비전공자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드물게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 모차르트 '레퀴엠', 포레의 '레퀴엠'에 이르기까지 세계 음악사를 빛낸 명곡에 도전,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 뮤클합창단은 2005년 뮤지컬, 클래식 감상동호회에서 출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왔다.

- 지휘/엄현섭
- 반주/이은혜
- 오르간/변경숙
- 해설/김희성
- 소프라노/김경희
- 알토/정옥심
- 테너/곽유순
- 바리톤/하병욱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강영옥(010-2307-6922)

부산가톨릭합창단 제 33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10월 9일 일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종교음악 전문 연주단체로 1982년 창단 이래 바흐의 '마그니피카트', 모차르트 '레퀴엠', 포레 '레퀴엠' 등 여러 시대의 곡들을 선보여온 부산가톨릭합창단의 제 33회 정기연주회.

'대관식 미사'는 모차르트가 이탈리아와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여행이후에 작곡된 곡으로 여러가지의 세상의 작곡기법들이 다 녹아있고 전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호모포닉스타일로 작곡된 명곡이다.

- 지휘/이성훈
- 피아노/박유미
- 오르간/이민아
- 소프라노/강혜정
- 알토/강연희
- 테너/김성진
- 바리톤/이창룡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가톨릭합창단

(010-3854-3034, 010-5535-5858)

썬 공연단-라틴아메리칸 댄스공연 'The Sun : Latin performance'

10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 중극장



2006년 국내 최초로 창단된 라틴아메리칸 댄스 공연단 '썬 공연단'의 2011년 무대.

창단 이듬해부터 매년 거제, 제주, 부산, 마산 순회 공연을 가진 썬무용단은 창의적인 안무와 유기적

으로 연결된 댄서들과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보다 심도 있는 공연으로 많은 박수를 받아왔다.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썬 공연단(644-6627,

<http://cafe.daum.net/dancersym>)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창단 20주년 기념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42회 정기연주회

10월 12일-13일 화-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1990년 창단 이후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및 젊고 역량 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열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창단 20주년 기념 제 42회 정기연주회.

경남피아노듀오협회 교류연주회와 조재혁, 피경선의 피아노 듀오연주회가 열린다.

■제 1일 10월 12일(화) 경남피아노듀오협회 교류연주회

::프로그램

아렌스키/모음곡 제1, 2번
라벨/라발스

슈베르트/송어 등 수곡

·출연/한명희, 김영지, 최민경, 임효진, 이미진, 손소연, 윤민선, 배정인, 서혜원, 주재란

■제 2일 10월 13일(수) 7:30 조재혁, 피경선 피아노 듀오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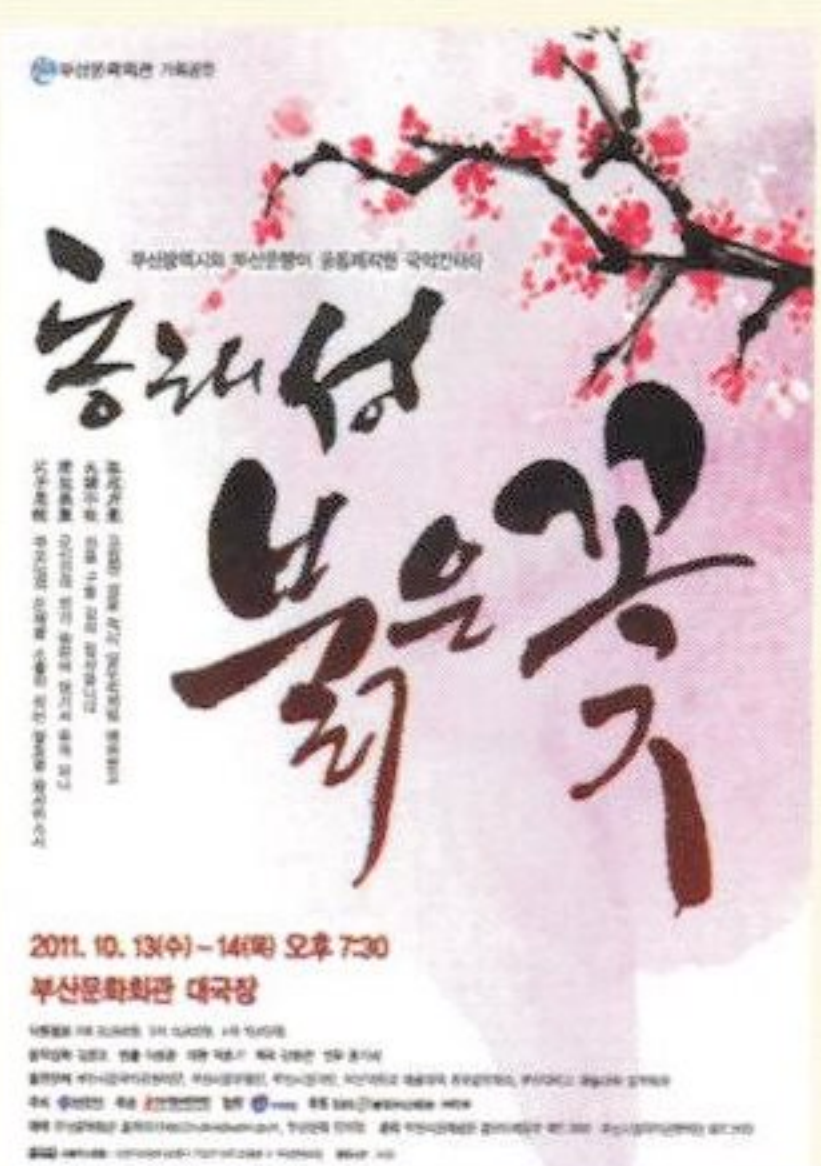
뉴욕 맨해튼 음대 예비학교를 거쳐 줄리아드 음대 학사와 석사, 전문연주자 과정, 맨해튼 음대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귀국, 성신여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재혁,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으로 하고 국민대 교수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경선의 듀오 연주회.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진희(010-9928-3733)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 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공연 국악 칸타타 - 동래성 붉은 꽃

10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8:00 >>> 대극장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만들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새롭게 제작한 부산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국악 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예술로서 재해석한 이번 무대는 부산문화회관이 '즐거워라 무릉도원' 이후 오랜만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이 함께 참가하는 대작이다.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작가/백훈기(예술집단 페테 대표)
- 작곡/강봉천(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강사)
- 연출/이병훈(국립극단 상임연출가)
- 안무/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정문정 피아노 독주회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미국 Roosevelt University, Depaul University 최고전문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정문정 독주회.

정문정은 Roosevelt University 콘체르토 콩쿠르, 전미교수협의회(MTNA)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세계의 간주곡 작품 117

하이든/소나타 다장조 Hob XVI(50)

슈만/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등

::관람료 균일 10,000원(학생 50% 할인)

::문의 정문정(010-5797-9755)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기금모금 '효원음악회'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 대극장

효원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모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부산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마련하는 '효원음악회'.

올해는 '부산대학교 사랑을 위한 시민 한마음 음악회'를 지휘한 바 있는 박성완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은주 등 동문 성악가들이 출연, 화려한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서곡 'PNU Fantasy'

생상스/교향곡 제 3번 다단조 작품78 제 4악장

베토벤/환희의 송가 등 수곡

· 지휘/박성완 교수

· 연주/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동문성악앙상블 '칸토 미리내'

· 소프라노/박은주 교수

::관람료 균일 50,000원

::문의 부산대학교 총동창회(462-8780)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제 6회 정기공연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7:00 >>> 중극장



2005년, 3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들로 결성된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의 제 6회 정기공연.

6월 엄정행 전국합창대회에 참가, 남성합창부분 1등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은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노래를 통해 삶의 활력과 즐거움, 가정의 행복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프로그램

아름다운 강산/가지산 물소리, 인연, 거치른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

설렘/살짜기 읍소예, 꿈꾸는 백마강, 찬찬찬

추억 김광석과 노래/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나는 아버지 가수다/도라지 꽃, Mr simple 등 수곡

· 곡중 솔로/권명희, 진용, 김정학, 윤원정, 노학량

· 드림/한규찬 · 하모니카/김종철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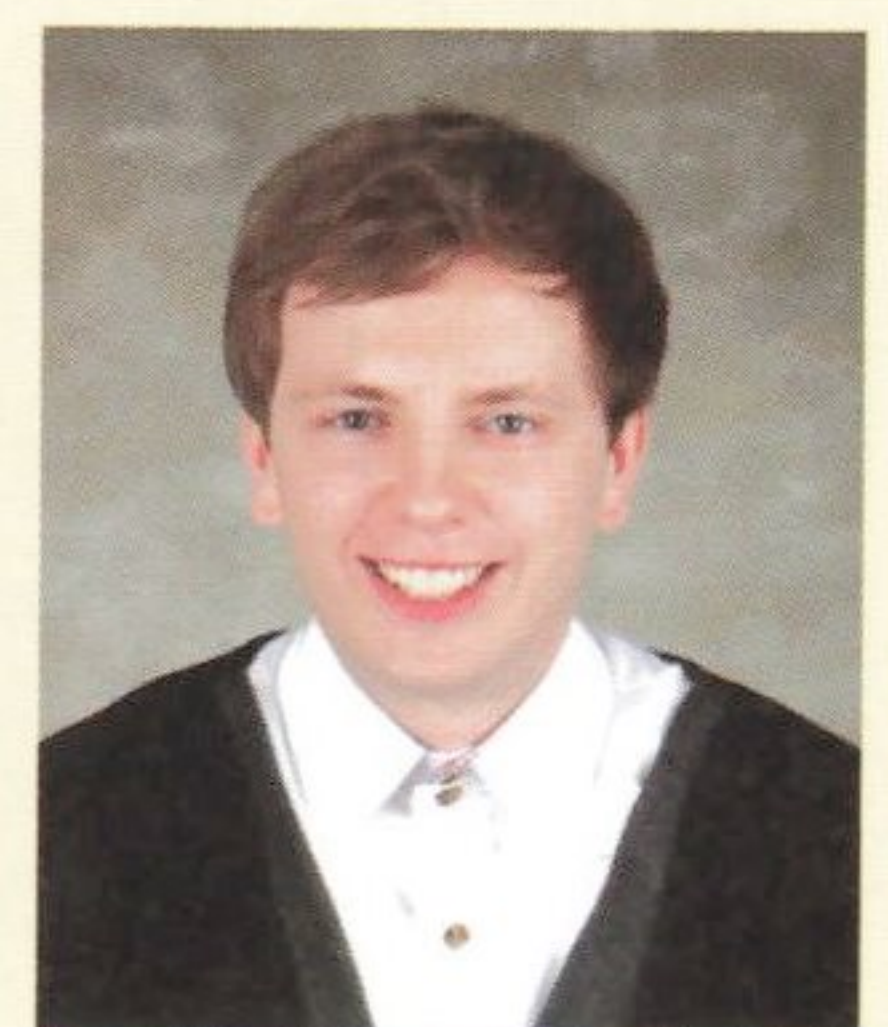
::문의 윤정운(010-4553-3946)

사단법인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제 40회 정기연주회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윤상운



라도스와브 슝차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 40회 정기연주회.

쇼팽 피아노 콩쿠르 1위, 제 14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A Granted Honorable Mention 외 다수의 특별상을 수상한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라도스와브 솅착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제 1번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 지휘/윤상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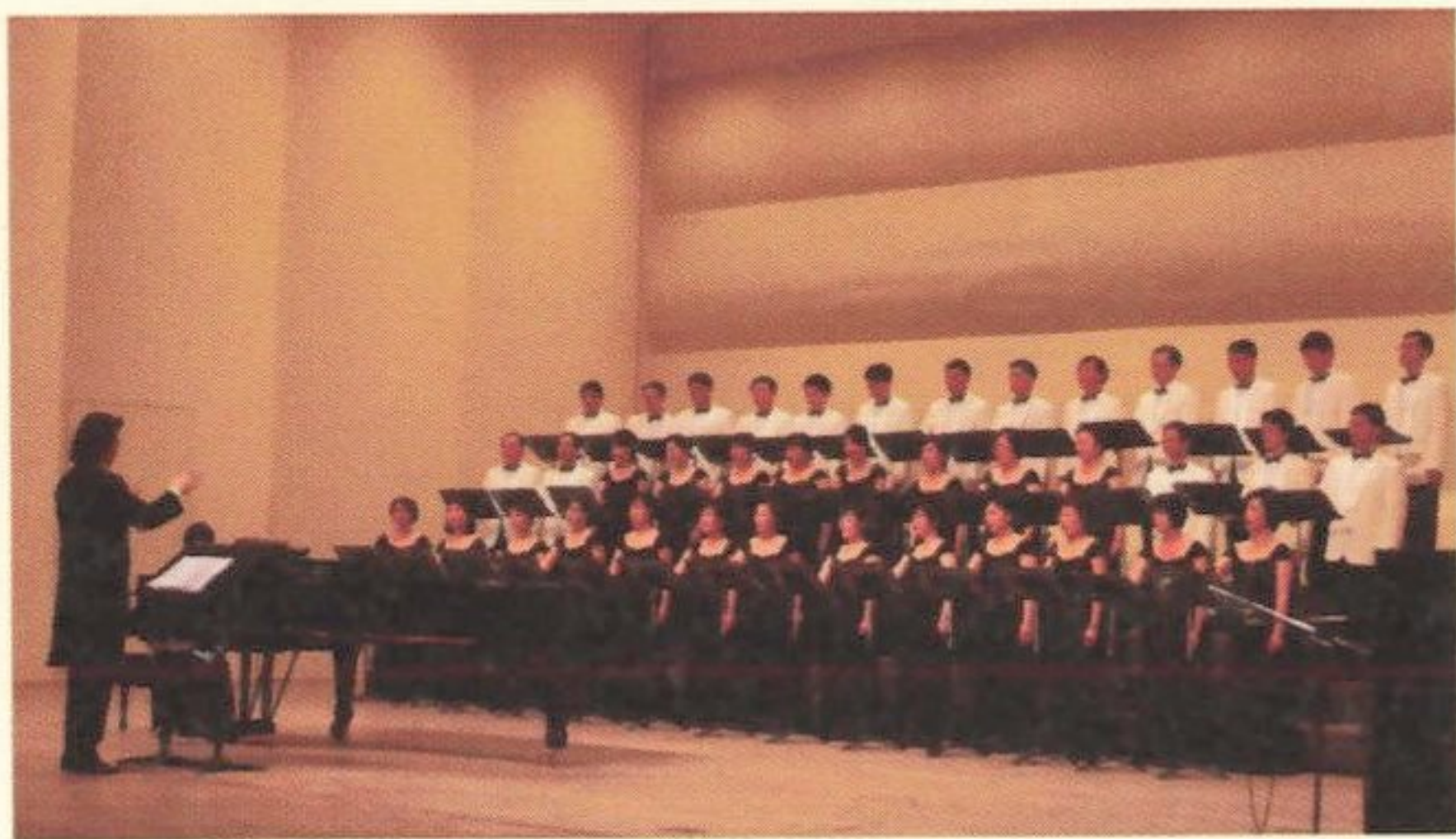
· 협연/라도스와브 솅착(폴란드 국립쇼팽음악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 쇼팽음악원 객원 교수)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뮤즈콘서트콰이어 제 5회 정기연주회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7:00 >>> 중극장



2007년 부산, 울산, 경남 일원의 음악동호인들로 결성된 아마추어합창단 뮤즈콘서트콰이어 제 5회 정기연주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는 뮤즈콘서트콰이어는 창단 이후 4회에 걸친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작은 음악회,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전곡연주회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프로그램

Via Dolorosa, 들국화, 아리 아리랑, La ci darem la mano,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축배의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연가, 만화영화 메들리 등

· 지휘/조현수 · 피아노/이소진, 박재나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추인수(010-5503-9693)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제 9회 정기연주회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부산지역 16개 구, 군 여성합창단원들로 결성된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의 제 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키행진곡, Haida, Nella fantasia, Rain drops... 사랑은 아름다워라, 신아리랑, 수선화, 사랑합니다 등

· 지휘/윤정윤 · 반주/이현주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전병호, 해군군악대

::관람료 무료

::문의 배은주(010-3133-8026)

김문주 클래스 피아노 연주회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경성대와 동아대 4학년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김문주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클래스 음악회.

::프로그램

드뷔쉬/베르가마스크 모음곡

히나스트라/아르헨티나 춤곡, 소타나 제 1번 작품 22

리스트/사랑의 꿈 등 수곡

· 연주/김근영, 신주옥, 이상아, 조민지

::관람료 초대

::문의 조민지(010-6488-8375)

부산시립합창단 제 139회 정기연주회 PRESENT-선물 & 현재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수석지휘자 김강규

풍요로운 가을의 서정을 노래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제 139회 정기연주회 'PRESENT-선물 & 현재'.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부산시립합창단을 지휘한 수석지휘자 김강규의 고별

무대로, 김강규 지휘자가 그동안 무대에서 관객들과 교감했던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남성합창/웨난도(Arr. J.Erb), 깨어남(Joseph M. Martin)

여성합창/소리춤(G. Jasperse), 시편 23편(F. Schubert) 다함께 합창을!/가을밤(이태선 시, 박태준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국가곡/섬집아기 환상곡(이흥렬 곡, 이영조 편곡), 가교파 전, 후편(이은상 시, 김동진 곡) 등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리아영 피아노 독주회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 소극장

경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피아노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부산연주가클럽 주최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부산음악협회 피아노 그랜드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리아영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리스트/사랑의 꿈 S.541

리스트/스페인 광시곡 S.254

리스트/피아노소나타 나단조 S.178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리아영(016-530-3254, 010-6657-9178)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10월 20일-29일 목-토요일 >>>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삼락강변공원 중앙광장,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



15개 시·도의 지역예선을 거친 각 시도의 대표무용단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무용계 최고의 축제 '제 20회 전국무용제'.

부산에서 열린 제 1회 전국무용제 이후 19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 20회 전국무용제는 21일 부산지역 대상팀인 허경미 Red Step무용단의 경연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모두 시도 15개 팀이 경합에 참가한다. 경연에 앞서 조광, 김매자, 남정호, 김순복 선생의 '명인 명무전', 부산, 경기, 대전지역 8개 팀이 참여하는 '새물결 춤 작가전', '15개 시도의 날' 행사와 '시민춤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 10월 20일 오후 6:30 대극장 개막행사
- 10월 21일 오후 7:00 대극장 '명인명무전'
- 10월 21일-28일 오후 7:30 대극장 경연팀 공연
- 10월 21일-29일 오후 5:30 중앙광장 15개 시도의 날, 오후 6:30 중앙광장 시민 춤 한마당
- 10월 25일-26일 오후 7:30 소극장 '새물결 춤 작가전'

::경연 참가단체

- 부산 허경미 Red Step무용단 '외(외)치다'
- 강원 강원춤아카데미 '감자골 고갯마을 이야기'
- 광주 광주로얄발레단 'Tipping point 37.5'
- 경기 이승신 현대무용단 '세상속의 외눈박이'
- 경남 M&S 무용단 '구운몽'
- 경북 포항 이화예술무용단 '태양의 새, 삼족오(三足鳥)'
- 대구 김선영 현대무용단 '불편한 진실'
- 대전 라 디나미까댄스 '그을린'
- 인천 나누리 무용단 'Slow city, 녹색도시를 찾아서'
- 울산 박종원 댄스컴퍼니 '그, 사람'
- 전남 남희주 무용단 '물에서 피는 꽃...'
- 전북 DANCE TROUPE 발레통 '햇 살'
- 충남 권용상 무용단 '휘, 휘'
- 충북 강민호 무용단 '그, 자리'
- 제주 김하월 무용단 '□(구)'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623-5117)

부산시립교향악단-2011월빙콘서트
'클래식이 보인다 IV - 영화 속의 클래식'
'아마데우스'와 모차르트의 음악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1:00 >>> 중극장

클래식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 노력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년 특별기획연주회 '월빙콘서트'

-클래식이 보인다' 마지막 무대 '영화 속의 클래식'. 음악전문칼럼니스트이자 영화와 클래식의 접목을 소재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회숙의 진행, 해설로 모차르트의 삶을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 중 삽입된 교향곡, 서곡, 오페라 아리아로 풍성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주세페 디 스테파노 국제콩쿠르, 시에나, 키에티, 쿠네오, 리치오네, 사르테아노 국제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마혜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베이스 문동환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교향곡 제 25번 사단조 작품 183 중 제 1악장,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 '돈조반니' 중 '우리 손을 맞잡고' 등
- 모차르트/교향곡 제29번 가장조 작품 201 중 제 1악장
- 지휘/이동신
- 해설 및 진행/진회숙(서울시립교향악단 SPO 편집장, 세종문화회관 세종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
- 협연/소프라노 마혜선, 베이스 문동환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시인의 해설과 함께하는
김성덕 예술가곡작곡발표회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00 >>> 소극장

한국창작가곡협회 회장,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작곡과 교수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 김성덕은 KBS TV 작곡대상, 2011 대한민국 창작합창축제, 송선작가레지던스 공모 등에 당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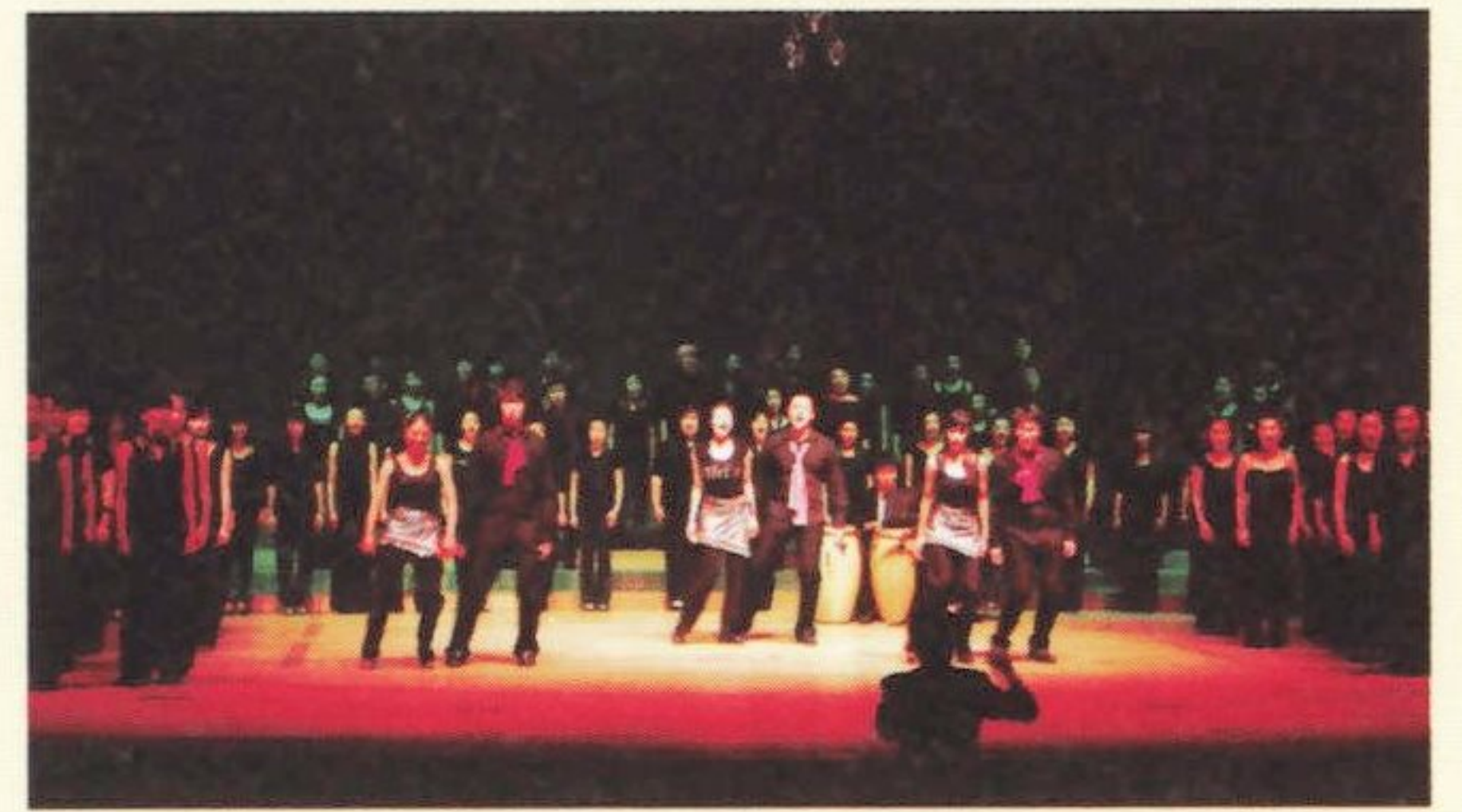
::프로그램

- 김성덕/외로운 구절초(이소애 詩), 갈망(이소애 詩), 안개꽃(이소애 詩), 저 나그네(전병구 詩), 추석이 오면(정동진 詩), 청사포 계절 중 '겨울'(김미순 詩), 가을이여(전병구 詩), 섣다리(이소애 詩) 등
- 연주/소프라노 변향숙, 베이스 김태형, 소프라노 이희, 테너 김태모, 소프라노 송윤경, 테너 장진규, 피아노 허혜정, 최정윤

::관람료 초대
::문의 김성덕(323-8575, 010-4541-8576)

2011 대학합창페스티벌

10월 21일-22일 금-토요일, 24일 월요일, 26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시민들에게 친숙한 한국가곡 및 성가곡, 민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사하는 2011 대학합창 페스티벌

::공연 일정

- 21일(금) 동아대학교 합창단(지휘/김명규)
- 22일(토) 고신대학교 합창단(지휘/안민)
- 24일(월) 신라대학교 합창단(지휘/박광하)
- 26일(수) 동의대학교 합창단(지휘/김성중)

::관람료 초대
::문의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이영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6:00 >>> 중극장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중앙음악학교, 차이코프스키음악원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주는 유학 중 러시아 SIBIRI 국제콩쿠르, 미국 Boston Cambridge 현악 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301
- 라벨/치간느
-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 소나타 라장조 등
- 피아노/고마음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 2회 김영근 독창회-그리움에 대하여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좋은 아버지 합창단 단원으로 음악인생을 시작한 아마추어 성악가 김영근의 두 번째 독창회.

가을의 서정에 맞는 그리움을 담은 이별의 노래(김성태 곡), 그대 있음에(김순애 곡), 가을 저녁(엄영미 곡), 그대 그리움(황덕식 곡), 수련(이안삼 곡) 등 우리 가곡을 들려준다.

- 반주/이승윤
- 찬조출연/소프라노 김조자(한국예술가곡연주회 회원), 김판수(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영근(010-3567-3723)

Ensemble di Mare 제 5회 정기연주회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2008년 9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이은옥을 비롯한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디 마레(Ensemble di Mare)의 정기연주회.

앙상블 디 마레는 매번 다양한 소리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고 포근하게,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전달해왔다.

::프로그램

멘델스존/신포니아 제 10번
시벨리우스/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작품 117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등

- 특별출연/우소리, 최은해, 김은아(이상 바이올린), 정희경(비올라), 김기량(첼로)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하이든 & 모차르트'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고전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걸작들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전해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류재환, 정우영, 윤태준, 막심 멜니코프가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위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극장지배인' 서곡

모차르트/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위한 협주곡

하이든/교향곡 제100번 사장조 '군대'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류재환(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정우영(클라리넷,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윤태준(바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막심 멜니코프(호른,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 13회 원로음악회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지역 음악의 터전을 마련한 1세대 음악인들로 구성된 부산원로음악가회가 들려주는 제 13회 원로음악회. 송용창의 아코디언 연주를 비롯해 김용문, 이구일, 정안선의 첼발로 트리오가 들려주는 바로크 음악, 원로 작곡가 하오주의 가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알베니스/탱고 작품 165



김용문

이구일

정안선

배영식/아리랑을 주제로 한 코리아 판타지
하오주/두견새, 구룩구룩 비둘기야 등 수곡

- 연주/밀레니엄 현악 4중주(이미하, 정덕원, 구영숙, 김희은), 이라희(바이올린), 유영욱(피아노), 고정화(피아노), 전이순(소프라노), 박은희(피아노), 배학수(클래식 기타), 이종은(소프라노), 송용창(아코디언), 첼발로 트리오(김용문 · 바로크 바이올린, 이구일 · 바로크 첼로, 정안선 · 첼발로)

::관람료 초대

::문의 전이동(010-2705-0366)

2011 MIK양상블 리사이틀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 중극장



피아니스트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비올리스트 김상진, 첼리스트 송영훈이 활동하고 있는 MIK 양상블 부산 연주회.

MIK양상블은 각 분야별 국내 최정상 솔리스트들이 피아노 4중주는 물론 피아노 3중주, 현악 3중주, 2중주 등 다양한 구성과 레퍼토리로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4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16

수크/피아노 4중주 가단조 작품 1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2번 작품 72 등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문의 더 스톱프(02-2658-3456)

**GSK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 Happy Smile for Childre**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 대극장



만성 B형 간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간염퇴치를 위해 노력해온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전하는 희망콘서트.

12회를 맞는 올해 무대는 2006년 피아니스티자

지휘자인 슈 종이 창단한 상하이 오리엔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함께 저소득/요보호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오유안카이/중국의 풍경과 소리 모음곡 중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림스키 코르사코프/세헤라자데 작품 35

::관람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B석 40,000원

::문의 영앤임섬(02-720-3933)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 중극장

2006년 5월 카페 '오아시스 앙상블' 개설을 시작으로 결성된 직장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오아시스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 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Hooked on Classic

메르카단테/플루트협주곡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베토벤/심포니 3번 '영웅' 등 수곡

· 지휘/김상철 · 협연/서지원(플루트), 염준영(테너)

::관람료 무료

::문의 진두찬(010-5165-5363)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 태평무(왕/이성원, 왕비/정진희, 군무/황선희, 김주령, 김동숙, 오숙례)

:: 동래학춤(춤/황동하)

:: 흥타령(춤/안주희, 최의옥)

:: 멋든춤(춤/이현숙)

:: 무천의 춤(춤/서현미, 박상용, 장영진)

:: 성주허튼춤(춤/이현정)

:: 분홍할미꽃(영감/장래훈, 할미/이현주, 제대각시/김경미)

※ 안무 및 구성/홍기태

※ 해설/이현숙

:: 조플린/영화 '스팅' 중 '엔터테이너'

:: 바흐/G 선상의 아리아

:: 거슈윈/리듬을 타며

:: 거슈윈/소중한 당신

:: 이지수/드라마 '봄의 왈츠' 중 'Flying Petals'

:: 맥린/차르다시

:: 하이드리히/생일 축하 변주곡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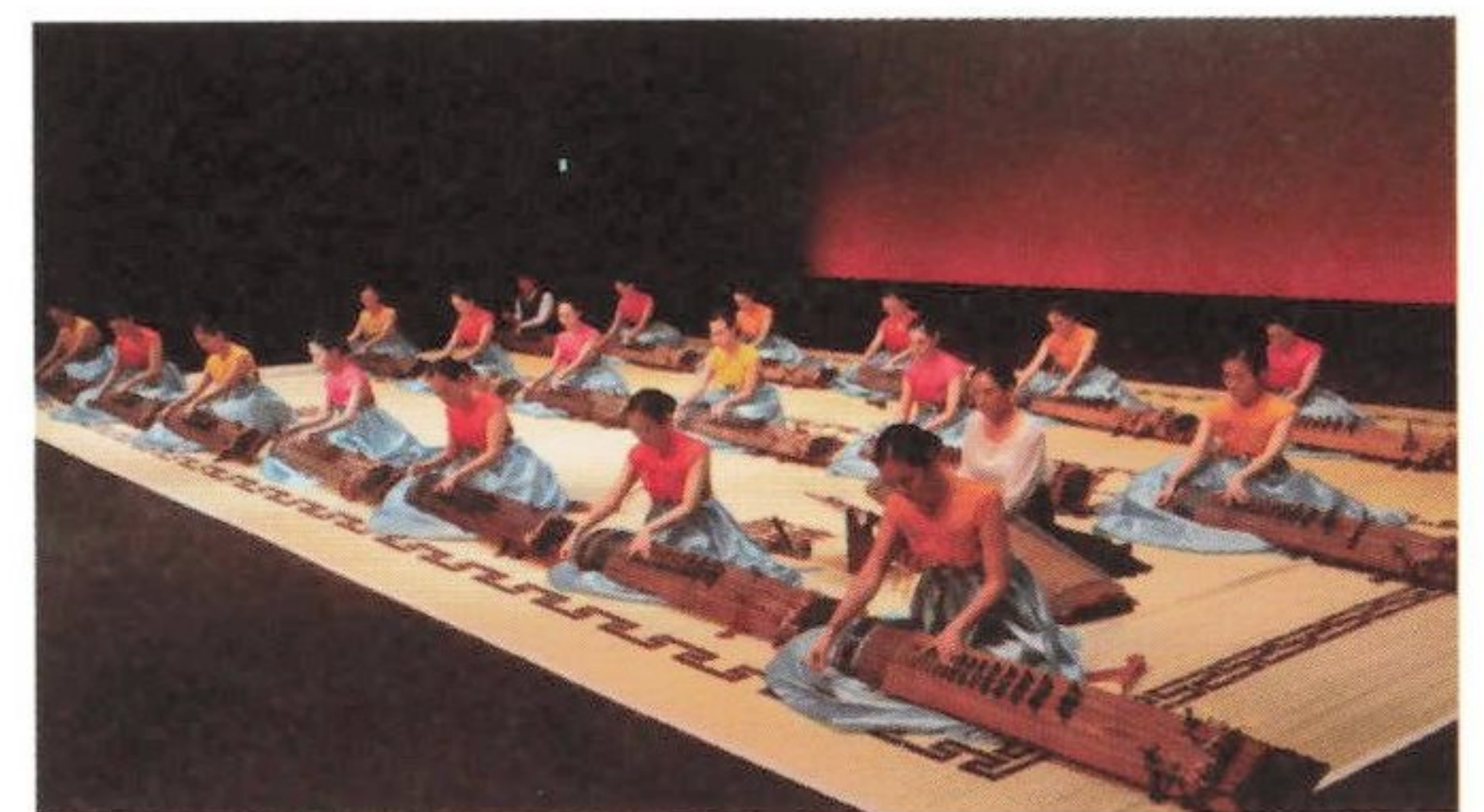
:: 엄기엽/드라마 '황진이' 중 '영귀바람'

::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제1악장

※ 연주/현악4중주 Grace Quartet(ViolinI, 김나영, ViolinII, 이혜진, Viola, 정희경, Cello, 최지예)

부산거문고악회 연주회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프로그램

:: 동살푸리(거문고/부산거문고악회회원, 장구/하정희)

::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제주(거문고/부산거문고악회회원, 장구/하정희)

:: 단소산조(단소/박성주, 장구/하정희)

:: 강봉천/아이소리(거문고1/김명희, 송다솔, 김아람, 거문고2/이혜영, 이선주, 차근혜)

:: 작은별주제에 의한 변주곡(거문고1/김명희, 송다솔, 김아람, 거문고2/이혜영, 이선주, 차근혜, 피아노/이은경)

:: 아리랑 & 어메이징그레이스, 문리버, 10월의 어느 멋진날(거문고/권은영, 피아노/이은경)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작품 136 중 제1악장

::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부산문화회관(607-6056)

MUSIC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1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산조(가야금, 대금, 아쟁), 가곡(남창, 여창, 남여창), 승전무 중 '칼춤', 가야금병창, 태평무, 동부 민요, 설장구가락

▶8일 프로그램

삼고무, 판소리 입제창 '사랑가', 해금 중주, 통영교방 진춤, 동래한량춤, 경기민요, 부채춤, 국악관현악 '프런티어', 국악관현악 '판굿과 관현악'

▶15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남도잡가 아카펠라 '새타령', 동래학춤, 대금독주 '상령산', 강강술래, 영남들노래, 밀양백중놀이, 사물놀이

▶22일 프로그램

창작모듬북 '난타', 창작무용 '부(釜)의 신명', 창작 '부산아라' 중 '홍련의 노래+사랑의 춤', 창작 국악관현악 '신모듬'(박범훈 곡), 창작무용 '풍장놀이' 등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제 18회 동요사랑 큰잔치

10월 3일 월요일 오후 5: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4년 창단된 후 어린이 동요문화를 주도해온 창작 동요단체인 동요사랑회가 매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하는 창작동요의 밤. 작곡가 류지원(동요사랑회 회장), 신진수, 한수성, 우덕

상, 오희섭, 조혜진, 안진현, 석광희 등 중견작곡가들의 창작동요를 만날 수 있다.

반주/동요사랑 실내악단

관람료 무료

문의 류지원(010-3864-9889)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4일 김주연의 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 무용단 단원으로 있는 김주연의 춤.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 살풀이춤 전수자로 있는 김주연은 제 29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에

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11일 한무전통예술단 '예가 & 예가'

우리 전통을 전승, 계승해온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부산지회 산하 한무전통예술단의 무대.

▶18일 해금중주단 '천궁'

김소현, 박미경, 백민경, 유영호로 구성된 해금중주단 '천궁'이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해금양상불 무대를 선사한다.

▶25일 이문희 가야금 독주회

청주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 및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8호 가야금산조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문희 가야금 독주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6,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제 8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를 위한 음악회

10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허미경, 테너 김경, 베이스 이상철, 피아니스트 김혜숙, 이숙애, 바이올리니스트 문수경이 들려주는 가을밤의 음악향연.

지휘/손명균(상임지휘자)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890-2411~2)

박윤정 피아노 독주회

10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한양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이태리 Arts Roma International 아카데미 최고연주자과정, 로마 AIDM 아카데미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윤정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K.331 가장조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14번 '월광'
쇼팽/발라드 제 1번 작품 23 사단조 등

관람료 초대

문의 박윤정(010-9878-1973)

바리톤 박기국의 두 번째 이야기

10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 라몬울 대 전문연주자 석사과정, 바르셀로나 루피에르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바리톤 박기국 독창회.

피아노/임보라

찬조출연/테너 장진규, 라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
특별출연/수경어머니합창단 · 해설/김윤선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기국(010-9944-8825)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5일 3인 음악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정희경과 김선화, 소프라노 이승운이 함께하는 3인 음악회.

· 특별출연/부산혼양상블

▶12일 김은정 바이올린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서울바로크합주단,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

대에 서온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 독주회.

· 피아노/박선화

▶19일 3테너 홍지형, 김지호 & 장원상의 가을선물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 홍지형, 김지호, 장원상이 가을의 서정을 노래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강혜숙

▶26일 신은숙 & 오현정 Piano Duo Concert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미국 이스트만음대 석,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베리타스 앙상블 멤버로 활동중인 신은숙과 미국 피바디음대와 이스트만음대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오현정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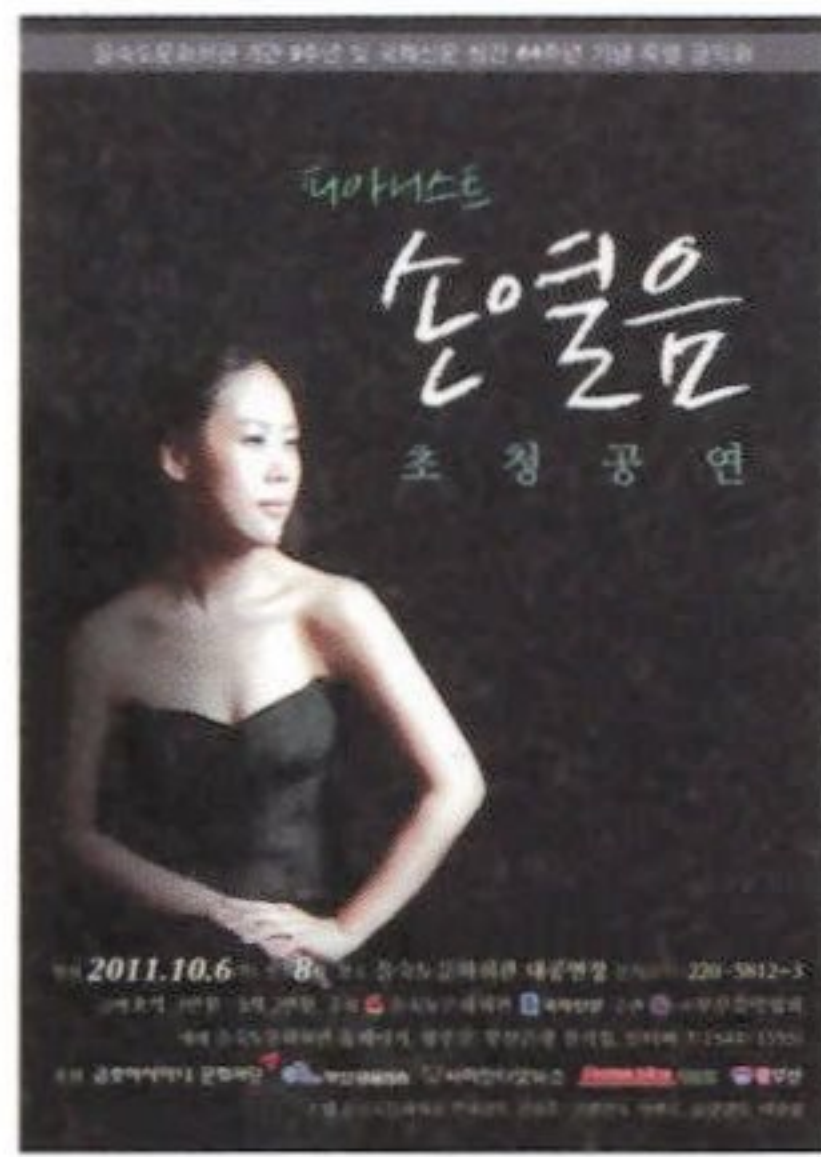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손열음 초청공연

10월 6일 목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2위 입상으로 화제를 모은 천재 피아니스트 손열음 초청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하노버국립음악대학에 재학중인 손열음은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단원



으로도 활동중이다.

::프로그램

슈만/유모레스크 작품 20

리스트/스페인광시곡

차이코프스키/녹턴 제 4번

작품 19 등

::관람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제 8회 선소리 산타령 보존회 부산경남지회 정기공연-김경민 예약의 길 33년 김경민 제자발표회

10월 6일 목요일 오후 7:00 >>> 시민회관 대극장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중요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 산타령과 경기민요를 부산에서 전승, 보급하고 있는 (사)선소리 산타령 보존회 부산경남지회 김경민 지회장의 제자들이 경기민요와

서도민요, 회심곡, 선소리 산타령 등을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 의 김경민(070-8200-2933)

크루즈 공연 '부산아라'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1: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삶을 살아온 부산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와 춤으로 엮은 가무악희(歌舞樂戲) 총체극 '부산아라'.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 아트카페 움

▶6일 남성4중창 솔리스트들의 만남

테너 이승우, 박훈,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김정대가 가을과 어울리는 우리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가요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13일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비르투오조앙상블, 아이리스 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의 바이올린 독주회.

· 피아노/김민선

▶20일 재즈와 이야기하기

문화웹진 아트앤소울 필진으로 활동중인 김현명의 해설로 재즈의 역사와 뮤지션을 재미있고 쉽게 알아보는 재즈와 이야기하기.

▶27일 피아니스트 최혜련의 해설과 함께하는 정통 클래식 피아노 페스티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통 클래식곡을 쉬운 해설과 생생



리셉션·식사·각종모임 예약 80석

MOZART

모짜르트 레스토랑

영빈관 맞은편 1층
예약문의. 051) 622-1456

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해설음악회.

· 연주/정지은, 김지민, 이혜진, 박주희, 하수산나, 고아라

::관람료 무료

::문 의 아트카페 움(557-3369)

제 7회 창작관악곡연주회

10월 7일 금요일 오후 6:00 >>> 시민회관 대극장



박규동



태미

한국관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가 매년 마련하는 창작관악곡의 밤.

황령산 봉수대의 위엄과 정상에서 바라본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표현한 박규동 곡 '황령산 봉수대'와 해운대의 화려함 뒤의 공허함을 그려낸 태미 곡 '해운대 노을지다' 등 두 편의 창작곡과 관현악 명곡을 들려준다.

:: 출연팀

예원여자고등학교, 동성 Dream 윈드오케스트라, 잼 색소폰 앙상블,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3,000원

::문 의 전이동(010-2705-0366)

울속도문화회관 해피콘서트

10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1992년 창단된 후 정기연주회와 부산합창제, 사랑의 나눔음악회, 자선오페라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콘서트콰이어 초청 무대.

::관람료 균일 2,000원

::문 의 울속도문화회관(220-5812~3)

영화음악 ∞ 음악영화

10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7:00

>>> LIG아트홀_부산

영화 속에 직접 등장하는 '필연의 음악'과 영화 촬영 현장에서 채취한 동시녹음 소스를 작곡의 소재로 이용한 '우연의 음악'이 한 무대에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영화감독 홍상수, 이송희일, 박찬경의 영상과 음악감독 정용진, 조브라운, 이태원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조우한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LIG 문화재단(1544-3922, 661-8701)

작곡단체 'An-ti Stimmung' 관현악과 함께하는 창작음악의 과거, 현재, 미래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작곡단체 'An-ti Stimmung'의 결성 1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작곡가 故 이상근 선생을 비롯해 회원들의 다양한 창작 관현악곡을 들려준다.

· 작곡/진소영, 주창근, 정지영, 정수란, 김유리, 박기섭, 진영민, 이상근, 조희주

· 연주/킹 데이빗 오케스트라 · 지휘/박부국

· 협연/김지혜(바이올린), 최민경(피아노)

::관람료 초대

::문 의 주창근(010-3139-1719)

조영란 동초제 심청가 완창발표회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제 7회 여수국악대전 판소리 신인부 장려상, 제 7회 순창전국국악대전 우수상, 제 3회 담양전국죽향국악대전 대상을 수상한 소리꾼 조영란의 동초제 심청가 완창발표회.

::관람료 무료

::문 의 조영란(010-3852-1672)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산상음악회 흐린 가을하늘에 편지를 써

10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 해운대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깊어가는 가을정취를 아름다운 노래선율에 담아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 야외음악회.

2011년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광석 노래와 팝음악으로 지난 시절 아련했던 추억 속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김광석의 노래 하나/거리에서, 내 사람이여, 사랑했지만
팝합창 하나/Don't forget to remember, Let me be there, Cotton fields

김광석의 노래 둘/서른 즈음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날들, 일어나 등 수록

· 지휘/김강규(수석지휘자)

· 협연/김진훈(드럼), 홍광현(기타), 김정태(기타)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영화의전당 개관 축하공연 제 3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10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 영화의전당 BIFF Theater 야외극장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의 여신 김지연, 따뜻한 감성의 프리마돈나 박정원이 영화의전당 개관을 기념해 축하무대를 펼친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1812년 서곡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안익태/한국환상곡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소프라노 박정원, 남성 앙상블 부산 10 Tenors, 버숨새예술단, 부산연합합창단

:: 관람료 무료(인터넷 www.knn.co.kr 신청)

:: 문의 KNN(1577-7600)

동래문화회관 토요일콘서트

10월 8일(토), 22일(토) 오전 11:0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8일 아트피아 트리오 '피아졸라 탱고음악회'
가을의 음색과 가장 달은 탱고와 피아노 트리오의 만남으로 여인의 향기, 오버 더 레인보우, 플라이 투 더 문, 리베르탱고 등 주옥같은 탱고곡을 들려준다.

▶22일 크로스노트 '재즈&팝'
힘있고 화려한 정통재즈는 물론 팝과 대중가요를 재즈로 편곡한 친근한 사운드로 사랑받고 있는 크로스노트가 신나고 흥겨운 재즈와 팝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제 5회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월 9일 일요일 오후 3:0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광남초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전문 연주인 및 학부모 후원회로 구성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Antonin's New World, 동요메들리 '고향의 봄, 초록



빛바다, 나뭇잎 배, 새싹들이다', 차이코프스키 '왈츠', 아바 메들리, 오페라의 유령 주제곡 등 수곡

· 지휘/윤강수

:: 관람료 초대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교사오케스트라 제 16회 정기연주회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5년 부산지역 교사들로 결성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교사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주페/경기병서곡
모차르트/호른협주곡 라단조 작품 412
드보르작/교향곡 9번 마단조 작품 95

· 지휘/김진연(부산대학교 교수)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교사오케스트라(011-9512-3290)

소프라노 공경자 성가 독창회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고신대학교와 대구효성가톨릭대학원, 미국 퀸스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공경자 성가 독창회.

· 피아노/김남숙(고신대학교 교수)

· 찬조출연/조윤환(테너),

권영기(베이스), 강혜덕(피아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 7회 정승찬 플루트 독주회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고신대학교 기악과와 오스트리아 Haydn Musik konservatorium을 졸업하고 빈 시립음대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주자로 활동한 바 있는 플루티스트 정승찬 독주회.

:: 프로그램

텔레만/12 판타지아

바흐/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WV 1035

도플러/헝가리 전원환상곡 작품 26 등 수곡

· 플루트/한유주 · 피아노/고은경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정승찬(010-2557-6643)

http://www.glovil.org / mail:glovil@paran.com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벌아트홀이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1. 10. 8 (토)

국제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 부 문 : 피아노, 작곡, 성악, 현악, 관악, 실내악, 중창, 국악, 실용음악
- 대 상 : 유·초·중·고(재수생포함) · 대학 일반(전공부 및 비전공부)
- 접 수 : 8월 22일~10월 1일
- 접수처 : http://www.contest.co.kr(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 051-599-5995, mail:glovil@paran.com *상세한 사항은 www.glovi.org에서 확인
- 과제곡 : 자유곡 1곡 (단 피아노부문 중 중등부 고등부는 에튀드 1곡 외 자유곡 1곡 성악부문 2곡 *작곡 및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시 상 : 전체 대상 부산대학교 총장상 / 글로벌아트홀 관장상
부문별 최우수상 각 부문별 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교육공로상 우수지도자상 우수학원상
- 수상자 특전 : 전체 대상 개인연주회 개최 / 유학 오디오선용 CD DVD / 국제콩쿨 CD DVD 제공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입상자 연주회 개최 / 글로벌아트홀 대관시 50% 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3호선 4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뜨 사이길로 직진 도보 4분)
☎ 051-505-5995 Fax. 051-505-5935 약도 : 홈페이지 참조

제 3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음악회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신정순



고봉수

부부성악가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가 함께하는 부부음악회 세 번째 무대.

신정순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대구 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원, 이태리 베아첸자 국립음악원을, 고봉수는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 및 Orfeo 아카데미 등을 졸업하고 현재 M&M성악연구회 회장,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해운대 노엘여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찬조출연/고충진(클래식기타), 신정성(첼로)

::관람료 초대

::문의 고봉수(010-4434-6605)

울속도 명품콘서트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8:0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안나 쉘류드코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 2번을 들려준다.

· 연주/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 협연/안나 쉘류드코(피아노, 신라대학교 교수)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부산색소폰콰이어 제 5회 정기연주회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05년 색소폰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색소폰콰이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이웃을 위한 음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신재현(010-4748-7163)

제 6회 우리 시 우리 노래 부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다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한국 창작가곡의 보급을 위해 시인과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가 마련하는 우리 시 우리 노래 여섯 번째 무대.

::프로그램

김성덕/도토리

김경운/동백꽃 연가

전세용/사랑의 추상화

우덕상/오륙도

이강산/해운대에 가면 등 수곡

· 연주/소프라노 방미애, 변향숙, 송윤경, 테너 장진규, 베이스 김태형, 손욱, 엔젤어린이중창단, 단비울 남성중창단, 미즈챔버콰이어

::관람료 초대

::문의 김성덕(010-4541-8576)

장일범과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냉정과 열정 사이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KBS 1FM '가정음악' DJ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영롱한 음색으로 각광받는 피아니스트 양성원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베토벤, 쇼팽, 리스트, 슈만, 히나스테라의 음악 속

열정과 냉정의 선율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울속도문화회관(220-5812~3)

토요뮤직점프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모든 것을 강물에 실어...'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0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로 작곡가 심보경의 창작곡 'A Sunfrops', 보헤미아의 역사와 전설을 담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등을 들려준다.

· 협연/장철근(바이올린)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금정문화회관 명품기획공연 실내악시리즈 III 3인 思色, 가을을 느끼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양경아

서성은

김세희

미국 맨하탄음대, 메릴랜드 주립대학(박사)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와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연소 입학 및 수석졸업) 및 동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첼리스트 서성은, 미국 줄리어드 음대 및 동 대학원, 캐나다 왕립학교, 글렌골드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세희 등 3인이 들려주는 피아노 트리오의 밤.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트리오 제 4번 '거리의 노래'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6)

**제 2회 명호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가을 그리고 사랑의 노래**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4:30

>>> **울숙도문화회관 대강당**



명호중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명호여성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강서구청 초청연주회, 명지동 주민을 위한 음악회, 휘선합창제 영남대회,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류지원(010-3864-9889)

**플루티스트 김인호가 들려주는
일곱 번째 행복이야기
나눔, 섬김, 그리고 감사...**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음악전공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장학회 '프레멘토 서포터즈'의 장학기금 결성을 위해 마

련한 플루티스트 김인호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김인호는 비전21 오케스트라,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찬조출연/이채희, 장현우(플루트), 이연정(피아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프레멘토(017-554-7777)

**부산신포니에타 특별연주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가 이끄는 부산신포니에타가 매년 청소년 유망주들을 위해 마련하는 협주곡의 밤.

· 지휘/박광식

· 협연/진예빈(피아노, 부산예고 1년), 정재현(피아노, 부산예중 3년), 신가영(플루트, 부산예고 1년), 이현지(플루트, 금양중 3년), 이화영(플루트, 부산예중 3년), 박소라(바이올린, 사직여중 3년), 임정민(바이올린, 부산예중 1년), 강나혜(바이올린, 부산예중 1년)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영희(010-8519-0448)

**2011 사랑의 콘서트
안치환과 클래식 만남**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4년 부산시민들이 결성한 국제구호단체인 '한끼의



식사기금'이 가난한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나눔콘서트. 부산지역 음악인들이 출연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삶이 담긴 노랫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안치환이 무대에 선다.

· 출연/안치환(가수), 조현미(바이올린), 고충진(클래식 기타), 이상창(플루트), 이윤정(소프라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한끼의식사기금(731-7741~2)

**제 61회 한낮의 유U; 콘서트
앙코르! 뮤지컬 갈라!**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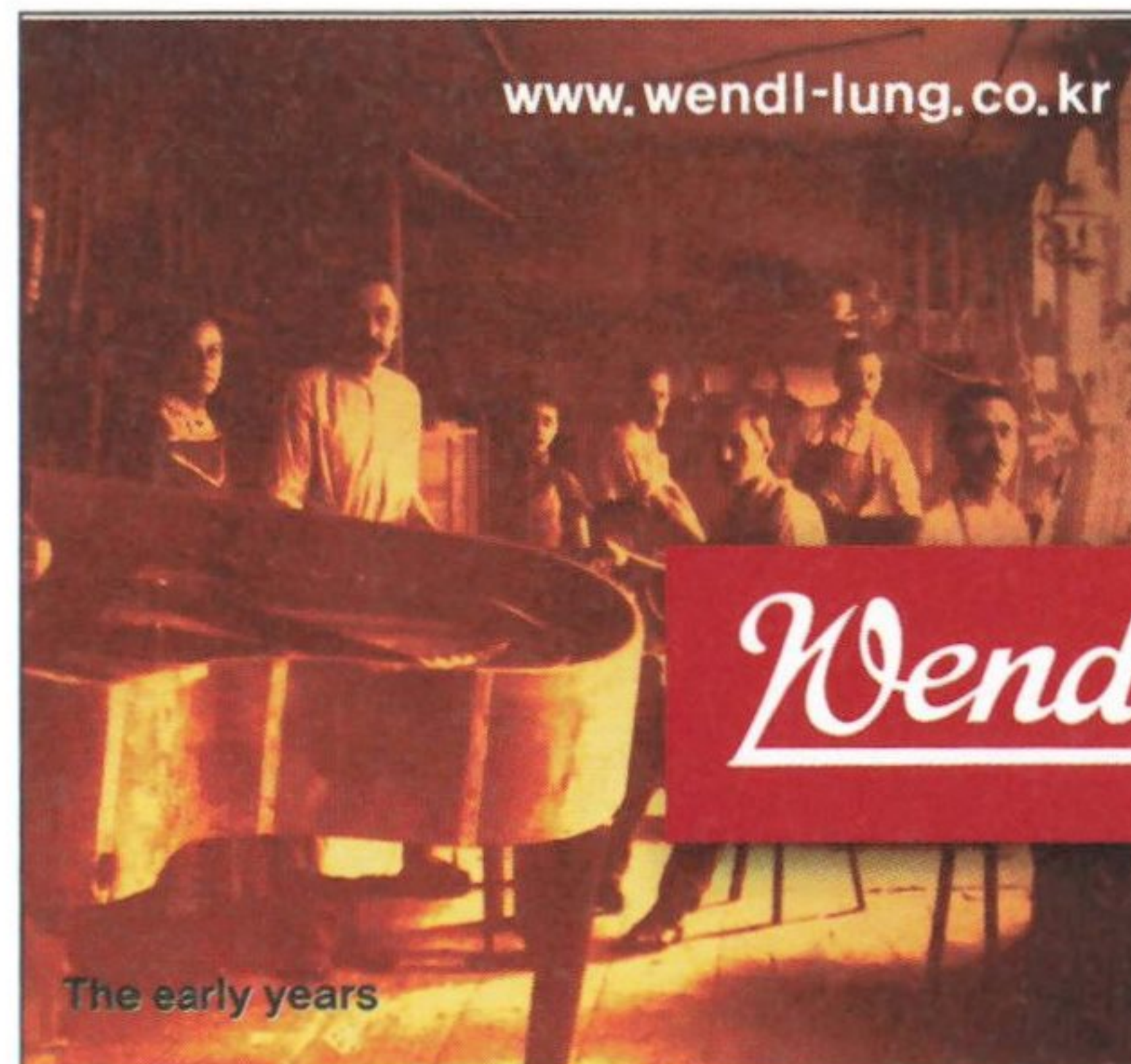


2009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2010 골든티켓 어워즈 뮤지컬배우 부문 티켓파워상, 2010 SBS연기대상 특별기획 부문 여자조연상 등을 수상한 뮤지컬배우 홍지민과 뮤지컬팀 '힐즈'가 함께하는 뮤

지컬 갈라무대.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국제신문사(500-5522)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제 6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비르투오조 앙상블 초청무대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8: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비르투오조 앙상블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관람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동래문화회관(550-4481)

부산신포니에타 제 76회 정기연주회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전명희



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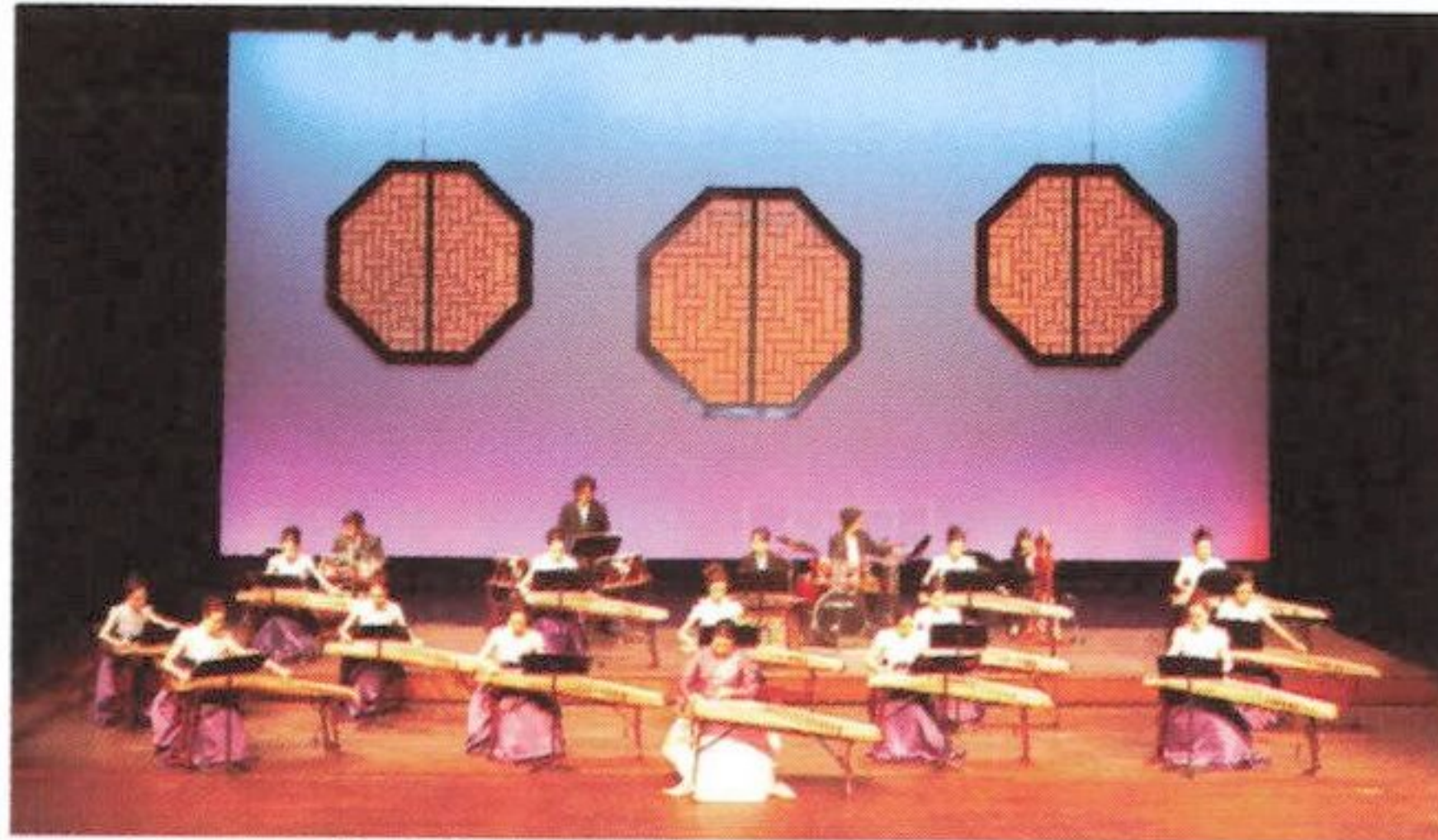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수준높은 무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잡은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퍼셀/모음곡
비발디/‘사계’ 중 ‘가을’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
· 지휘/박광식
· 협연/전명희(첼로), 황지원(바이올린)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 의 김영희(010-8519-0448)

일파가야금합주단 창단 15주년 기념공연 한·중·일 ‘현의 축제’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1996년 창단 후 가야금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힘써 온 일파가야금합주단이 창단 15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현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 고쟁,



소(蕭), 고토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향제줄풍류 중 ‘세환입’, 고쟁독주 ‘高山流水’, 고토독주 ‘기차고っこ, 初戀’, 현의 축제 등 수곡
· 단장/장혜숙 · 해설/장명화
· 독주/권은영(거문고), 지웨이(고쟁), 카다오카 리사(고토), 천사샤(소)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일파가야금합주단(582-9119)

제 1회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축제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각 구별 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하는 소년소녀합창제.

::출연단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중구아라어린이합창단,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기장리틀싱어즈
::관람료 균일 2,000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제 2회 호엔 피아노 듀오연주회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 글로벌아트홀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지닌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도전하는 듀오무대.

· 특별출연/부산대한적십자합창단
::관람료 무료
::문 의 호엔피아노(333-1558)

소리꾼 장사익과 함께하는 불가리아 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시민회관 대극장



우리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과 깊이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15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가리아 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 지휘/김민석(Filmonica Botosani of Romania 지휘자)
· 협연/박경숙(해금),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관람료 VIP 70,000원 · R석 60,000원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문 의 (주)WSM(1566-5490)

제 4회 정선희 판소리 독주회 창작판소리 ‘열사가’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2호 ‘정정열제 춘향가’ 이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소리꾼 정선희의 창작판소리 무대. 故 박동실-故 김동준-이 성근 선생으로 이어진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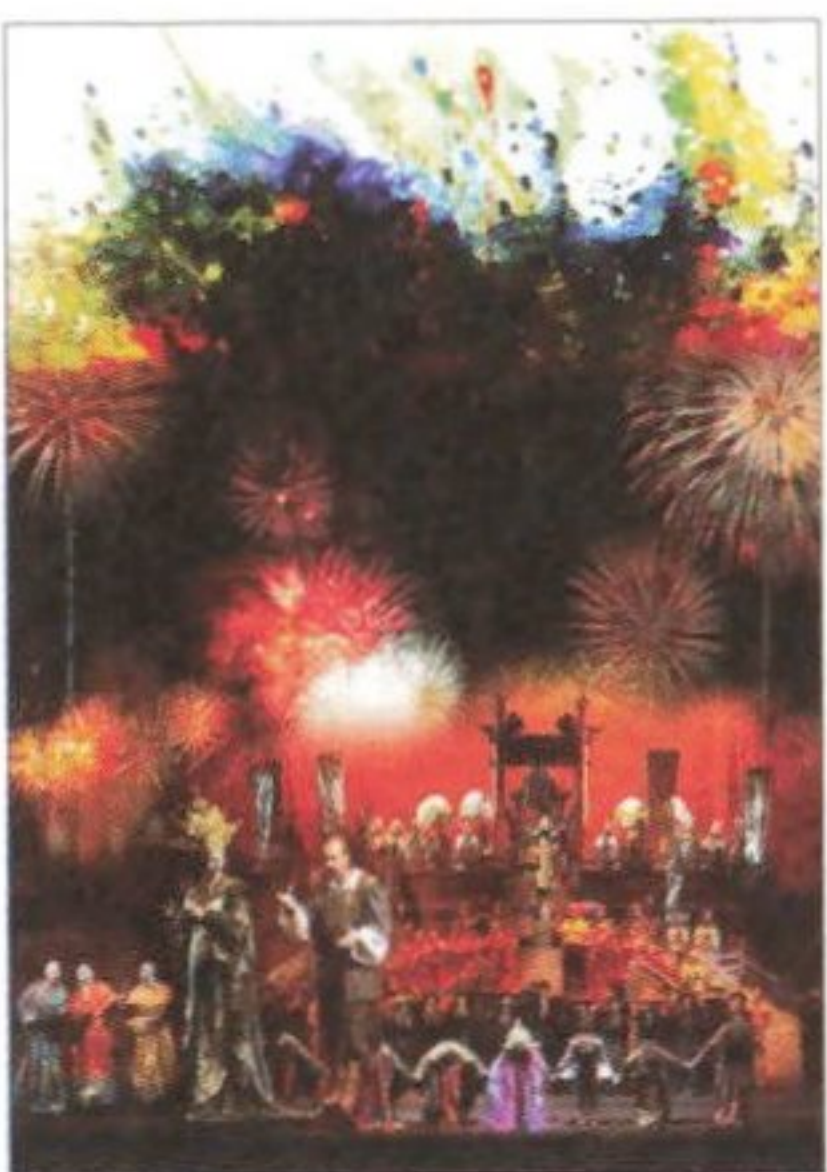
동실제 ‘열사가’를 부산의 작곡가 강봉천이 창작편성한 ‘열사가’는 이준, 안중근, 윤봉길 등 독립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 창작판소리이다.

· 사회/배양현(부산대학교 교수) · 교수/신호수
· 작곡/강봉천 · 영상/김희진
· 연주/실내악단 고성방가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정선희(010-45443169)

부산세계불꽃축제 야외오페라 '투란도트'

10월 23일-24일 일-월요일 오후 7:30

>>> 광안리해수욕장 특설 야외무대



광안리 밤하늘을 수놓는 환상적인 불꽃과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 '투란도트'. 이탈리아 바리시의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 페트루첼리 국립극장이 제작한 환상적인 무대와 의상,

투란도트의 전설 크리스티나 피페르노, 라 스칼라의 주역가수 프란체스코 아닐레 등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예술총감독/이소영 · 지휘/잔나 프라타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인천오페라합창단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 A석 70,000원
B석 50,000원 · C석 30,000원

문의 술오페라단(1544-9373)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9주년 기념음악회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뉴프라이모케스트라가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 및 영화 OST를 들려주는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9주년 기념음악회.

- 지휘/임준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즐거움이 넘치는 October**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드라마 주제곡을 국악양상블로 들려주는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8년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부설 청소년리코더합주단으로 발족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향상음악회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해온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 특별출연/남문초등학교 리틀중창단

관람료 무료

문의 황해숙(010-6552-2989)

**부산시민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제 46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이리나, 정성흡 듀오 리사이틀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이리나



정성흡

미국 줄리어드 음대와 영국 왕립음악원, 메네스음대 석사 및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와 미국 줄리어드 음대, 뉴욕주립대 대학원 및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획득하고 현재 iTrio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정성흡 듀오 무대.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악기시 www.piano123.co.kr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 556. 9410

051)758-5450,5445

■그랜드피아노(전공자용, 연주용) 조율, 수리, 대여, 리빌더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PLAY

2011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2'

8월 19일(금)-10월 30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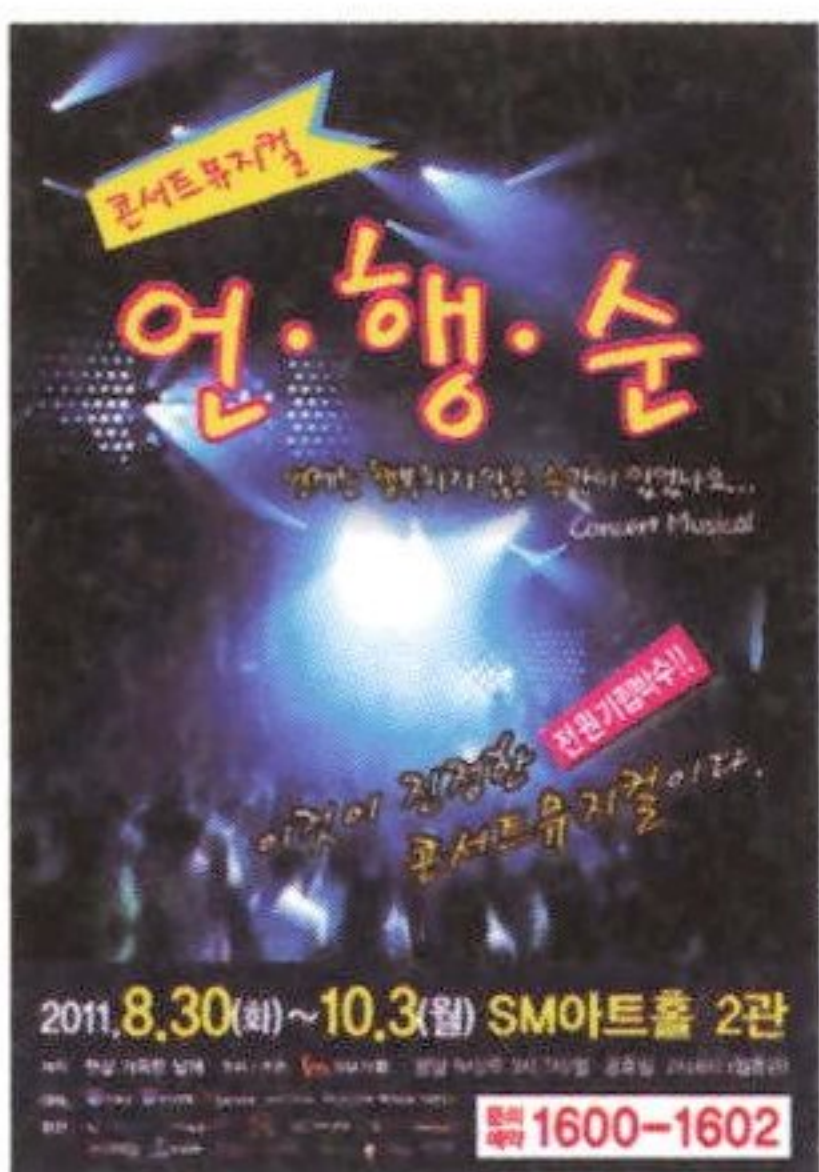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2'.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콘서트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8월 30일(화)-10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 SM아트홀 2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관람료 균일 35,000원 (예매시 5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연극 '극적인 하룻밤'

9월 16일(금)-10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두 남녀의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에서 시작된 발칙한 사랑을 시종일관 직설적으로 그려낸 작품.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폭소 코메디연극 '허둥 9단의 바라 바라'

9월 20일(화)-10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개그콘서트에서 '허둥 9단'으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허동환의 폭소 코메디극.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지껄이다(chat on love)'

9월 28일(수)-10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10/9일 공연없음) >>> 가마골소극장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를 원작으로, 음악적, 극적 구성을 유지하면서 재기발랄한 21세기적인 문법으로 재해석한 로맨틱 뮤지컬.

· 작, 연출/이채경 · 작, 편곡/강중환
· 출연/김용래, 배보람, 박정무, 경제미, 박인화 외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중고 15,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정글포스'

10월 1일-2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 KBS 부산홀

악의 무리 오르그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지구의 평화를 지키려는 파워레인저 정글포스의 활약을 그린 어린이 액션 라이브쇼.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매직&버블쇼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신기한 마술쇼와 환상의 버블쇼가 함께하는 매직버블쇼.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국악체험놀이극 '호랑이를 만난 놀부'

10월 5일-6일 수-목요일 오전 10:10, 11:2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전래동화에 판소리, 민요, 탈춤을 접목시켜 다양한 장르의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제작된 국악체험놀이극.
관람료 균일 15,000원(예약필수)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10월 5일(수)-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휴관) >>> SM아트홀 1관

돈과 사랑 앞에서 갈등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두 형제도둑의 좌충우돌 러브 버라이어티 '도둑놈 다이어리'.
관람료 균일 30,000원(예매시 5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로맨틱 코믹뮤지컬 '러브홀릭' 그 두 번째 이야기

10월 6일-7일 목-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4:00, 7: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10월 11일(화)-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휴관) >>>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영동발랄한 커플매니저 큐피트와 함께 인연을 찾아나선 서른을 앞둔 평범한 남자 조반희의 좌충우돌 사랑찾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뮤지컬.

· 작, 안무/오리라
· 연출/장우성

· 총예술감독, 작, 편곡/김수진

· 출연/신현규, 조애리, 김수현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245-0042)

연극 '웨딩드레스'

10월 7일(금)-11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수요일 공연없음) >>> **미리내 소극장**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사는 엄마와 나이 마흔이 넘도록 시집도 가지않은 노처녀 딸의 이야기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과 안쓰러움을 따뜻하게 그려냈다.

· 작/유진월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옥순주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판타지복합극 '피터팬'

10월 11일-12일 화-수요일 오전 10:10, 11:20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7일 월요일 오전 11:00, 18일 화요일 오전 10:10,

11:2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피터팬과 함께 떠나는 꿈과 환상의 모험 이야기가 다양한 컬러 그림자극과 인형극, 배우들의 연기속에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예약필수)

::문의 dubu기획(02-2654-6854)

뮤지컬 '개미와 베짚이의 사계'

10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전 10:10, 11:2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이솝우화 '개미와 베짚이'를 새롭게 각색, 베짚이의 생태와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를 영상과 인형극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관람료 균일 15,000원(예약필수)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젊은공연예술축제 2011

10월 14일(금)-11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 **공간소극장**



기량이 뛰어난 젊은 공연 예술가들을 초청, 예술작품의 창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젊은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의 장을 펼치는 젊은공연예술축제 2011년 무대.

▶10/14일(금)-16일(일) 극단 구미레퍼토리 '자-살+자' 마술과 마임이 어우러진 코믹 드라마로, 2011 부산국제연극제 참가작, 2011 공간소극장 인큐베이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자-살+자'.

· 작/신슬기 · 연출/황윤동

· 출연/김종석, 황은주, 김재경

▶10/21일(금)-23일(일) 푸른연극마을 '너무 놀라지 마라'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출가이자 작가로 평가받는 연출가 박근형의 작품을 재조명한 작품.

· 작/박근형 · 연출/오성완

· 출연/이당금, 김명대, 정일행, 이정교, 정봉관

▶10/28일(금)-30일(일)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삼등병' 대학로에서 가장 주목 받는 30대 연출가 성기웅이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젊은 시절 누구나 겪는 군대생활을 그린 작품.

· 작, 연출/성기웅

· 출연/박혁민, 김성현, 이현균, 김태훈

▶11/4일(금)-6일(일) 극단 한울림 '호야 내새끼'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순수한 청년 호야와 그의 늙은 부모, 주변 사람들이 펼치는 따뜻한 감동이 있는 창작극.

· 작/김하나 · 연출/정철원

· 출연/석현오, 최우정, 김지영, 임홍조, 이원희, 김지수

▶11/8일(화)-16일(수) 평일 오후 8:00, 금-일요일

오후 3:00, 8:00 극단 시나위 '휘투타'

화랑도의 근원을 소재로,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금강승 불무도'에 전통 타악기와 樂을 접목시킨 난버벌 퍼포먼스극.

· 작/극단 시나위 공동창작 · 연출/박상규

▶11/19일(토)-27일(일) 극단 시나위 'Love'

축망받는 일본의 젊은 연출가 타다 준노스케와 한국 배우들이 함께하는 무언극.

· 작, 연출/타다 준노스케

· 출연/백길성, 이정비, 이재우, 박재현, 김미승 외

::관람료 균일 20,000원('Love'는 균일 30,000원,

예약시 30%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연극 '가시고기'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MBC 롯데아트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 '가시고기'.

슬픔을 딛고 일어서 더욱 강인해진 배우 이광기가 아버지역을 맡아 감동의 무대를 전한다.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주)CJM엔터테인먼트(1599-3411)

가족뮤지컬 '슈퍼영웅 뽀로로'

10월 15일-1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 **시민회관 대극장**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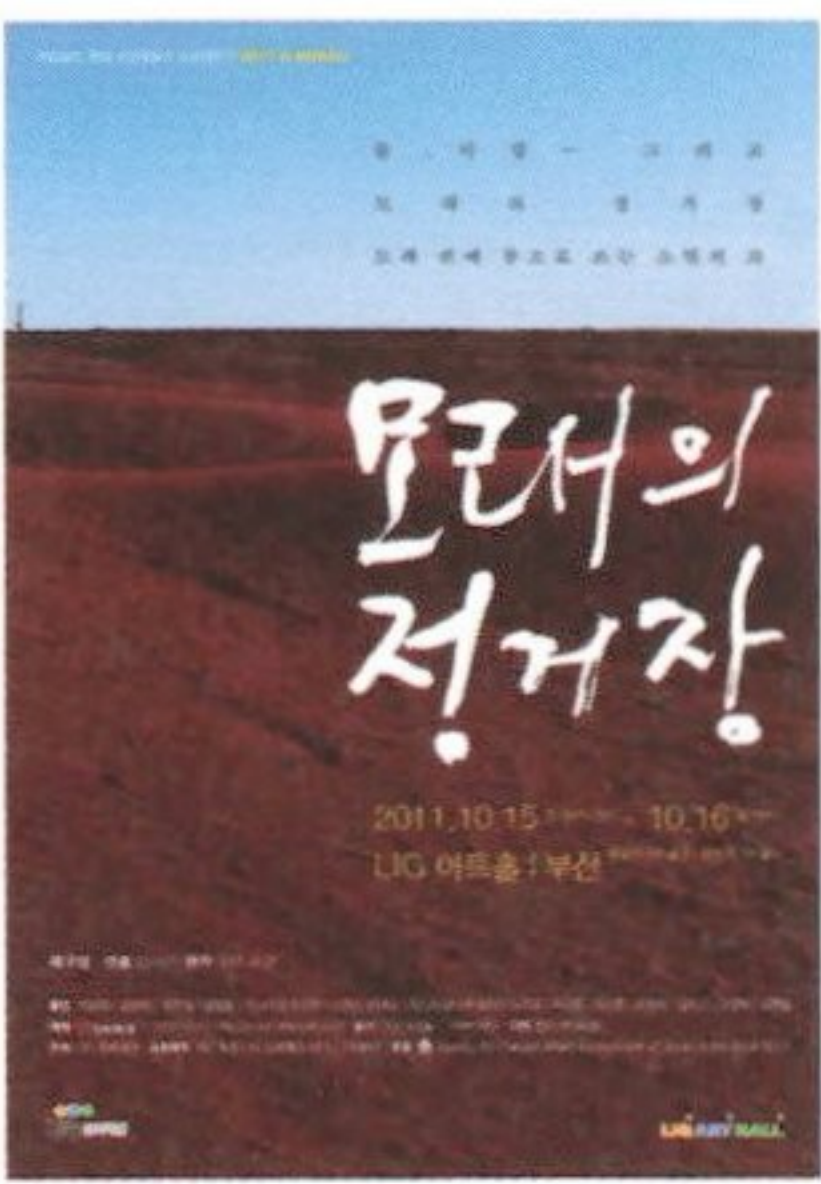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천방지축 뽀로로가 친구들의 우정 속에서 진정한 슈퍼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뮤지컬.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문의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2011년 개그판타지쇼 in 부산앵콜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 KBS 부산홀

'개그콘서트' 출연 개그맨들이 펼치는 신개념 개그버라이어티 '개그판타지쇼'.
 방송에서 큰 인기를 얻고있는 화제의 개그코너를 생생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다.
 ::관람료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예매시 5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모래의 정거장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6일 일요일 오후 4:00 >>> LIG아트홀 부산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연출가인 故 오타 쇼고의 정거장 연작에 도전, 4년에 걸쳐 선보이는 연출가 김아라의 '정거장 4부작' 중 세 번째 무대.
 무대에 펼쳐진 원형의 모래벌판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이번 작품은 시나가와 토오루, 오스기 렌 등 일본의 연기파 배우들과 백성희, 권성덕, 박정자, 남명렬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출연해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문의 LIG 문화재단(1544-3922, 661-8701)

2011 을숙도문화회관 특별기획 시리즈 뮤지컬 '프로포즈' 10월 26일-28일 수-금요일 오후 8:00, 29일 토요일 오후 5:0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소심한 A형 청년 지도층과 똑 부러지고 할말은 다하는 성깔있는 B형 여인 오빛나, 프로포즈 과정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 원작/안톤 체흠
 · 각색, 연출/이정남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극단 맥(011-232-1350)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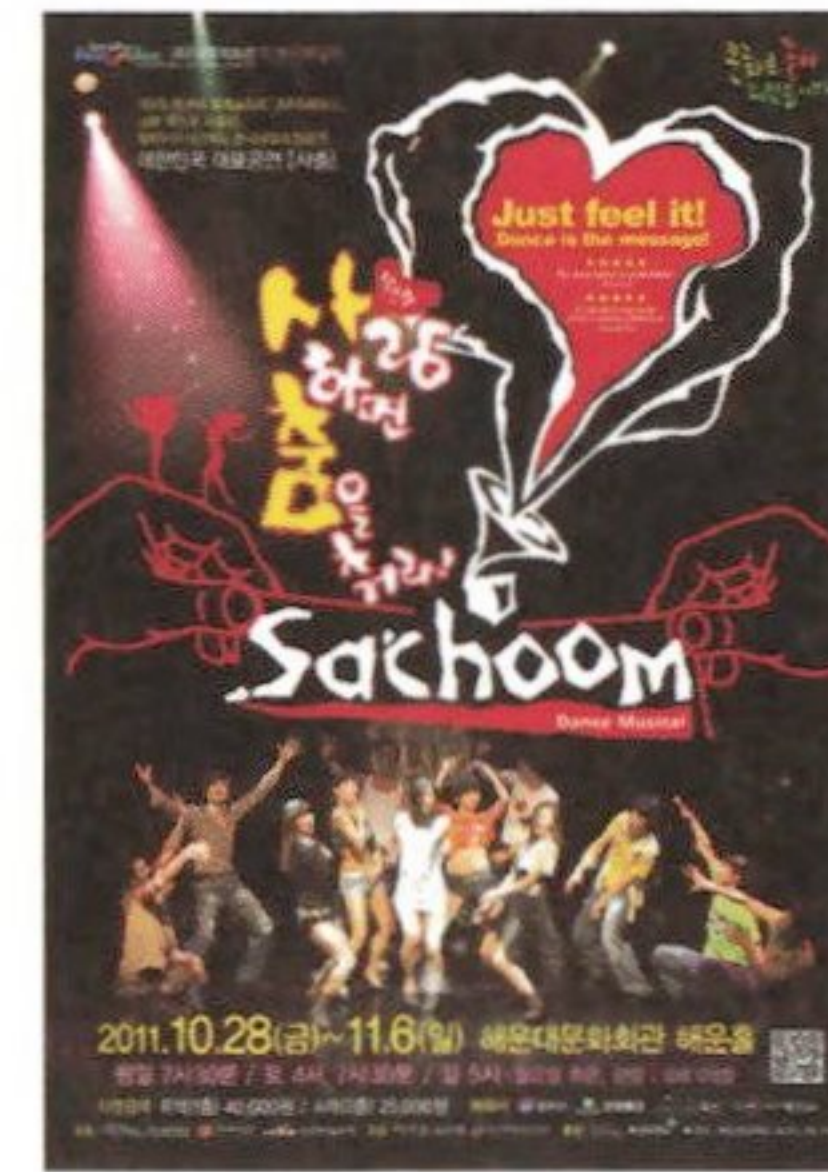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8:00, 2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 시민회관 대극장



혼자 잘나서 잘사는 줄 알던 못된 딸과 이세상에서 제일 보람있는 일이 딸을 낳은 것이라는 친정엄마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국민 배우 강부자와 전미선이 엄마와 딸 역할을 맡아 관객을 울리는 애잔하고 가슴찡한 열연을 펼친다.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예매시 1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년버벌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10월 28일(금)-11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5: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인공들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기 에피소드를 힙합과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으



로 표현한 년버벌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현대무용, 재즈, 힙합 등 장르별 춤꾼들이 선보이는 'overture'를 시작으로 흥겨운 랩과 춤이 함께하는 9가지 에피소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관람료 1층 40,000원 · 2층 25,000원
 (학생 30%, 20명 이상 단체 40% 할인)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DANCE

창단 21주년 그랑발레 정기공연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동반' 10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1년 창단 후 창작발레의 발전과 춤 대중화에 앞장서온 그랑발레 정기공연.
 ::작품
 길(안무/정두순, 출연/정미경, 서지연, 최연순, 조은비, 박소라, 양재동, 김용한, 홍사랑, 윤재성, 전국조)
 연(煙)(안무/최연순, 출연/최연순, 김이현)
 벗(안무/서지연, 출연/정미경, 김유진, 조은비, 박소라)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정미경(010-6722-7351)

정귀인 무용단 기획공연 역-기차는 0시에 떠나네-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정귀인 교수가 이끄는 정귀인 무용단 기획 공연으로 역이 지닌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인생의 여정을 되짚어본 창작춤 '역-기차는 0시에 떠나네'를 선보인다.

· 안무 및 총연출/정귀인 · 대본/송유미

· 음악/황준연, Christine Groult 외

· 특별연주/송용창, 황나리, 최소리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정귀인(010-5521-0603)

CONCERT

2011 성시경 전국투어

10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8일 일요일 오후 5: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88,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A석 5%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2011 정엽 단독 콘서트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23일 일요일

오후 5: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2011 포맨 첫 전국투어 콘서트 'The Artist'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6: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 콘서트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국내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종걸 콘서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2011 김조한 라이브 콘서트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EVENT

2011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소통(疏通)과 통섭(統攝)

10월 4일(화)-10일(월) >>>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연산자이갤러리, 센텀지하철

::문의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888-4760, www.biacf.org)

부산 시율림 시낭송회

10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미령, 배옥주, 소상보, 이채영, 전다형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예강(010-5516-1867)

제 4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00 >>> 시민회관 대극장

::문의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513-4306)

GALLERY

박은광 사진전

9월 2일(금)-10월 18일(화) >>> 토요타 아트스페이스

::문의 토요타 아트스페이스(080-855-0007)

모네에서 워홀까지

9월 7일(수)-12월 11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관람료 일반 11,000원 · 초중고 9,000원

미취학아동 5,000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6-2970)

제 2회 정충진 개인전

9월 23일(금)-10월 12일(수) >>> 대안문화공간 자인

::문의 정충진(011-9506-7231)

타워갤러리 초대 제 9회 시선전

10월 3일(월)-10월 9일(일) >>>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시원 박태후展 -자연 속으로...

10월 5일(수)-10월 16일(일)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박태홍 '바람결 · 나무결 · 숨결'

10월 6일(목)-11월 2일(수) >>> 아트카페 움

::문의 아트카페 움(557-3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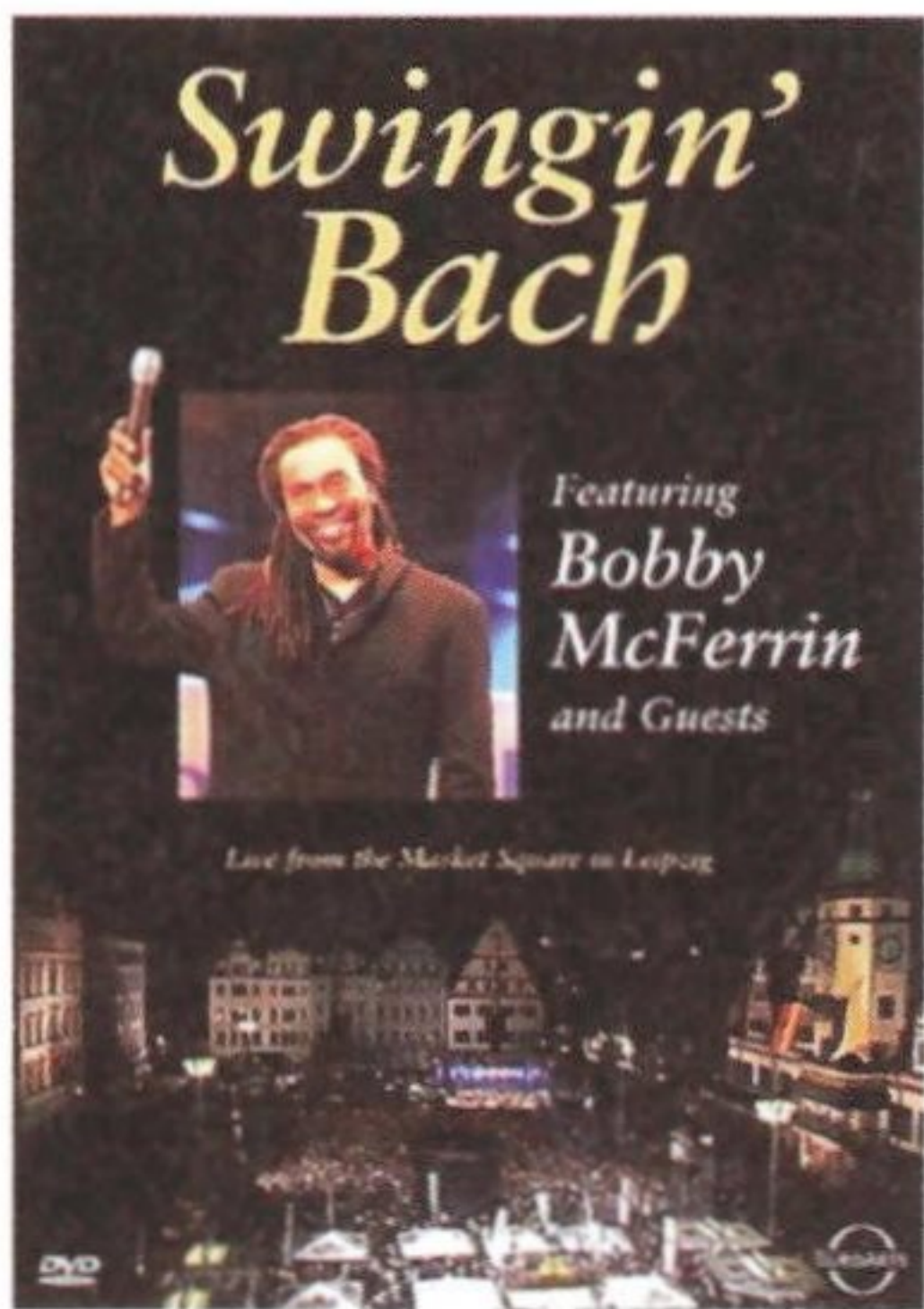
최병훈 아트퍼니처展

10월 21일(금)-12월 25일(일) >>> 조현화랑 부산

::문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활기차고 멋지게 생동하는 고전음악 종결자 바흐의 Swinging Bach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유명 작곡가의 탄생 혹은 사망 주기를 기념하며 대대적인 음악회가 개최되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경우가 가끔 있다. 올해의 경우 말러 사망 100주년과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음악당에는 말러와 리스트 음악으로 가득 찼으며, 작년에는 쇼팽과 슈만 탄생 200주년을

맞아 다른 해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두 작곡가의 작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풍성한 연주회와 더불어 음반의 제작 또한 활기를 띠는데,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었던 2006년에는 잘츠부르크 축제에서 연주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오페라 전곡이 DVD로 제작되었고, 해당 작곡가의 전곡음반이 여러 음반사에서 경쟁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뉴밀레니엄인 지난 2000년, 바흐 사망 250주년을 맞아 기일인 7월 28일에 바흐가 말년을 보냈던 라이프치히에서는 바흐의 음악만으로 색다른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바이마르 시절과 괴텐 시절을 거쳐 1723년부터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 부속학교의 칸토르에 임명된 바흐는 사망하기까지 '마태수난곡', 'b단조 미사', '음악의 헌정', '푸가의 기법' 등이 중 단 한곡만 작곡하였어도 서양음악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을만한 명곡들을 작곡하였다. 잘츠부르크가 모차르트로 인해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처럼 라이프치히 또한 바흐의 도시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라이프치히에서 바흐 사망을 기념한 음악회가 개최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음악회의 형식과 참여한 음악가들로 인해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다.

음악당이 아닌 야외에서, 그것도 청중들을 위한 의자도 없는 시장 광장에서 밤늦게 음악회가 개최되었고, 전문 음악당이 아니므로 무대이동과 연주준비를 위해 설치된 두 개의 무대에는 별

들의 잔치가 벌어졌다. 이날 바비 맥페린, 길 샴, 킹스 싱어즈, 자크 루시에 트리오, 퀴테센스 색소폰 오중주단, 터틀 아일랜드 현악사중주단, 저먼 브래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이들이 오직 바흐의 음악을 위해 모였고 정통 클래식을 비롯하여 재즈와 크로스오버 뮤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로 소화해 내어 독특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Swinging Bach'라는 연주회의 주제 또한 이 음악회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다행히 이 연주회 실황 중 2시간 정도가 DVD로 제작되었는데 영상물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토카타와 푸가 d단조'와 'G선상의 아리아'를 재미있게 편곡하여 연주한 킹스 싱어즈, '푸가 g단조'를 색소폰 5대로 멋지게 편곡하여 연주한 퀴테센스 색소폰 오중주단, 재즈가 더 바흐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균율 클리버곡집의 푸가'와 '관현악조곡 제 3번의 가보트' 등을 자연스럽게 재즈로 소화해 낸 자크 루시에 트리오, 그리고 압권은 청중들과 함께 구노와 바흐의 '아베 마리아'를 부르며 함께 바흐 음악을 즐긴 바비 맥페린의 연주였다.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된 연주회장이 아닌 시장 광장에서, 우산도 없이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연주되는 바흐 음악을 들으며 비와 바흐의 음악에 흠뻑 젖은 청중들의 얼굴 표정은 말 그대로 행복 그 자체였다. 아무리 독일 자국의 음악이라고 하지만 대중음악도 아닌 바흐 음악을 감상하며 마치 인기가수의 대중가요 콘서트 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부러웠다. 세계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우리의 음악도 다양한 변신과 의미있는 도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관련기관의 노력이 아쉬워졌다. 언젠가 한계가 없는 '마당'에서 우리의 음악이 한판 멋지게 펼쳐질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얼쭉~

악기나라 올림픽

여름방학을 맞아 외손자들이 집으로 놀러왔다. 손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마침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악기나라 올림픽’을 함께 보게 되었다. 마치 달리기를 하는 양 오래 연주하는 악기도 응원하고, 다양한 악기의 이름도 맞추면서 함께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 손자들과 같이 응원을 했다. 팜플렛에 있는 스티커로 붙이는 나만의 오케스트라 꾸미기는 손자들 뿐 아니라 어른인 나도 재미있었다.

박정희(동래구 안락 1동)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2 ‘동물원 콘서트’

잊고 지내던 아련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갔던 그 두 시간, 노래가사를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내 모습에서 마냥 어리기만 했던 20살 내 모습이 오버랩됐다. 젊은 날 아름다웠던 기억과 소중했던 나날의 추억들로 가슴 뭉클했던 시간...시청 앞 지하철 역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은 잘 살고 있을까?

정영선(동래구 명장동)

부산오페라합창단 특별기획 공연 ‘Love of Queen’

영국의 세계적인 락밴드 ‘퀸’의 결성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창작뮤지컬 ‘러브 오브 퀸(Love of Queen)’. 성악가가 부르는 락 발라드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Under Pressur’를 시작으로 ‘Bohemian Rhapsod’, ‘Love Of My Life’, ‘We are the champions’까지 퀸의 주옥같은 명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정희(남구 용호동)

뮤지컬 ‘언제나 행복하지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여기저기 입소문이 나있어 은근히 기대를 하고 보게 되었다. 관객평도 좋았고, 다녀온 사람들의 사진들만 봐도 재미있어 보였다. 회사를 마치고 고픈 배를 부여잡고 갔었는데, 공연을 관람하면서 음식물 섭취 가능! 우와~ 덕분에 공연보는 동안 맛있게 먹으며 맘껏 웃고 즐겼다. 관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배우분들이 관객들을 공연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애드립의 대사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봤던 공연, 재미있고 유쾌한 공연을 보고 싶다면, 이 공연을 꼭 추천하고 싶다.

김현영(서구 서대신동 2가)

연극 ‘극적인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 그로부터 시작된 발칙한 사랑’이라...연극을 보기 전에는 20대 철없는 연인들을 떠올렸지만 결국 사랑의 상처는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의 코믹극이었다. 톡톡 튀는 대사와 함께 2시간 가까이 이끌어가는 두 배우의 열연도 매우 좋았다.

오지은(부산진구 부전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곱창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나랏소랑?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드립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 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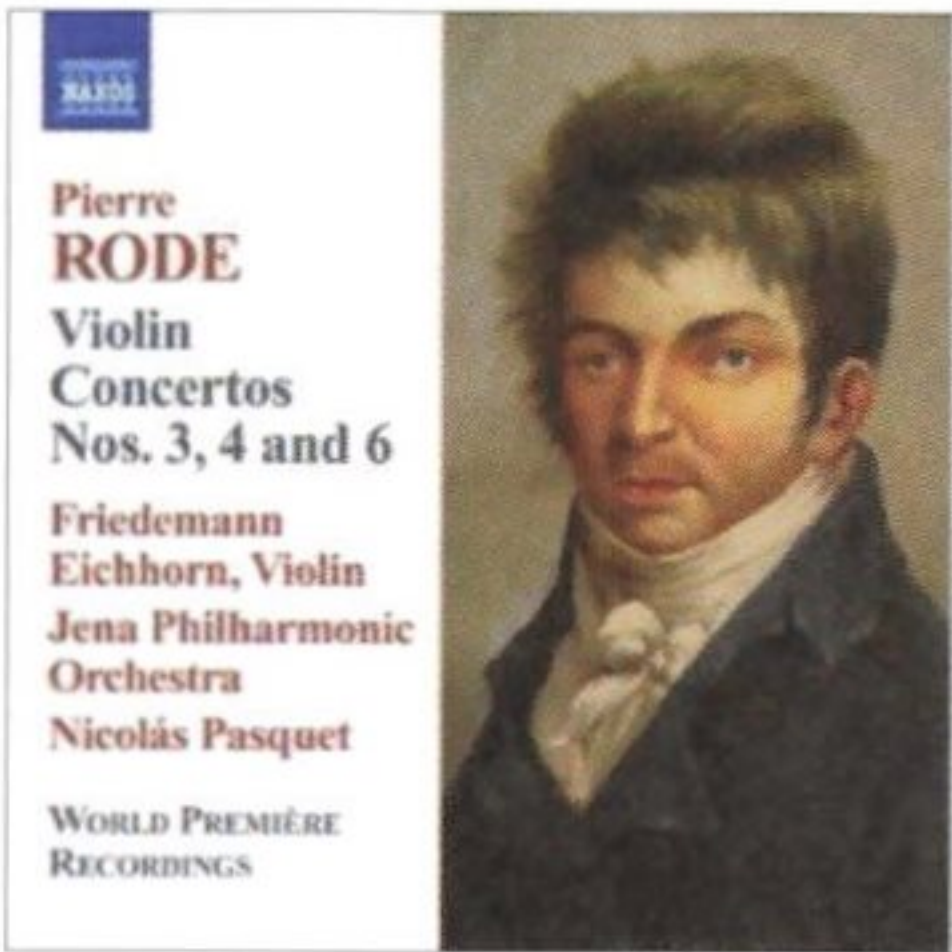


보케리니 '마드리드 거리의 밤의 음악'

▶연주/카잘스 사중주단, 에카르트 룬게(첼로), 카를레스 트레파트(기타), 다니엘 투머(캐스터네츠)

보케리니의 미뉴엣, 마드리드 거리의 밤의 음악 결정판!

보케리니의 이름이 여전히 유명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현악 5중주 작품 11, 제 5번의 미뉴엣 덕분일 것이다.(이 음반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음반은 판당고의 빛나는 캐스터네츠에서 빈 스타일의 현악 사중주에 이르는 다양한 개성과 무한한 창조적 영감을 지녔던 보케리니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품들을 선별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스페인 출신의 젊은 현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2002년 요하네스 브람스 인터내셔널 현악사중주 콩쿠르 최고상을 수상한 카잘스 사중주단, 아르테미스 퀴텟의 창립자인 첼리스트 에카르트 룬게, 기타리스트 카를레스 트레파트 등 국제적인 명성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호화로움을 더한 알찬 음반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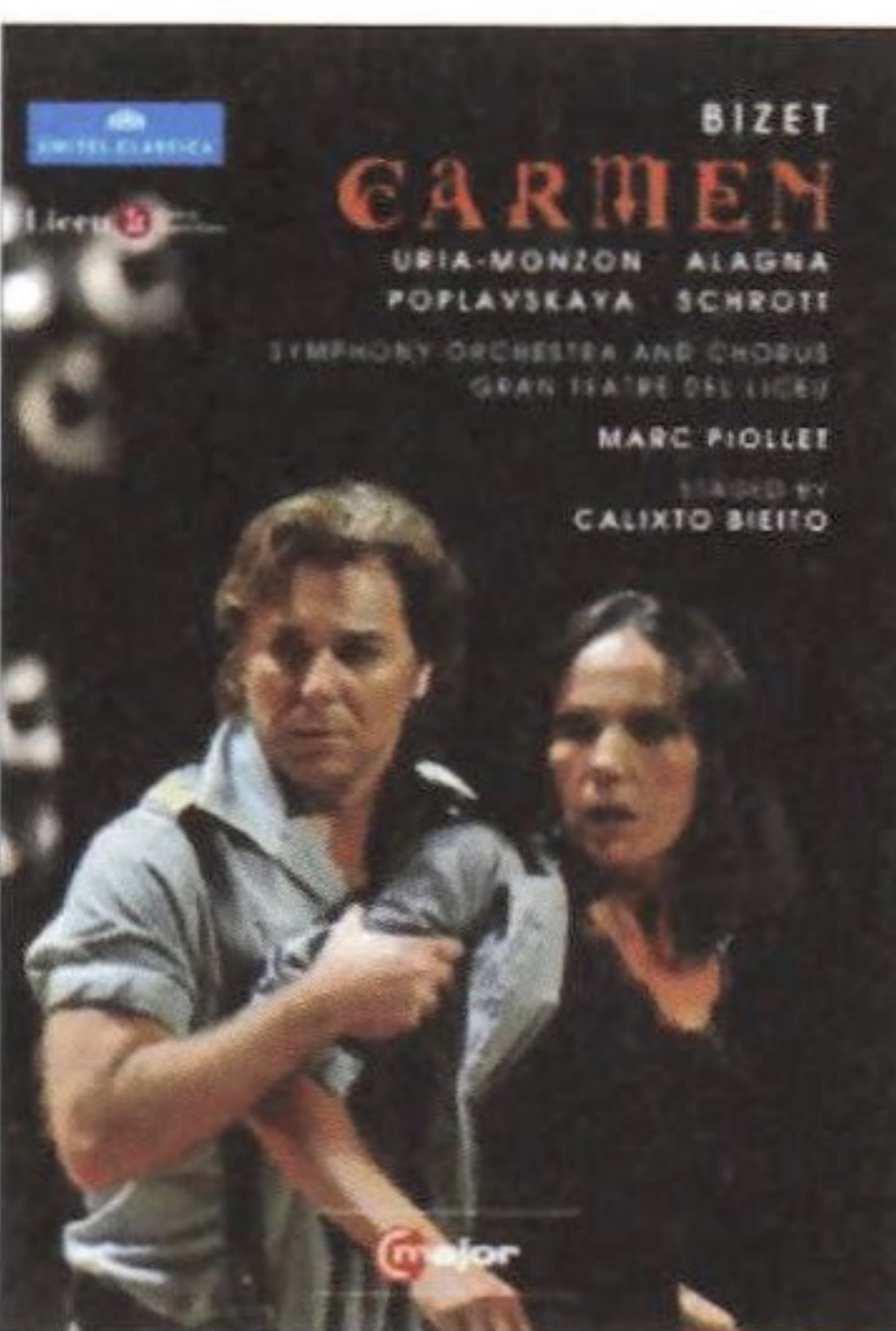


피에르 로드 바이올린협주곡 제 3, 4, 6번

▶연주/프리드리만 아이흐호른(바이올린), 예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니콜라스 파스케)

19세기 초반 프랑스 바이올린의 거장 피에르 로드의 명곡!

비외티의 제자인 피에르 로드(Pierre Rode)는 19세기 초반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계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바이올린의 거장이었다. 연주자로서의 자신의 기량을 기반으로 바이올린을 위한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는 파가니니의 작품과 쌍벽을 이루는 작품으로 유명하며, 12개의 에튀드와 같은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이 특히 유명하다. 피에르 로드는 자신의 화려한 초절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바이올린 협주곡들도 13곡이나 남겼는데 신보에는 그의 가장 유명한 협주곡인 6번을 비롯하여 화려한 기교를 요구하는 3번, 서정성이 돋보이는 4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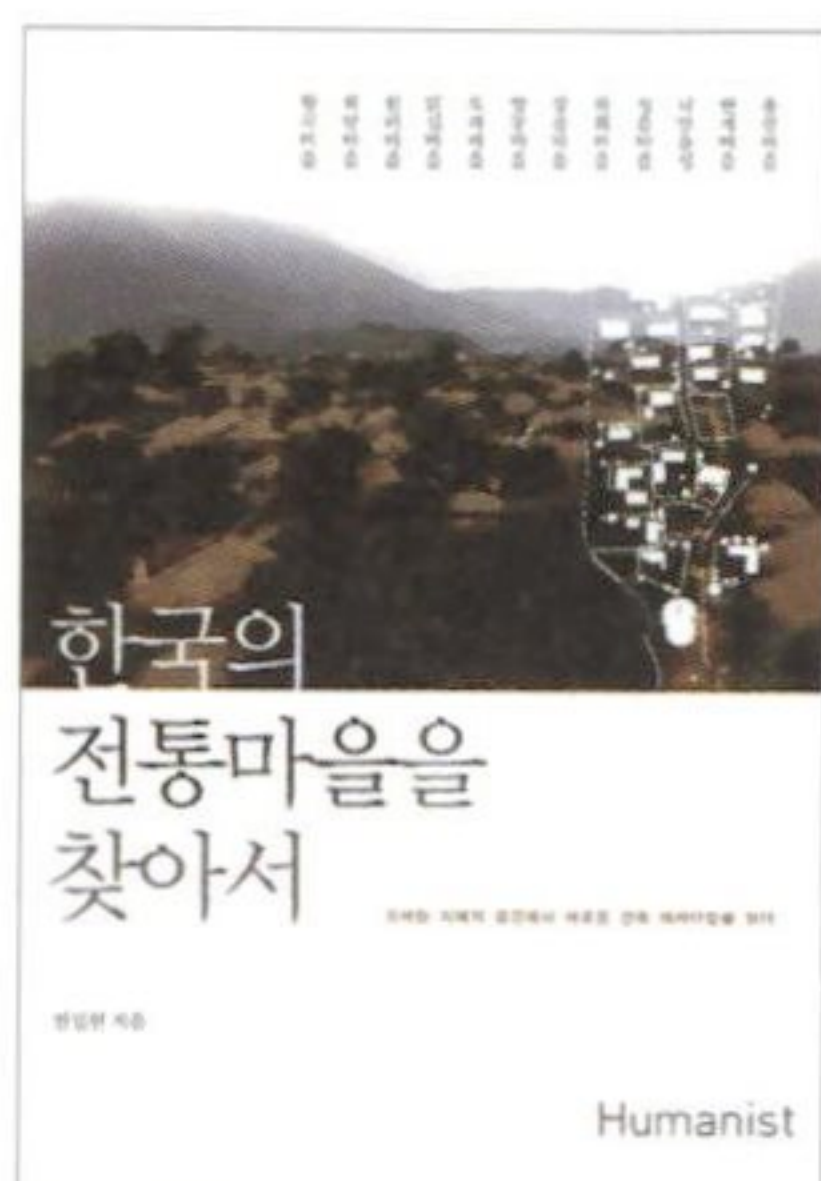


비제 카르멘(2DVD)

▶출연/베아트리스 위리아-몽종(카르멘)/로베르토 알라냐(돈 호세)/어윈 슈로트(에스카미요)/
마리나 포플라프스카야(미카엘라) 외/마르크 피올레(지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르멘과 돈 호세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오페라계의 도살자'로 악명 높은 화제의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의 <카르멘>이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2010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을 위해 연출한 최신 프로덕션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르멘과 돈 호세인 베아트리스 위리아-몽종과 로베르토 알라냐, 그리고 네트렙코의 남자라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서 오페라계의 새로운 히어로로 급주가를 올리고 있는 바리톤 어윈 슈로트가 한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한다. 비에이토가 선보인 이전 연출작들에 비해 선정성과 폭력의 강도가 다소 줄어든 편이지만, 현대적이고도 암울한 배경 위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여정은 21세기 우리 주변에서도 이 악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될 수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이 영상물은 보다 통상적으로 공연되는 레치타티보를 적용한 개정버전에 의한 연주이며,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이 이 위대한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도와준다.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오래된 지혜의 공간에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읽다

한필원 지음 / 휴머니스트
/ 520p / 28,000원

전통마을을 연구해온 건축학자 한필원 씨가 한국 전통마을의 가치를 탐구한 책을 펴냈다. 지난 1985년부터 26년간 한국의 전통마을을 조사 연구해온 결과물이 이 책이다. 한국의 전통마을에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살아있다. 우리 전통마을은 땅과 건축과 인간의 진정한 관계를 발견하고 최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21세기에도 시대를 초월해 빛을 발하는 전통마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 오래된 지혜의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자는 사상과 문화, 사회, 환경이라는 네 개의 시선을 통해 성읍마을, 하회마을, 강골마을 등 전국의 대표적인 전통마을 열두 곳의 건축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서구의 건축 이론에서 벗어나 역사와 문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한국적인 건축의 패러다임을 읽어낸다. 저자는 '나는 건축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건축과 도시가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크고 화려한 현대의 건축물들은 땅에서 우리를 떼어놓고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에 비해 전통마을에 들어서면 집과 나무들이 나를 반기고 존중하는 듯하다'고 말한다.



고마워 디자인
김신 디자인 잡문집

김신 지음 / 디자인하우스
268p / 15,000원

월간 <디자인>의 에디터와 편집장으로 모두 199회의 잡지를 진행한 디자인 저널리스트 김신의 칼럼집. 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수많은 디자인 속에서 살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장짜리 서류 양식에 서부터 책, 인터넷 사이트, 편의점 상품의 패키지, 스마트폰, 책상 위의 모니터, 식당의 의자와 테이블, 버스와 전철의 인테리어, 도로의 사인, 가로등, 고층건물의 외관, 공중 화장실의 세면대, 전등 스위치에 이르기까지 생활환경 속의 많은 사물들이 제구실을 하고 불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디선가 묵묵히 일하는 익명의 디자이너들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많은 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책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디자인의 고마운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능과 효율을 위해 봉사하는 평범한 디자인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수준을 높이는 일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오페라 366

백남옥 지음 / 한울
/ 912p / 69,000원

'한국 가곡의 여왕' 메조소프라노 백남옥 경희대 성악과 교수가 강단을 떠나며, 그동안 대중에게 오페라를 알리기 위해 '오페라 이야기' '오페라 로맨티카'에 이어 '오페라 366'를 출간했다. 세계 최초의 오페라 작품인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1607년 초연)부터 피커의 '미국의 비극' (2005년 초연)까지 366편의 오페라를 작곡가별로,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의 새로운 사조까지 굵직굵직한 오페라 작품들을 총망라했다. 오페라에는 음악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바로 스토리다. 오페라란 음악적으로 양식화된 음악극의 흐름이기에 스토리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스토리를 모르고 공연을 본다거나 음악재생기기로 오페라를 듣는다면 오페라에 대한 사랑이 반감된다. 저자는 오페라의 스토리, 즉 줄거리를 오페라 탐구의 첫 관문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러한 줄거리가 나오게 된 배경과 에피소드, 감상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여 줄거리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각 작품의 작곡가, 전체 구성과 대본 집필자, 초연 시기와 장소, 주요 배역 및 배역의 성악 파트, 음악 하이라이트, 베스트 아리아 등을 소개하여 오페라 입문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부산 대표 문화사절단 부산시립무용단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한국문화주간' 초청공연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부산의 대표 문화사절단 부산시립무용단이 10월에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연길에 오른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자매도시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 초청공연에 참가하게 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산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다이나믹 부산 환타지' 무대를 통해 문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드높인다. 1990년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은 후쿠오카 아시아먼스 메인 사업의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상호 이해 및 우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민속예능 공연과 명물요리, 특산물 판매 등 아시아 태평양의 매력을 한 곳에 모은 도시형축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각광받아왔다.

22회를 맞는 올해는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메인 행사장인 마린멧세 후쿠오카에 이어 JR하카타역 앞 광장에 새롭게 제 2 행사장을 개설하여 관광 프로모션 PR의 장이 마련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마린멧세 특설무대에서 10월 8일 '부채춤' '천지현황', 9일 '천지현황' 과 9일 하카타역 특설무대에서 '부채춤' 과 '터울림21'로 다이나믹 부산 환타지를 열어준다.

후쿠오카 공연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은 10월 22일 두바이 공연길에 오른다.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산-두바이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두바이술탄문화재단(Sultan bin Ali Al Owais Cultural Foundation) 주최로 10월 24일~27일 열리는 한국문화주간 행사에 개, 폐막공연과 극장공연 무대를 장식하게 된다. 한국문화주간 행사는 부산시립무용단공연 외 부산홍보사진전, 아리수미술협회의 회화, 조각 전시회 및 한국영화 상영, 한식 소개,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한국주간공연 행사 외 술탄문화재단의 요청으로 두바이 인근 라즈알카이마의 극장에서 26일 공연을 갖는다. 지도자 셰이크가 참석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이번 두바이 공연에서는 아랍 문화와 차별화되는 '천하태평지무' '무천의춤' '화중신선' '분홍할미꽃' '부채춤' '청실홍실' '천지현황'으로 우리 문화와 신명을 널리 알린다.



부산시립무용단이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 두바이 '한국문화주간'에 참가한다.

10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풍성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문화의 달 10월에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10월 1일 내사랑부산공연 일환으로 열리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영도문화원 공연을 시작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등 16개 공연이 부산전역에서 열린다.

일정

10월 1일(토)	15:00 태종대	내사랑 부산공연 '영도문화원 공연' (출연/시립무용단)
10월 4일(월)	11:45 강서실내체육관	내사랑 부산공연 '노인의 날 기념 공연' (출연/시립무용단)
10월 5일(수)	10:30 시청 대강당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의 날 기념식' (출연/시립합창단)
10월 5일(수)	15:00 해군작전사령부	내사랑 부산공연 '해군작전사령부 공연' (출연/시립합창단)
10월 9일(일)	20:40 파라다이스호텔	내사랑 부산공연 '한국영화의 밤'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12일(수)	12:30 시청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12일(수)	19:00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13일(목)	10:3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13일(목)	16:00 재송어린이도서관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출연/시립교향악단)
10월 24일(월)	11:00 UN기념공원	내사랑 부산공연 '제 66회 UN의 날 기념식'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0월 26일(수)	12:30 시청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출연/시립무용단)
10월 26일(수)	15:00 모라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모라주공 1단지 주민들과'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0월 26일(수)	16:00 롯데백화점 광복점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콘서트' (출연/시립합창단)
10월 28일(금)	15:00 신평기업회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동내사랑지역아동센터 공연'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0월 28일(금)	15:00 세명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금정구정신보건센터 공연' (출연/시립교향악단)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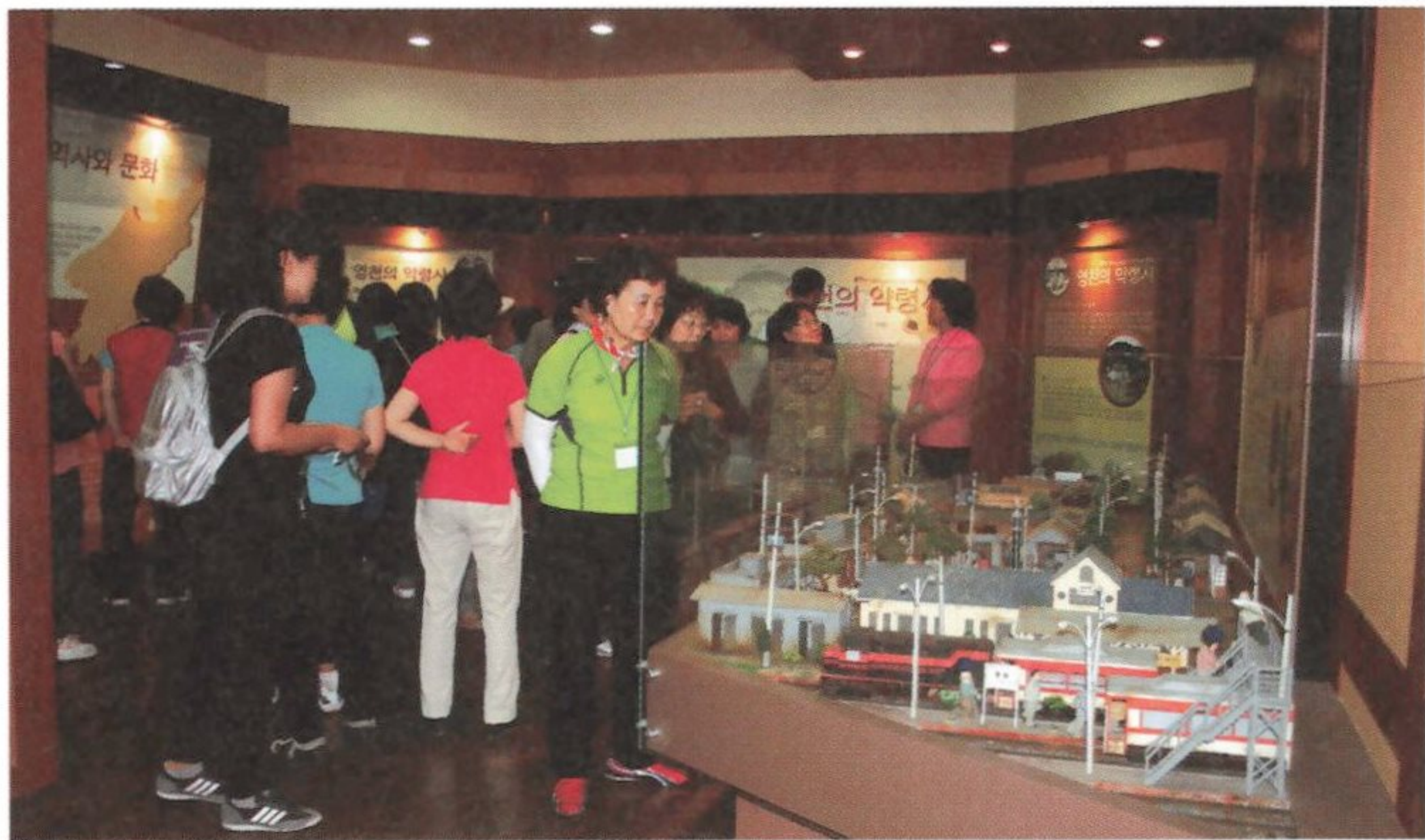
포도향 가득한 영천 가을여행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9월 테마여행지는 포도향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영천.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소현, 하지희, 최요셉 씨가 동행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영천여행의 첫 방문지는 바로 영천와인학교. 국내 최대 포도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천은 특히 와인 제조가 가능한 머루포도(MBA) 주산지로, 국내 와인생산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와인클러스트 사업을 시행,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조성과 와인 개발센터, 와인공장, 와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 오크통 모양을 한 독특한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와인학교는 와인양조 실습장과 와인저장고, 와인터널, 와인카페 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와인학교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와인전문가를 육성해오고 있다. 와인제조과정에 대해 해설사로 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은 회원들은 직접 와인을 만들어보기 위해 와인 체험장인 '고도리 와이너리'로 자리를 옮겼다. 고도리 와이너리 대표인 최봉학 씨의 안내로 체험에 앞서 직접 포도따기에 나섰다. 가장 당도가 높은 포도따기, 포도껍질 멀리 뺀기 등 이어지는 다양한 게임에 회원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게임 후 본격적으로 와인담기에 나선 회원들은 수확한 포도를 투명용기에 넣고 으갠 후 설탕과 효소를 넣어 자신의 이름을 적은 뚜껑으로 봉했다. 이렇게 제조된 와인은 1차 발효 후 포도껍질을 걸러내는 착즙과정과 2차 발효과정을 거친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세달 후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와인으로 탄생된다.

오전 일정 마지막은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의 만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소현(해금), 하지희(가야금), 최요셉(피리) 씨가 민요메





2011년 11월에는 **함안**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10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0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 강민주(서구 서대3동)
- 김영희(남구 대연동)
- 김지숙(수영구 망미1동)
- 김태영(북구 만덕동)
- 김학준(수영구 수영동)
- 양원미(서구 서대신동2가)
- 이옥경(연제구 거제1동)
- 전성욱(연제구 거제 1동)
- 정혜정(연제구 연산5동)
- 한임련(부산진구 개금3동)

엽서당첨자

- 강신경(동래구 온천동)
- 김신숙(북구 구포2동)
- 김호원(서구 토성동)
- 이바름(연제구 거제3동)
- 오경숙(부산진구 개금2동)
- 정미정(남구 우암2동)
- 최정숙(서구 부민3가)
- 함영규(해운대구 우1동)
-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 홍장훈(양산시 물금읍)

들리와 국악동요, 영화OST 등을 연주해 회원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최요셉 씨는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까지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공연 후 와이너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에 직접 담근 향기로운 와인까지 풍성한 밥상을 받은 회원들은 어느덧 마음까지 푸짐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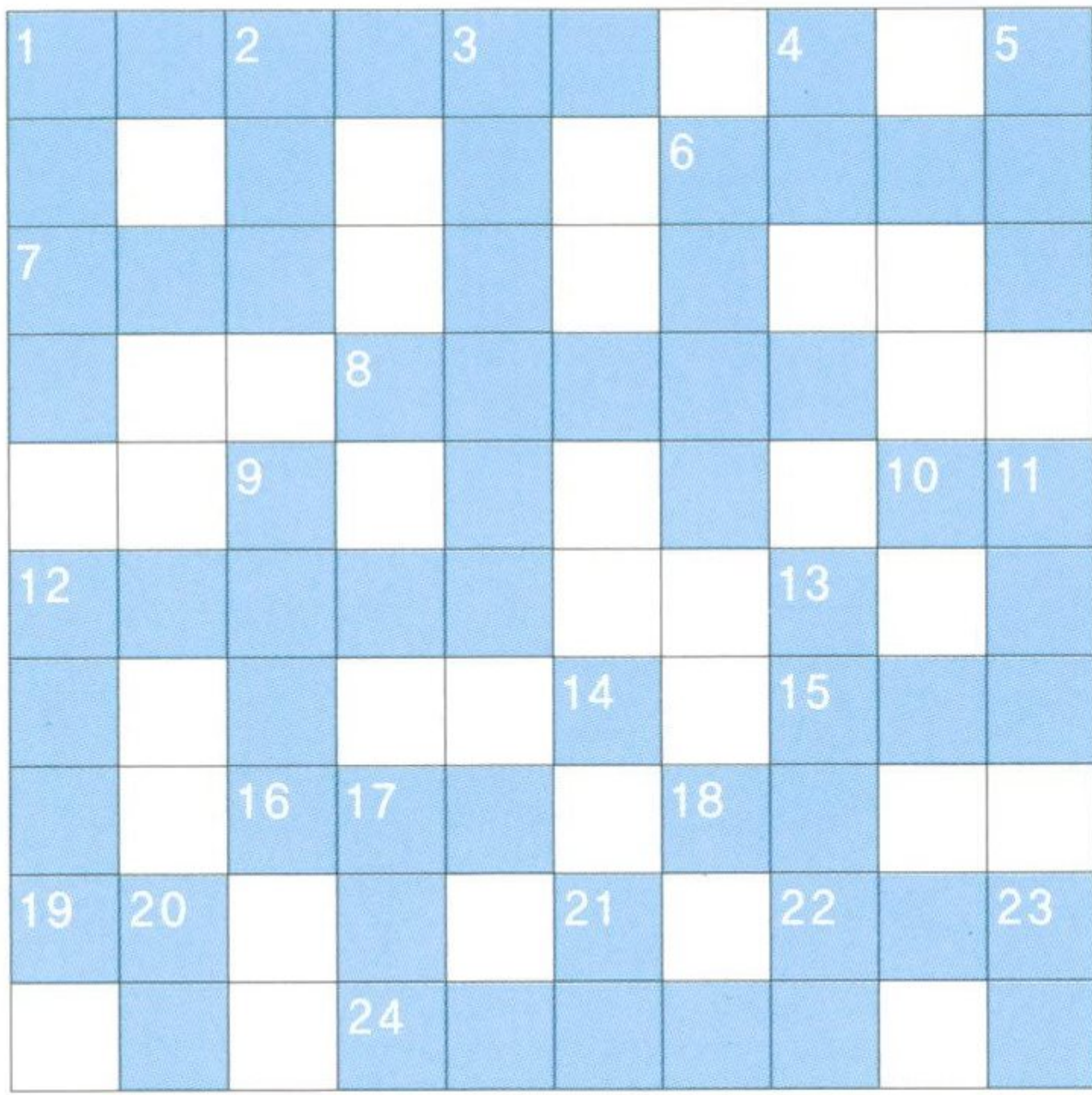
오후 일정의 첫 방문지는 2005년 한국여행작가협회로부터 '폐교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시안미술관. 1999년 폐교된 화산초등학교 가상분교에 조성된 시안미술관은 6,000여평의 잔디 조각공원과 함께 삼각지붕의 유럽풍 3층 건물로 새롭게 태어났다. 3개의 층에는 각 4개의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자료실, 수장고, 영상세미나실 등 다양한 시설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아름다운 카페도 준비되어 있다. 시안미술관에 도착하자 마침 시안미술관 개관 8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The Story'전이 열리고 있었다. 'The Story'전은 대구(경북)미술이 한국 현대미술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는 전시로, 강운섭, 박명조, 백락종, 서동균, 서창환, 서석규, 신석필, 장석수, 전선택, 정점식 등 대구, 경북지역 선배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해설사와 함께 전시실을 둘러본 후 회원가족들은 TV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미술관을 배경으로 저마다 사진찍기에 분주하다.

영천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전국 한약재 유통시장의 30%를 차지하는 한방도시 영천을 대표하는 한약재전시관.

5개의 전시실을 갖춘 한약재전시관은 한의학의 역사와 영천 대표 한약재, 약재감별법, 조선시대 한방진료, 중풍치료, 신한약, 한방산업의 미래 등 한의학과 한약재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체험공간에서는 약첩 포장하기, 체질 알아보기, 한약재 맛보기 등을 직접 체험 해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 가을을 느끼고 돌아온 영천여행. 숙성된 와인이 뿜어내는 향긋한 내음처럼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1_ 동래성을 지키다 목숨을 다한 송상현 동래부사와 동래읍성 민들의 충(忠)과 의(義)를 현대적 감각의 국악칸타타 형식으로 제작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 6_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
- 7_ 낭만파시대에 주로 피아노를 위하여 작곡된 소곡, 녹턴.
- 8_ 사적 제 158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있는 신라 문무왕의 해중왕릉(海中王陵).
- 10_ 1975년 무명의 신인감독에 불과했던 스티븐 스피버그를 일약 세계적인 감독으로 만든 영화로, 작은 해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 거대한 식인 백상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12_ 현대 젊은이들의 냉철한 허무감이 잘 나타난 정통적인 연애소설로, 1987년 발표 후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하루키 현상'을 낳기도 했던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
- 14_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와 함께 나도향의 후기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1985년 이두용 감독, 이미숙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15_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국제 테러리스트. 이집트 과격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자신이 조직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통해 국제적인 테러를 지원하기 시작해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와 9·11 미국대폭발테러 등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올해 5월 파키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사살되었다.
- 16_ 원래는 나무로 엮은 멧목을 뜻하는 말로,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의 급류를 헤쳐나가는 레포츠.
- 18_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효음식. 2001년 7월 5일 식품 분야의 국제표준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일본의 기무치를 물리치고 국제식품 규격으로 승인받았다.
- 19_ 영화나 텔레비전 등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
- 22_ 내장을 뺀 명태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반건조한 상태를 일컫는 이름.
- 24_ 1920년대부터 미국문학에 나타난 창작 태도. 현실의 냉혹하고 비정한 일을 감상에 빠지지 않고 간결한 문체로 묘사하는 수법으로, 주로 탐정소설에 영향을 끼쳤다.

세로열쇠

- 1_ 동래에서 음력 정월 보름날 야외에서 행하는 탈놀이. 문둥이·양반·영노·할미 등 4과장으로 구성되며 연중무사(年中無事)와 풍년을 기원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 2_ 일반적으로 가톨릭의 전례음악(典禮音樂)을 말하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찬송가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종교음악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 3_ 1996년 제작된 강제규 감독의 첫 번째 영화. 우연히 얻은 은행나무 침대를 둘러싸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벌어지는 환상적이고도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4_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말론 브랜도, 알 파치노 주연의 혁신적인 갱영화.
- 5_ 테너와 베이스의 중간 목소리로, 베이스의 깊이와 차분함, 테너의 화려함을 함께 지녀 남성 목소리를 상징하는 소리라는 평을 받고 있다.
- 6_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대표작.
- 9_ 가야금의 예인 우륵과 대가야의 멸망을 그린 김훈의 장편소설.
- 11_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수도는 스톡홀름. 안정적인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활, 문화 수준이 매우 높으며, 세계의 모범이 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 12_ 사물(事物)을 본 떠 그 사물이나 그것에 관련 있는 관념을 나타낸 문자로, 특히 초기의 한자(漢字)와 고대 이집트 문자를 말한다.
- 13_ 루브르미술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계기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 등에 숨겨진 암호를 풀면서 그리스도교를 둘러싼 비밀에 접근하는 과정을 그린 미국작가 댄 브라운의 스릴러 소설.
- 17_ 체코의 수도.
- 20_ 1192~1868년에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한 세습적 군사독재자인 쇼군[將軍]의 정부. 바쿠후.
- 21_ 서양 기보법으로 음악작품을 기록한 필사본이나 인쇄본.
- 23_ 경기에 참가한 팀이 돌아가면서 모두 대전하는 경기 방식.

지
난
호
정
답

영	화	의	전	당	동	물	원	
천			봉		춘			바
	유	홍	준	퀵				고
발	레		파		이	매	진	
	카	타	르	시	스			감
문		령			칼	의	노	래
화			사	하	라	르		채
대	취	타			좌	웨		플
학		고	지	전		바	이	올
		미	르		원	효		레

퍼즐당첨자 명단

공간소극장

김성덕(사상구 주례2동)
구보경(남구 용호동)
송혜경(해운대구 좌동)
이상식(양산시 북정동)
정영숙(연제구 거제 4동)

나랏소

김수미(동구 범일동)
손차순(남구 대연3동)
신윤숙(부산진구 부전동)
정주미(남구 대연4동)
최한수(남구 용당동)

BS부산은행 조은극장

김민경(부산진구 초읍동)
박미정(금정구 장전동)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오정원(해운대구 우동)
이바름(연제구 거제3동)

큰집

변영미(기장군 기장읍)
송수빈(동구 수정5동)
이창용(해운대구 좌동)
정창식(동래구 명륜동)
정한석(연제구 연산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 (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TEL. 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Tel 051.611.8518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맛을 곁들인다는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곁들인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2011년 10월 공연일정



부산문화회관 전경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전시실일정

아리랑 & 茶의 美 제 6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9월 30일(금)~10월 2일(월)
 대 동양차문화 유물전-동양차문화의 원류를 따라서/ 차와 화화 특별전/대만도자전/선고차인추모한다/김동열 작가 초대전/우리장신구 초대전/천연염색 초대전
 중 장릉속한복새주인찾아주기/ '백화차...피도위에 춤추다' /저자와의 대화 '아름다운 우리 찻그릇-윤영이 교수' (10월 1일 15:00), '우리차문화-김대철 작가' (10월 1일~2일 15:00)/예정전/차음식페스티벌/두리차회, 다실꾸미기/차문화사, 동영생/차예절 온니버나 이야기 등
 문의:(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www.busantea.kr)

대 중 2011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소통(疏通)과 통섭(統攝)' 10월 4일(화)~10월 10일(월)
 문의:김현령(888-3974)
 대 제 20회 전국서예공모전 10월 14일(금)~10월 16일(일)
 문의:오상완(010-7100-1200)
 중 제 20회 전국무용제 '춤 명예의 전당 전시' 10월 20일(목)~10월 29일(토)
 문의:부산무용협회(632-5116)

중 동아대학교 조각과 졸업작품전 10월 13일(목)~10월 18일(화)
 문의:김훈(010-6366-2119)
 대 2011 부산 세계열린미술 축제제 10월 18일(화)~10월 24일(일)
 문의:서요한(02-733-4770~1)
 대 종교소통미술전 10월 26일(수)~10월 31일(일)
 문의:서요한(02-733-4770~1)

중앙광장

제 20회 전국무용제 15개 시도의 날 17:30, 시민 춤 한마당
 • 21일 '사상문화원, 부산예고, 윤정미무용단' 18:30
 • 22일 '이예주 우리춤무용단, 인회영무용단, 최재현' 18:30
 • 23일 '용무용단, 이화무용학원, 하연희무용단' 18:30
 • 24일 '기정문화원, 부산예술고등학교, WINS' 18:30
 • 25일 '부산동구문화원무용단, 정하옥무용단, JULY' 무용단
 • 26일 '우리춤사랑연구회,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장선희무용단' 18:30
 • 27일 '서지영무용단, 브니엘예술고등학교' 18:30
 • 28일 '조영선무용단, SMJ ALL STARS, STEP' 18:30
 • 29일 '동주실버무용단, 부산예술고등학교, 감미선무용단' 18:30
 문의:부산무용협회(632-5116)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30</p> <p>대 GSK와 기아대척이 함께하는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7:00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영연암섬(02-720-3933)</p> <p>중 오아시스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진두천(010-5165-5363)</p> <p>소 제 6회 노경희와 음악친구들 15:00 무료/노경희(011-574-0423)</p>	<p>31</p> <p>대 피아니스트 김대진 리사이틀 17:00 5만원·4만원·3만원/더 스톱프(02-2658-3546)</p> <p>중 아리랑 & 茶의 美 제 6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11:00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4</p> <p>중 부산피아노연주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원영아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p>	<p>5</p> <p>중 부산피아노연주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리스트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p> <p>소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치카차 호랑이' 10:10, 11:20 균일 1만5천원/dubu기획(010-9138-2069)</p>	<p>6</p> <p>대 테너 오동주의 시월의 노래 19:30 균일 2만원/오동주(010-4556-5058)</p> <p>중 부산피아노연주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p> <p>소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 10:00, 11:40 1만5천원/dubu기획(010-9138-2069)</p>	<p>7</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3회 정기연주회 '베드벤 - 운송'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제 33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이태리음악연구회(010-7767-4390)</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3 '감정치마' 20:00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p>	<p>1</p> <p>대 사회복지법인 애공원 창립 60주년 기념 '프랑스 젊은이들의 4중주의 밤' 19:30 3만원·2만원/김정훈(010-7152-9748)</p> <p>중 아리랑 & 茶의 美 제 6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12:30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소 아리랑 & 茶의 美 제 6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학술세미나 '어린이 인성과 차예절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13:00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2</p> <p>대 2011 피아니스트 김대진 리사이틀 17:00 5만원·4만원·3만원/더 스톱프(02-2658-3546)</p> <p>중 아리랑 & 茶의 美 제 6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11:00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3</p> <p>중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아나첵 스트링 콰르텟이 선사하는 '프라하의 가을' 18:00 5만원·4만원·3만원 (주)프라이트(02-585-2934~6)</p>	<p>4</p> <p>중 부산피아노연주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원영아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p>	<p>5</p> <p>대 리처드용재오닐 (기도) with 뷔르템베르크첼보오케스트라 19:30 12만원·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p>중 부산피아노연주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리스트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p> <p>소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치카차 호랑이' 10:10, 11:20 균일 1만5천원/dubu기획(010-9138-2069)</p>	<p>6</p> <p>대 테너 오동주의 시월의 노래 19:30 균일 2만원/오동주(010-4556-5058)</p> <p>중 부산피아노연주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p> <p>소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 10:00, 11:40 1만5천원/dubu기획(010-9138-2069)</p>	<p>7</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3회 정기연주회 '베드벤 - 운송'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제 33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이태리음악연구회(010-7767-4390)</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3 '감정치마' 20:00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p>	<p>8</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 25회 청소년 합창제 17: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중 무궁화합창단 제 6회 정기공연 '스타바트 마테르' 19:30 균일 5천원/강영옥(010-2307-6922)</p>
<p>9</p> <p>대 부산가톨릭합창단 제 33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19:30 균일 1만원 부산가톨릭합창단(010-3854-3034)</p> <p>중 썬 공연단-리틴아메리칸 댄스공연 18:00 3만원·2만원/썬 공연단(644-6627)</p>	<p>10</p> <p>중 제 29회 부산무용콩쿠르 예선 KBS부산방송총국(010-2671-0729)</p>	<p>11</p> <p>중 제 29회 부산무용콩쿠르 예선 KBS부산방송총국(010-2671-0729)</p> <p>소 댄스뮤지컬 'RUN' 쇼케이스 18:00 (주)올레(010-3695-5353)</p>	<p>12</p> <p>중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창단 20주년 기념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42회 정기연주회 -경남피아노듀오협회 교류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진희(010-9928-3733)</p>	<p>13</p> <p>대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국악 칸타타 - 동래 성 불은 꽃' 20:00 2만원·1만5천원·1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p>중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창단 20주년 기념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42회 정기연주회 -조재혁, 피경선 피아노 듀오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진희(010-9928-3733)</p>	<p>14</p> <p>대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국악 칸타타 - 동래성 불은 꽃' 20:00 2만원·1만5천원·1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p>중 정문정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정문정(010-5797-9755)</p>	<p>15</p> <p>대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기금 모금 '효원음악회' 15:00 균일 5만원 부산대학교 총동문회(462-8780~1)</p> <p>중 부산무문아버지합창단 제 6회 정기공연 19:00 무료/윤원철(010-4553-3946)</p> <p>소 토요일무대-부산시립무용단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16</p> <p>대 (사)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40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원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p> <p>중 뮤즈콘서트피아어 제 5회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추인수(010-5503-9693)</p>	<p>17</p> <p>대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제 9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배은주(010-3133-8026)</p> <p>중 UKO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무료/UKO(010-4880-4918)</p> <p>소 김문주 클래스 피아노 연주회 19:30 초대/조민지(010-4693-1438)</p>	<p>18</p> <p>대 제 29회 부산무용콩쿠르 본선 KBS부산방송총국(010-2671-0729)</p> <p>소 부산남고 총동문정학회 '감사의 밤' 20:00 초대/백명호(010-2567-3033)</p>	<p>19</p> <p>중 부산시립합창단 제 139회 정기연주회 'PRESENT-선물 & 현재'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소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이아영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5천원/이아영(016-530-3254)</p>	<p>20</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개막행사 18:3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부산시립교향악단-2011월빙문서드 '클래식아 보 인다 IV - 영화 속의 클래식'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시인의 해설과 함께하는 김성덕 예술가곡 작곡발표회 19:00 초대/김성덕(010-4541-8576)</p>	<p>21</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특별공연 '명인 영무전' 19:00, 경연-부산 '허경미 Red Step' 20:0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2011 대학합창페스티벌-동아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젊은이를 위한 성악연주회 19:30 초대/민강원(010-5898-1957)</p>	<p>22</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경연-전북 명무전' 19:00, 경연-부산 '허경미 Red Step' 20:0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2011 대학합창페스티벌-고신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토요일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23</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경연-충남 '권용상 무용단', 대구 '김선영 현대무용단' 19:3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이영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8:0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p>	<p>24</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경연-충북 '강민호 무용단', 전남 '남희주 무용단' 19:3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2011 대학합창페스티벌-신라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제 2회 김영근 독창회 '그리움에 대하여' 19:30 무료/김영근(010-3567-3723)</p>	<p>25</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경연-광주 '로일발레단', 강원 '강원춤아카데미' 19:3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Ensemble di Mare 제 5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p>	<p>26</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경연-인천 '나누리 무용단', 제주 '김해일 무용단' 19:3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2011 대학합창페스티벌-동인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27</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경연-경북 '포항 이화예술무용단', 경남 'M&S 무용단' 19:3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하이든 & 모차르트'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특별공연 '새물결 춤 작가전' 18:0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28</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경연-대전 '라 디나미카 댄스', 울산 '박종원 댄스컴퍼니' 19:3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제 13회 원로음악회 19:30 초대/전이동(010-2705-0366)</p> <p>소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특별공연 '새물결 춤 작가전' 18:0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29</p> <p>대 춤, 바다를 날다 제 20회 전국무용제 폐막행사 16:00 균일 5천원/전국무용제 사무국(623-5117)</p> <p>중 2011 MIK 앙상블 리사이틀 17:00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더 스톱프(02-2658-3546)</p> <p>소 토요일무대-부산고문고악회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October 2011 Program Guide



The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Galleries

Ⓜ The 6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e Festival 9.30(Fri)~10.2(Sun) Busan Tea Agency(809-1551)

Ⓜ The 2011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10.4(Tue)~10.10(Mon) Kim Hyeonryeong(888-3974)

Ⓜ Dong A University Sculpture Graduation Piece Exhibition 10.13(Thu)~10.18(Tue) Kim hoon(010-6366-2119)

Ⓜ The 20th International Calligraphy Contest Exhibition 10.14 (Fri)~10.16(Sun) Oh Sangwan(010-7100-1200)

Ⓜ The 2011 World Art Festival 10.18(Tue)~10.24(Mon) Seo Yohan(02-733-4770~1,010-754-3311)

Ⓜ The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10.20(Thu)~10.29(Sat) Busan Dance Agency(632-5116)

Ⓜ All Religion Communicate Exhibition 10.26(Wed)~10.31(Mon) Seo Yohan(02-733-4770~1,010-754-3311)

Sun

30

Ⓜ Violinist Dong-Suk Kang's Hope Concert with GSK 17:00 ₩100,000 ₩80,000 ₩60,000 ₩40,000 Younganitsun(02-720-3933)

Ⓜ The 2nd Regular Oasis Symphony Orchestra concert 17:00 Invitation Jin Doochan(010-5165-5363)

Ⓜ The Music Friends and No Kyounghee 15:00 Free/No Kyounghee(011-574-0423)

2

Ⓜ The Pianist Kim Daejin Recital 17:00 ₩50,000 ₩40,000 ₩30,000 The Stomp(02-2658-3546)

Ⓜ The 6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e Festival 11:00 Free/Busan Tea Agency(809-1551)

9

Ⓜ The 33rd Regular Busan Catholic Chorus concert 19:30 ₩10,000 Busan Catholic Chorus(010-3854-3034)

Ⓜ Latin America dance performance 18:00 ₩30,000 ₩20,000 Sun Agency(644-6627)

16

Ⓜ The 40th Regular Incorean Symphony Orchestra Concert 19:30 ₩20,000 ₩10,000 Incorean Symphony Orchestra(626-8081)

Ⓜ The 5th Muse Concert Choir 19:00 ₩10,000/Chu Insul(010-5503-9693)

23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 -Dance, Fly in the Sea Chungcheongnamdo, Daegu 19:30 ₩5,000/KDF(623-5117)

Ⓜ Violinist Lee Youngjoo Recital Concert 18:00 ₩10,000/Artsbankcorea(442-1941)

Mon

31

Ⓜ Pianist Julius-Jeongwon Kim with Janacek String Quartet Concert 18:00 ₩50,000 ₩40,000 ₩30,000 Proart(02-585-2934~6)

10

Ⓜ The 29th Busan Dance Competition [Preliminary] KBS(010-2671-0729)

17

Ⓜ The 9th Regular Busan Metropolitan Women's Chorus Concert 19:30 Free/Bae Eunjoo(010-3133-8026)

Ⓜ UKO Orchestra Concert 'Youth Concerto' 19:30 Free/UKO(010-4880-4918)

Ⓜ Kim Moonjoo Class Piano Concert 19:30 Invitation/Jo Minji(010-4693-1438)

24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Dance, Fly in the Sea Chungcheongbukdo, Jeollanamdo 19:30 ₩5,000/KDF(623-5117)

Ⓜ The 2011 University Choir Festival 19:30 Invitation/Buan Music Agency(634-1295)

Ⓜ The 2nd Kim Youngkun Recital 19:30 Free/Kim Youngkun(010-3567-3723)

Tue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B.P.O/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J.C/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4

Ⓜ [Pianist Festival] Won young A Piano Recital 19:30 ₩10,000 Park Jieun(010-5160-0968)

11

Ⓜ The 29th Busan Dance Competition [Preliminary] KBS(010-2671-0729)

Ⓜ Dance Musical 'RUN' Showcase 18:00 Olleh(010-3695-5353)

18

Ⓜ The 29th Busan Dance competition [Final] 19:30 KBS(010-2671-0729)

Ⓜ Busan South Highschool Alumnus Scholarship 20:00 Invitation Baek Pyeonghyol(010-2567-3033)

25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 -Dance, Fly in the Sea Gwangju, Gangwondo 19:30 ₩5,000/KDF(623-5117)

Ⓜ The 5th Regular Ensemble di Mare Concert 19:30 ₩20,000 ₩10,000 ArtsBankcorea(442-1941)

Wed

Ⓜ [Pianist Festival] Liszt in Night 19:30 ₩10,000/Park Jieun(010-5160-0968)

Ⓜ Color Shadow Play 'Giraffes and Pig' 10:10, 11:20 ₩15,000 dubu(010-9138-2069)

12

Ⓜ The 42nd Regular Busan Piano Duo concert 19:30 ₩10,000 Kim Jinheel(010-9928-3733)

19

Ⓜ The 139th Regular Busan Metropolitan Chorus concert 19:30 ₩10,000 ₩7,000 ₩5,000 B.M.C(607-3141~2)

Ⓜ Pianist Lee Ayoung Recital 19:30 ₩15,000/Lee Ayoung(016-530-3254)

26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 -Dance, Fly in the Sea Incheon, Jeju 19:30 ₩5,000/KDF(623-5117)

Ⓜ The 2011 University Choir Festival 19:30 Invitation/Buan Music Agency(634-1295)

Thu

Ⓜ [Pianist Festival] Duo 19:30 ₩10,000 Park Jieun(010-5160-0968)

Ⓜ Color Shadow Play 'Giraffes and Pig' 10:00, 11:40 ₩15,000 dubu(010-9138-2069)

13

Ⓜ Th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Special Project Performance 'Guk Ak Cantata(Korean classical music)' 20:00 ₩20,000 ₩15,000 ₩10,000 B.M.T.O(607-3121~2)

Ⓜ The 42nd Regular Busan Piano Duo Concert 19:30 ₩10,000 Kim Jinheel(010-9928-3733)

20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Opening] -Dance, Fly in the Sea 18:30 ₩5,000/KDF(623-5117)

Ⓜ The 2011 Well-being concert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1:00 ₩10,000/B.P.O(607-3111~3)

Ⓜ Kim Soungduk Composition Conference 19:00 Free Kim Soung duk(010-4541-8576)

27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 -Dance, Fly in the Sea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19:30 ₩5,000/KDF(623-5117)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pecial Concert 'Mozart and Haydn' 19:30 ₩2,000/B.P.O(607-3111~3)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 -Dance, Fly in the Sea 19:30 ₩5,000/KDF(623-5117)

Fri

Ⓜ The 473rd Regular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5' 19:30 ₩10,000 ₩7,000 ₩5,000/B.P.O(607-3111~3)

Ⓜ The 33rd Regular Italy Music Research Society Concert 19:30 ₩10,000 Italy Music Research Society(010-7767-4390)

Ⓜ 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Black Skirt' 20:00 ₩30,000/B.C.C(607-6058)

14

Ⓜ Th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Special Project Performance 'Guk Ak Cantata(Korean classical music)' 20:00 ₩20,000 ₩15,000 ₩10,000 B.M.T.O(607-3121~2)

Ⓜ Pianist Jung Moonjoo Recital 19:30 ₩10,000 Jung Moonjoo(010-5797-9755)

21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Special] -Dance, Fly in the Sea 20:00 ₩5,000/KDF(623-5117)

Ⓜ The 2011 University Choir Festival 19:30 Invitation/Buan Music Agency(634-1295)

Ⓜ Voice Concert for Youth 19:30 Invitation/Min Gangeun(010-5898-1957)

28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 -Dance, Fly in the Sea Daejeon, Ulsan 19:30 ₩5,000/KDF(623-5117)

Ⓜ The 13th Elder Concert 19:30 Invitation/Jun Ledong(010-2705-0366)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 -Dance, Fly in the Sea 19:30 ₩5,000/KDF(623-5117)

Sat

1

Ⓜ The 60th AEKWANG Social Services Founder's day -The Quarter Performs French Classical Music 19:30 ₩30,000 ₩20,000/Kim Jounghoon(010-7152-9748)

Ⓜ The 6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e Festival 12:30 Free/Busan Tea Agency(809-1551)

Ⓜ The 6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e Festival 13:00 Free/Busan Tea Agency(809-1551)

8

Ⓜ The 25th Youth Chorus Festival 17:00 Free/B.M.J.C(607-3161~2)

Ⓜ The 6th Regular Mukle Chorus Concert 19:30 ₩5,000/Mukle Chorus(010-2307-6922)

15

Ⓜ The Busan University a Scholarship Fund-Hyowon Concert 15:00 ₩50,000/Busan University(462-8780~1)

Ⓜ Busan Green Father Choir Concert 19:00 Free/Yoon Wanjoo(010-4553-3946)

Ⓜ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22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ontest] -Dance, Fly in the Sea Jeollabukdo, Gyeonggido 19:30 ₩5,000/KDF(623-5117)

Ⓜ The 2011 University Choir Festival 19:30 Invitation/Buan Music Agency(634-1295)

Ⓜ Saturday Regular Stage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29

Ⓜ The 20th Korean Dance Festival [Closing] -Dance, Fly in the Sea 19:30 ₩5,000/KDF(623-5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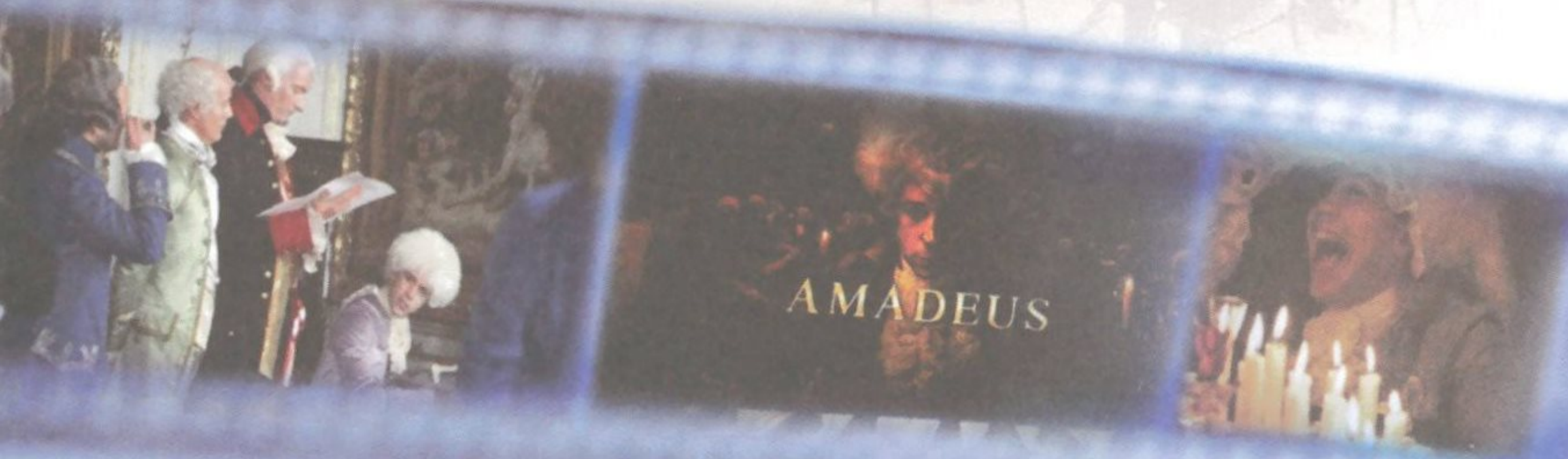
Ⓜ The 2011 MIK Ensemble Recital 17:00 ₩55,000 ₩44,000 ₩33,000 The Stomp(02-2658-3546)

Ⓜ Saturday Regular Stage - Gumungo (Korean musical instrument)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1 웰빙콘서트

1시에 만나요! 1클래식이 1보인다Ⅳ



영화 속의 클래식
'아마데우스' 와 모차르트의 음악

2011. 10. 20 목 오전 11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이동신



소프라노 마혜선



베이스 문동환



해설·진행 진희숙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3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함안 아라가야 역사기행**



무진정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함안 가을 여행.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함안의 주요 유적지 답사와 가을빛으로 물든 여산팔경
마을 농촌체험으로 가을을 만끽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30 함안 도착, 고려동 유적지, 함안박물관, 무진정 등 답사
- ➡ 12:30 중식
-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5:00 여산팔경마을 곳감만들기 체험
- ➡ 17:00 부산으로 출발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산청**



남사예담촌

지리산을 품고 있는 청정골 산청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고려말 공민왕 때 문익점(文益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면화(棉花)를 재배한 목면시배유지를 시작으로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청 남사예담촌 등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산청도착, 목면시배유지, 성철대종사생가 등 방문
- ➡ 13:00 남사예담촌 도착, 중식
- ➡ 14:00 남사예담촌 마을 투어, 농촌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Blank box for answer 1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Blank box for answer 2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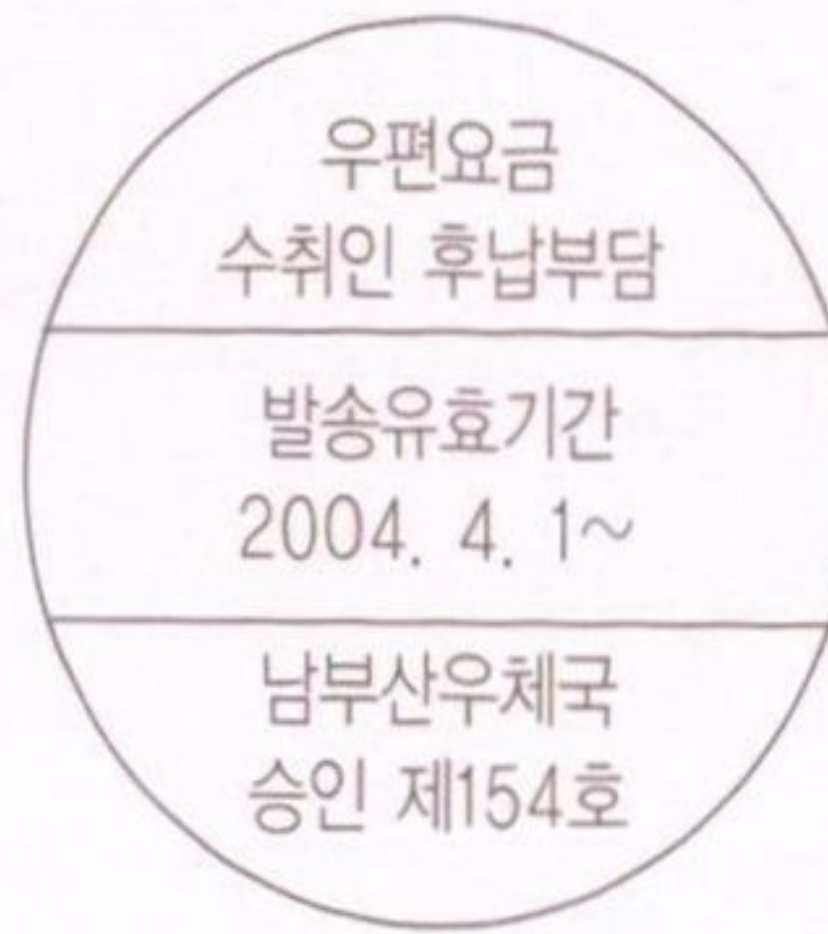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연극 **극적인 하룻밤** 20% 할인



2011.9.16(금)~10.23(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 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더 문 샐러너스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4'

2011. 11.11(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사이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1.concert



복소 코메디극 허둥9단의 바라바라 20% 할인



2011.9.20(화)~10.16(일)
화-목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휴관)

▶ 입장권: 균일 35,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화학 및 IT 소재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기업 (주)엠피온스 입니다”



사업분야

경화제사업(Hardner)

- 각종 수지의 고무, 실리콘의 중합반응 개시제, 가교제, 개질제, 경화제 등에 사용

수지사업(Resins)

- 인조대리석 공정에 적합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체도료용 수지분야도 있음

첨가제사업(Additives)

- 고기능성 첨가제는 분체도료나 고분자성형물딩, 나노향균코팅첨가제에 사용

기타상품(Others)

- 고온경화제 및 각종 모노머의 중합개시제, 점도조절제, 가교제 등

본사 &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19번지
TEL : 052-239-0970~2 FAX : 052-239-3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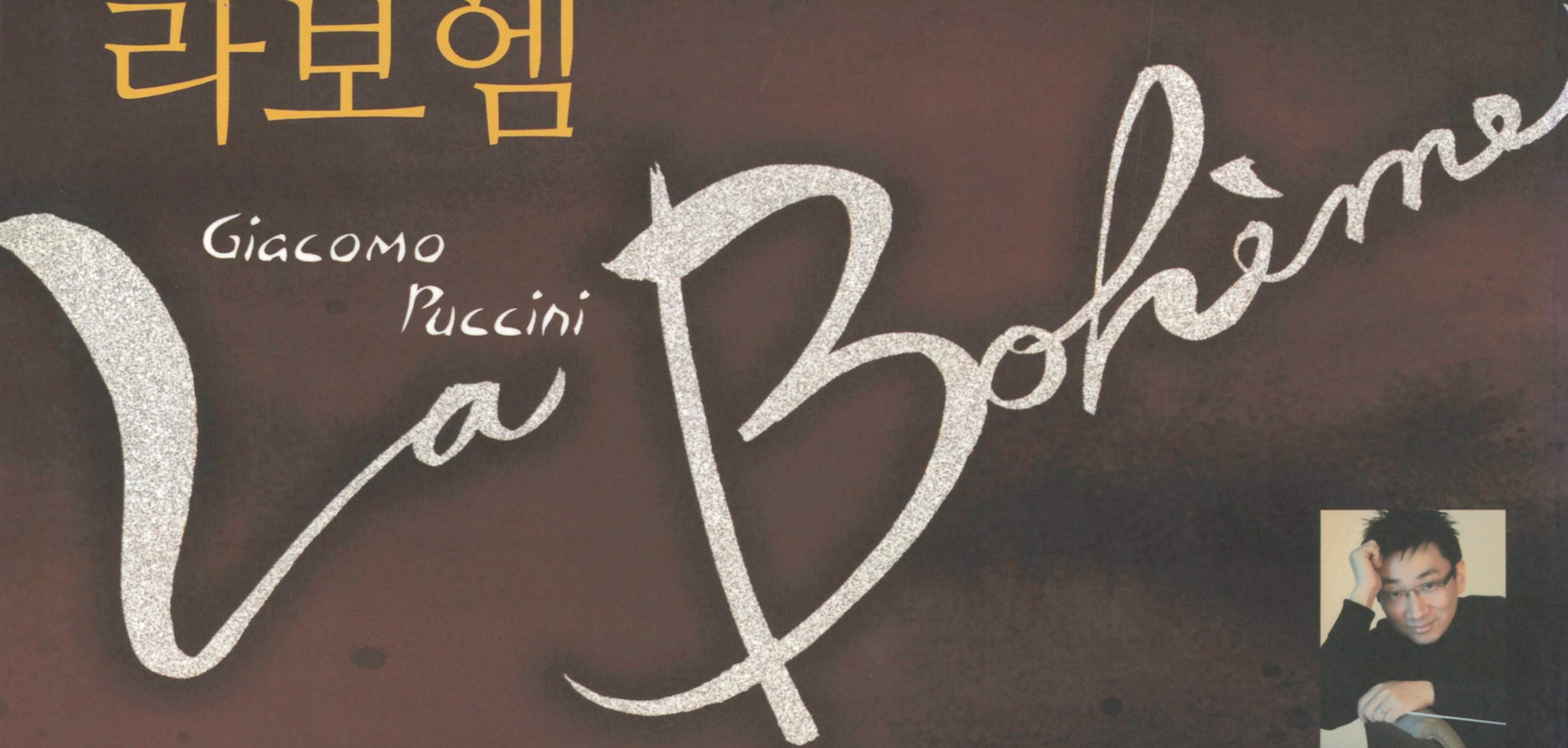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 118-1번지

Opera in Concert

라보엠

Giacomo
Puccini



지휘 리 신차오

2011. 11. 11 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소프라노 루안 이티엔



소프라노 송 위엔밍



테너 조윤환



테너 김추리



바리톤 우주호



바리톤 강경원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베이스 함석헌



베이스 이준석



베이스 문동환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소리바람중창단